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8 권 제 2 호 (통권 41 호)

1986. 4.

특집 21世紀를 向한  
敎育改革의 方向과 課題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교육개발

제 8 권 제 2 호 (통권 41 호)

1986. 4.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目的·內容·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 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 (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 目次

題字 孫在馨

卷頭言	開放의 마음을 기르는 教育	郭柄善	3
論壇	教育政策 研究小考	崔清一	5
	統計分析過程에서 觀察되는 問題點	鄭鐸熙	8
	遠隔教育에 있어 비디오·카세트 活用に 관한 調査·研究	金載姬	15
特輯	21世紀를 향한 教育改革의 方向과 課題		
	教育改革의 基本方向	金信福	25
	教育制度 改善의 方向과 課題	金永哲	31
	幼稚園·初·中等教育의 發展方向	郭柄善	37
	高等教育改革의 方向과 課題	姜武燮	43
	教育改革 基盤造成的 課題	尹正一	51
研究動向	現代教育哲學의 研究方法	정진곤·조경원	58
研究報告	高等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李容淑	63
	特殊兒童의 判別과 教育的 措置에 관한 研究	尹點龍	70
	教育投資規模와 收益率	孔銀培	75
教科教育	TV 中學英語 프로그램의 授業에의 活用方法	李岍基	79
海外教育 情報報	初等學校 兒童學力向上을 위한 유네스코 亞細亞·太平洋 地域會議	朴文泰·玄周	84
教育放送	'86學年度 教育放送 프로그램 編成案內	金承華	88
教育資料 情報報	韓國教育開發院業務 電算化 事例	文泰鎬	92
現場教育 相談	創意力を 伸張시키기 위한 授業方法에 대하여		9
院內動靜			96



↑ 캐나다 L. L. (LEO) PERRA Selkirk College 학장 외 3명 본원 내방 '86. 2. 6. (부원장실)



↑ 일본 2,000년대 미래교육학회장 가메다 요시코 본원 내방 '86. 3. 6. (제2회의실)

# 開放的인 마음을 기르는 教育

郭 柄 善\*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우리의 처지를 살펴 볼 때,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낀다. 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답게 살 만한 미래인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미래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인가?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자유 민주 체제를 기본적으로 고려한다면 몇 가지는 쉽사리 확인된다. 몇 가지를 교육적인 면에서 예시해 보면, 우선 다가오는 21 세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성숙된 자율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타율의 폭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며 참여, 자치, 자율의 폭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따라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몇몇이 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합리적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구하는 방법과, 습득된 지식 및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를 가려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크게 요청될 것이다.

또한 다가올 미래 사회는 부귀, 명성, 권력 등

통속적이고 가시적인 출세의 추구보다 삶의 의미와 보람 등, 삶의 길을 소중히 여기는 자아 실현에 보다 충실한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적성에 따라 자기가 가진 만큼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누구나 동등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즉,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각자의 소중함이 인정되고, 스스로 자신과 타인에게 몇몇할 수 있는 자아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학식, 명예, 재물, 세력 등 입신 출세의 외재적(外在的) 기은은 속물적인 것으로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각자가 전념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하는 내재적(內在的) 원리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가올 21 세기는 기발한 착상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크게는 광대한 우주와 해양으로, 작게는 극미한 미립자의 세계로 무한한 개척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다. 석유, 석탄, 자동차, 선박, 공작 기계 제조와 같은 현대 산업의 종아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컴퓨터, 항공 우주 산업, 해양 산업, 유전자 산업 등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는 지식 정보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은 물질을 극도로 미세하게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와 기술로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로 줄이면서 엄청난 생산 효과를 얻는 데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정보를 관리·전달하는 일이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

\* 教育課程研究部長·哲博

식·정보 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고정되게 받아들이는 일은 거부될 것이며, 언제나 새롭고 창의로운 문제 해결력이 요청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는 누구나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고도의 학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들 삶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쉬지 않는 배움을 생활의 일부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대량 고등 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된 고학력 사회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에 대처하고, 또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학교 안과 밖, 젊음이나 늙음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발달된 지식·정보의 전달 수단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단체, 언론 기관 등 많은 자생적, 자발적 기관과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되지만, 학교는 학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비형식적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여 폭넓게 개방될 것이다.

이상은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특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상해 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들 주변의 생활과 국내외 정세의 흐름에서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가상은 결코 허황된 것으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의 교육은 있을 수 있는 미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탐색과 의지는 교육의 연구와 실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 투시적인 입장에서, 교육 연구와 실천의 한 가지 과제를 생각할 때, 그것은 개방적인 마음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중요할 것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나 태도, 예컨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충실하려는 자아 실현의 의지, 고도의 탐구력과 창의력,

늘 새롭게 학습하는 태도 등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원칙을 덮어두는 소아적(小我的)이고 편의주의적인 마음, 자기가 신봉하는 가치관이나 신념만이 옳으며, 이외의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적 특성이다. 이런 폐쇄적인 마음이 많은 사회는 결코 미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개방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도의 자율, 창의, 합리, 학습을 선도한 사회의 변화에 종속되기 쉽다. 우리의 인류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닫힌 마음으로 현상에 안주하려는 사회는 낙오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개방적인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심리학적, 철학적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한 실용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수용함에 있어서 타당하고 신성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신념에 대한 확신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만약 보다 타당하거나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견지하고 있는 신념에 수정이 필요하면 이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즉, 편견이나 오류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의 신념, 또는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다 타당한 신념의 획득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懷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설사 자신의 것과 다른 입장이 있을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념, 의견, 생각하는 방식, 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존중되고, 그러한 다양성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용적인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사람과 집단간에 있을 수 있는 입장의 차이는 경멸 또는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성숙된 미래로의 각성을 자극하고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기르는 교육에 골몰하고 있는가? 미래는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의 이야기이다. —◆

## 教育政策 研究小考

崔 清 —\*

教育現象을 연구하는 데는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基礎研究와 應用研究로 구분하기도 하고, 結論指向的 研究와 意思決定指向的 研究로 분리하기도 하며, 學問研究와 政策研究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겠다.

기초 연구는 이론의 實驗과 檢證을 통해서 該當 學問領域에 있어서 지식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책 연구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情報資料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政策 그 자체는 行動의 理論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政策이란 용어 자체가 반드시 어떤 問題의 定義, 解決方案 및 目的 達成이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分明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고, 해결 방법 없이는 계획된 정책 목표를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연구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代案을 추출해서 실제 집행 이전에 실험 검증을 실시하여 만약 또는 어떤 조건하에서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評價를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計劃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效率的인 方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Coleman의 주장과 같이 정책 연구에서는 일정한 방법을 정하기가 어렵다. 意思決定과 執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회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과학적 지식

의 이용을 통해서 정책을 계획·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와 행동 연구의 혼합 연구라는 편이 더 적합할는지 모른다. 기초 연구는 분석적이며 불가치적 방법이 사용되나, 행동 연구는 오히려 종합적이며 가치론적 방법이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분석 단계에서는 불가치적이나 정책의 형성과 결정 단계에서는 가치론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 각층의 意見과 要求가 수렴되어 정책의 방향이 형성되는 것이다.

政策研究의 독립성은 Coleman이 말한 바와 같이 시간성, 언어와 개념, 이해 집단의 다양성 및 정보의 과다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정책 연구는 연구가 반드시 정책 결정 이전에 마쳐져야 한다. 학교가 신설되어 개학을 하게 된다면 개학 이전에 학교 조직,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검토가 끝나야 하며, 건물 건립, 교원 채용 및 교재 자료 구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책 연구의 기여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 연구는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론이 개발되고 지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에서 말하는 時間性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약 不完全한 정보 자료가 정책 결정에 이용되었더라도 이 불완전한 情報資料는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의 完全한 자료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책 연구에 있어서 情報資料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초 연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기초 연구에서는 정보 자료의 過多性이라기보다는 정보 자료의 經濟性에 입각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정보 자료에 기초

\* 東亞大學校 教授



해서 法則과 理論을 이용하여 적은 정보라 할지라도 특수 상황을 예측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칙과 이론을 토대로 특수 현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정보라도 매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 분야의 이론이 발전해 있는 경우에는 적은 정보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政策研究에서는 정보 자료의 經濟性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有用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경제성 대신에 정보의 過多性이 정책 연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책 연구에서는 고도로 세분된 기법보다는 적절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고도의 정교한 연구 기법은 만약 그 기법이 정확하다면 아주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약에 몇 개의 가정이 맞지 않는다면, 표집 오차가 있다든지, 또한 몇 개의 중요한 변인이 생략되었다든지 한다면 결과는 아주 부정확하게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주로 이론 모형은 주어진 假定이 일치될 경우에만 정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세째, 기초 연구에서 변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나 정책 연구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초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끝나지만 정책 연구에서는 이것이 결과 변수, 정책 변수, 상황 변수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기초 연구에서는 정책 변수와 상황 변수를 독립 변수로 처리해 버리게 되지만, 정책 연구에서는 정책적 통제에 의해서 조작되는 정책 변수와 정책적 조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 변수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 변수를 고려하고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과 변수에 미치는 상황 변수의 영향은 論外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보험의 부담금을 책정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산정은 정책 변수에 해당하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는 상황 변수가 된다.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평가하거나 정책 변수의 실험이 어려운 경우에 상황 변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Coleman 보고서(1966)를 예로 들면, 보고서에서 어린이의 가정 배경은 상황 변수로 처리되었다. 회귀

분석에서 어린이의 가정 배경은 통계상 통제 변수로 사용되어졌다. Coleman이 사용한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학업 성취에 있어서 학교라는 요인에 기인되지 않는 어린이들의 학력 차이를 수정하려는 의도에서 였다. 학교 요소 하나만 고려할 때는 모형 속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 때문에 학교 변수의 영향이 너무 과대 평가되어질 우려가 있고, 학교 요소가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될 때에는 학교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너무 과소 평가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 있어서 학생 배경 변인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생 배경과 학교 변인 간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학교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때에는 학생 배경 변인이 보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배경 변인은 상황 변수이고 학교 변인은 정책 변수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 변수는 정책 변수로, 정책 변수는 상황 변수로 고려되기도 한다. 네째, Coleman 의하면 정책 연구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는 社會科學者들이 아니라서 점이다. 사회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정책에는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정책 연구는 결국 기존 지식에의 기여라기보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사회 정책인 셈이다. 다섯째, 연구의 출발점과 관련되는데 기초 연구는 이전의 연구나 이론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점이 그 출발점이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연구는 학문에의 영역에서 생긴 문제로 시작된다. 학문 바깥에서 생긴 문제가 學問領域으로 들어와서 다시 학문 바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책 연구 그 자체가 벌써 정책 간섭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현실 세계의 의미를 안심함이 없이 그대로 연구 계획에 옮겨져야 한다. 만약 의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책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잘못하면 왜곡되게 전달되어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전달은 연구 결과의 전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政策研究는 두 가지 해석 행위로 구성된다고 보겠다. 문제의 해석과 결과의 해석으로 어느 하나의 해석이 어긋나게 된다면 연구는

쓸모 없게 된다. 기초 연구에서는 연구가 학문 영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문 영역에서 현실 영역으로 반송되는 정책 연구와는 달리 어느 하나의 解釋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정책 연구는 이 두 세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각 영역에서의 해석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책 연구 문제는 학문 영역 바깥 것에서 형성되어지고, 해당 연구 문제를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학문 영역 안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研究問題를 형성하는 행동의 세계와 그것을 해결하는 학문 세계는 주로 보고서의 발간·배포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政策研究의 이용자는 학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문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간된 보고서를 통하여 문제의 해석과 결과의 해석

에 대해서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 해석과 결과의 해석이 보는 이해 집단에 따라서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하나가 잘못 해석된다면 그 연구는 쓸모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考慮해서 정책 연구를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고려되고 있다. 첫째, 정책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집단을 구명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집단을 찾는 것이다. 둘째, 이해 집단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며, 셋째, 무슨 종류의 정보가 理解集團의 이해 관계에 상반되는가를 찾는 것이며, 넷째, 이 정보를 얻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섯째,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이다. ◆

**現 場 教 育 相 談**

**創意力を 伸張시키기 위한 授業方法에 대하여**

(問) 創意的 能力이 科學的 成就에 있어서 必須的인 要因이라고 한다면, 創意的인 思考伸張을 위한 科學 教育은 一線教育現場에서 役점을 두고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인가, 創意力を 伸張시킬 수 있는 授業方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충남 천원군 목천면 목천 중학교 교사 김 인수)

(答) 창의력 신장을 위한 授業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結論, 또는 正答을 찾는 행동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답을 구해 보는 발산적 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創意力を 伸張시키기 위한 수업 방법 중의 하나를 들어 그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創意的 思考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고, 기상 천외한 생각에 대한 價値를 부여하고, 생활하는 동안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며, 널리 쓰여지는 說明이나 概念에도 모순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보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가치가 있으며, 사물을 예리하게 洞察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창의적인 생각과 그 생각으로 산물을 얻게 하는 技術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 기술 중의 몇 가지를 紹介하면,

- 눈여겨 보지 않던 성질, 사물, 또는 관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다.
- 가정(假定) 자체에 대해 면밀히 分析한다.
-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提示한다.
-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을 붙여 본다.
- 흔히, 생각하는 방법과 반대로 생각해 본다.
-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 결과를 豫測해 본다.
- 특이한 현상과 비슷한 주위의 현상을 이용한다.

3. 提案된 생각을 評價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제안한 생각에 대해 큰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고 檢査할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科學教育研究室長 이 범흥)

# 統計分析 過程에서 觀察되는 問題點

鄭 鐸 熙\*

## 〈I〉

교육 연구자들에게서 統計的 分析은 이제 아주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일각에서 통계 분석의 취약성과 기계적 과정을 지적하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많은 교육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자료를 통계적 분석 모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당연한 연구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경험이 적은 사람이나 통계적 소양이 낮은 사람의 경우 연구 문제에 적합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의 해석에서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단편적인 몇 가지 경우를 통하여 통계 분석 과정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자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統計分析 방법의 전제가 되는 研究設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오직 자료 분석 과정에서 목격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논의가 SPSS 활용과 관련되고 있다는 점과 논의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되지 못함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변인의 명칭도 꼭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II〉

### ● 잘못된 類目變因의 코딩

回歸分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性, 찬반,

수업 방법 등과 같은 類目變因을 일반적 방식으로(남자 1, 여자 2 등) 코딩을 할 경우, 1과 2라는 수치가 컴퓨터에서 연속 변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dummy variable로 바꾸어 코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回歸分析을 실시하는 교육 연구에서 유목 변인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따라서 質的 變因이 量的 變因으로 처리되어 얻어진 회귀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한편, dummy variable로 바꾸어 코딩을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 dummy variable이 별개의 변인으로 간주되어 서로 분리된 상태로 종속 변인의 설명(또는 예언) 변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는 결과 해석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유목에 각각의 종속 변인의 평균을 할당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권장되기도 한다. 좌우간 우리나라 교육 연구 중 回歸分析에서 유목 변인을 사용할 경우, 그 코딩 방식이 잘못되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연구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적합한 코딩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 算出과 읽기에서의 誤謬

가장 단순한 통계 처리는 빈도 분포표를 구하여 보는 것이다. 많은 교육 연구가 cross-break에 의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그런데, 빈도표에서 산출될 수 있는 %는 대개 총계를 기준으로 한 %, 횡렬 합계를 기준으로 한 %, 종렬 합

\* 教育資料部 教育情報研究室長

제를 기준으로 한 %가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를 기준으로 표를 읽어야 할 것인가? “백분율은 독립 변인으로부터 종속 변인으로 향하여 계산하라” 이것이 %를 계산하는 규칙이다. 모든 연구가 엄격한 의미의 獨立變因과 從屬變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변인을 다루는 연구에서 빈도표를 만들 때 대개는 分類變因과 被分類變因을 구분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현행 大入制度에 대한 교사들의 직급별 찬반을 묻는 질문 문항이 있다고 하고, 그 빈도표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구 분	반 대	찬 성	계
교 장	207	48	255
교 사	28	148	176
계	235	196	431

이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3 가지 백분율표가 얻어질 수 있다.

① 총계에 대한 %

구 분	반 대	찬 성	계
교 장	48	11	59
교 사	6	34	41
계	55	45	100

② 횡렬의 합계에 대한 %

구 분	반 대	찬 성	계
교 장	81	19	100
교 사	16	84	100
계			(431)

③ 종렬의 합계에 대한 %

구 분	반 대	찬 성	계
교 장	88	20	
교 사	12	80	
계	100	100	(431)

규칙대로라면 ②의 %에 기초하여 결과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③의 %를 기초로 하여 결과를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를 잘못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校長 중 81%가 찬성한다는

말과 찬성자 중 교장이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즉, 校長이나 教師이나 하는 직급이 현행 대입 제도에 대한 찬반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지 찬반의 반응이 교사의 직급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표 ③의 %를 기초로 職級과 贊反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왜곡된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 集團差異模型과 關係模型의 混沌

통계 분석 모형은 크게 집단 차이 모형과 관계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두 모형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발달 역사를 보면 구별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집단 차이 모형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를 推定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 모형은 연합의 정도를 통해서 변인간의 관계를 推定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차이 모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든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등의 연구 문제에 적합한 분석을 제공하여 준다. 그리고 관계 모형은 “~와 ~은 서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에 적합한 분석을 제공한다. 그런데, 어떤 교육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의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 있다. 즉, “知能이 學業成就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능과 학업 성취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빈도를 산출하여 본드든가 자능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지능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평균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량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마도 “지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능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 관계를 산출하여 봄으로써 보다 適合한 情報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속적 변인을 유목 변인으로 만들 때는 많은 정보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의 power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無分別한 變因의 分解

많은 교육 연구에서 연구 변인을 전체(whole)로 보지 않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변인을 그 구성 요소(components)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없으나 하는 문제는 다분히 科學·哲學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변인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成就動機와 學業成就度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성취 동기 검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고려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해하여 내고 학업 성취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해하여낸 후, 각 요소들 간의 상관 계수를 구해 보는 것은 탐색적 연구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일이다. 이 때는 이미 성취 동기로서의 변인과 학업 성취라는 변인은 공중 분해되고 만 것이 아닐까? 요소의 합은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 추정치 오류는 차이 비교 모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授業方法(2가지)과 學年(3개 학년)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할 때의 연구 등에서 그러하다. 이때 각 학년별로 2가지 수업 방법 간의 학업 성취도 평균차를 t검증에 의해 검증하고, 이 결과를 수업 방법 변인과 학년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 ● 有義度 檢證과 解析

유의도 검증과 관련해서는 유의도 수준의 결정, 결정된 유의도 검증의 해석,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의미의 혼동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에서 유의도 수준은 0.05, 또는 0.01로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엄밀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든지 개괄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 유의도 수준은 높아져도 무방할 것이다(물론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0.1의 수준도 간혹 채택되고 있다. 有義度水準을 연구자 자신이 심각하게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0.05, 또는 0.01로 정하는 것은 유의도 수준이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곤란한 현상은 대부분의 교육 연구에서 資料分析 이전에 유의도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 일단 일정한 유의도 수준이 결정되

었다고 할 때, 교육 연구자가 P값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각색이다. 대개 다음과 같은 해석의 誤謬가 쉽게 눈에 띈다. 첫째 P값을 집단 간의 차이가 우연에 기인될 확률로 해석하는 오류, 둘째, P값을 연구 가설이 얼마나 올바른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해석하는 오류, 셋째, P값을 동일한 연구를 반복할 경우,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게 될 확률로 해석하는 오류 등이 그것이다. P값이라는 것은 집단 간의 차이가 우연에 기인할 확률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 가설을 확증(conforming)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 결과의 발생 가능성도 아닌 것이다. 유의도 수준이란 단지 零假說(즉,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이 기각될 확률일 뿐이다. 한편, 유의도 검증이란 표집을 끌어낸 전집에서 표집에서 발견된 차이가 역시 발견될 가능성을 결정하고자 할 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두 변인 간의 상관 계수가 0.003이고, P는 0.001 수준에서 영가설(상관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할 때,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p < 0.001$ 로서 꽤 嚴密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r=0.003$ 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무슨 실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도 수준이 엄밀할수록 낮은 상관 계수일지라도 두 변인간의 관계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또, 흔히 범하는 오류는 두 상관 계수가 각각 산출되고, 둘다 P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때, 그 r 간의 차이도 같은 수준에서 유의할 것으로 유추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知能과 動機水準 간의 상관이 남자의 경우,  $r="0.5"$  ( $p < 0.05$ )이고, 여자의 경우  $r=0.4$  ( $p < 0.05$ )일 때, 두 상관 계수의 차이 0.1 ( $0.5-0.4$ )도 역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전집의 차이로 추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상관 계수 차이 검증 방법을 제대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 흔해빠진 因果的 解釋

엄격한 실험 연구에서는 차이 모형이든 관계 모형이든 인과적 해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왜냐 하면, 외생 변인이 무선회(randomization)

에 의해서 통제되며, 독립 변인이 직접적으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연구에서의 같은 비실험 연구에서는 인과적 해석이 곤란하다. 왜냐 하면, 외생 변인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립 변인의 직접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ex-post-facto 연구 설계를 통한 성취 동기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성취도 수준과 학업 성취도 수준 간의 상관 계수가  $r = .9$  라고 할 때, 흔히 성취 동기를 학업 성취도의 원인(cause)으로 받아들인다. 즉 “성취 동기는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이며 큰 영향을 미친다”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표집 중, 성취 동기가 높은 학생이 우연히도 지능이 모두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partial correlation 이나 semipartial correlation을 산출해 보는 것이 연구 문제에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들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F 검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실험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으로 고려한 이외의 다른 변인이 종속 변인에서의 차이 발생에 공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검증의 결과를 통해서 因果의 解釋을 하고자 하는 교육 연구가 많다. F 검증의 경우, 흔히 범하는 오류의 하나가 F 검증상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실시하게 되는 사후 검증 방법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cell 평균 간의 차이가 F값에 기여했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간혹 student t 검증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사후 검증에서의 t 검증과 student t 검증은 t값의 계산 과정과 해석 방법이 다르다. 또한, 사후검증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 相關計數의 調整缺如

측정이 신뢰롭지 못할 경우, 얻어진 상관 계수는 진상관 계수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명 연구에서는 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설명 연구에서 測定의 信賴度에 대한 보고가 결여된 채, 이런 조정이 생략되어 있다(SPSS에서는 이런 조정된 상관 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

리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 Missing data(M. D.) 處理의 소홀

M. D.는 연구자가 수집하고자 의도했던 정보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분석에서 이용될 수 없는 자료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coding이 된 경우이다. M. D.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불완전한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 SPSS에서는 M. D.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제외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제외 방법으로는 pair-wise 방법과 list-wise 방법이 option으로 주어지고 있다. pair-wise 방법은 해당되는 item에서만 그 사례를 제외하는 방법이고 list-wise 방법은 전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분석은 遂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표집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解決方法으로는 missing value로서 집단 평균을 부여하거나,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missing value를 추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나름대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M. D.를 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에서 상당수의 M. D.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를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 ● 프로그래머에게 委任된 方法選擇權

많은 전산 센터에서 SPSS나 SAS 등의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래머들은 研究方法이나 統計分析 등에 대해 적절한 소양을 缺하고 있다. 단지 명령문만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통계 패키지에서 어떤 특정 방법이 지정되지 않는 한, default라 하여 프로그램이 임의로 선택하는 보편적인 분석 방법이 선택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SPSS 등의 매뉴얼을 잘 읽어 보고 자신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지정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선택권을 프로그래머에게 위임한다. 예로서 변량 분석의 경우를 살펴보자. 많은 연구자가 SPSS에 있는 변량 분석 패키지를 이용해서 차검증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SPSS 변량 분석 패키

지에는 3가지 변량 분석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어느 모형이 적절한지는 연구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에게 그를 위임함으로써 default에 의한 변량 분석 모형이 선택된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多重回歸分析 패키지 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PSS에는 일반적 모형, 위계적 모형, 단계적 모형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가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선택된다. 대개 일반적 모형이 선택된다. 그러나, 예언을 위해서나 說明力의 파악을 위해서도 이는 잘못이다. 좀더 사려 깊은 연구자는 대개 단계적 모형을 요구하는데 많은 경우, 그 연구자의 관심이 예언이 아닌 설명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단계적 모형은 예언가가 높은 변인 선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모르나 설명력의 분석(예: 회로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치 못하다. 좀더 각방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인 분석의 경우에도 요인 추출이 아이젠벨류의 지정이나 요인수의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연구자가 이런 값들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이젠벨류 1까지 요인이 추출된다. 대개는 교육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요인이 추출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요인의 수가 사전에 이론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또한 아이젠벨류 값을 지정하는 것이 有利할 경우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아이젠벨류는 곧 변량이기 때문이다. 아이젠벨류 1이 될 때까지 요인을 추출한다는 것은 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량이 1이 될 때까지 요인을 추출한다는 것이 된다. 자신의 연구에서 아이젠벨류 1이 차지하는 의미를 좀더 考慮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테이션 방법의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直角的 回轉方式을 채택할 것인지 斜角的 回轉方式을 채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각 방식별로도 또 몇 가지 하위 방식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이를 연구자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default에 의해서 직각 회전 방식의 하나인 varimax 방식이 선택된다. 그러나, 研究變因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예견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교육 연구에서 여러 가지 결정(지정) 사항이 연구자가 아닌 프

로그래머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 ● 多重回歸分析의 오용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변인들이 동원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효과 분석 연구는 실험적 방법에 의해서 접근되기는 곤란한 것이다. 왜냐 하면,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인을 한 실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조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작될 수 없는 변인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능, 적성, 동기, 가정 환경, 사회 계층, 교사 인성, 학생 인성, 교수 방법 등은 조작되기 어려우며, 이미 주어진 거기에 있는 그런 변인들이다. 따라서, 교육 연구는 많은 경우, 비실험적, 사후적 연구(nonexperimental or ex-post facto research)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실험 연구에서와는 달리, 교육 효과 분석 방법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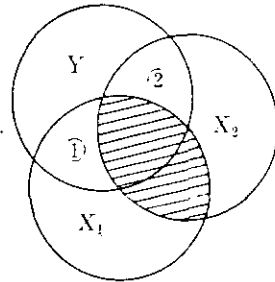
교육 효과 분석에서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중다 회귀 분석 방법이다. 중다 회귀 분석은 우리나라 교육 연구에서 豫言等式을 얻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각 독립 변인들의 종속 변인, 또는 준거 변인 변량의 相對的 說明力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특히, 독립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에서 각 독립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하는 데 중다 회귀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목적이 예언에 있든, 설명에 있든,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R 또는 R<sup>2</sup>이다. 만약 R과 R<sup>2</sup>이 작다면 선정된 변인의 연구 변인으로서의 실제적 가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상관 계수 크기를 해석할 때 상황에 따른 특수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는 0.20~0.3의 계수는 약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보다 낮은 상관은 연구에서 실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0.5전 후의 상관에 의해서는 거칠기는 하나, 개략적인 관계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0.60~0.80의 상관에 의해서는 비교적 충분한 관계

추정이 가능하고 0.80 이상의 상관은 매우 높은 관계를 뜻한다. 이런 해석은  $r$ 이나  $R$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예언 연구에서  $R$ 이 0.60 이하를 보고하는데 이때는 연구의 전반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귀 분석 방법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종속 변인 변량의 설명력이 높은 변인을 선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 변인을 회귀 등식에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Forward Solution(F. S.), Backward Solution(B. S.), Stepwise Solution(S. S.) 등이 이용되고 있다. SPSS에서는 F. S.가 통상 이용되고 있으며, SPSS 7-9에서 S. S.가 가능하다. SPSS 7-9를 이용하지 않고 SPSS를 이용하고도 S. S.를 적용했다는 보고를 흔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SPSS에서는 F. S.만이 가능하다. manual에서 stepwise(Forward solution)만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stepwise solution을 이용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허위 보고인 동시에 무분별한 통계 분석의 선택 결과인 것이다. SPSS에 의해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도할 때 분석을 끝내는 준거로는 F값, 등식에 들어올 독립 변인의 수, T값이 이용되고 있다. 연구자가 이들에 대한 특정한 값을 지정하지 않는 한, 독립 변인의 수는 80개까지 처리된 후, 자동적으로 분석이 끝나게 되고 F값은 0.01, T값은 0.001에서 분석이 멈추게 되어 있다.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default 값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육 연구(필자의 관찰에 한함)가 default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변인 선정에 있어서 통계적인 의미보다도 실제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표집이 크다면 약간의 F값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변인이 실제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방법은 예언 변인을 선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S. S.는 예언 변인을 選定하는 데 있어서 F. S.나 B. S.보다 그 power가 높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독립 변인의 상대적 공헌도를 분석하는 데는 適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독립 변인 간의 상관성 때문이다. 만약 독립

변인 간에 상관이 전혀 없을 때에는 어떤 변인에 기인하는 종속 변인 변량 설명비는 그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zero-order correlation을 자승한 것의 합과 같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beta$  (beta)는 zero-order correlation과 같게 되고  $\beta^2$ 은 zero-order correlation의 자승과 같게 된다. 그러나 독립 변인간에 상관이 있을 때에는 상기의 해석이 적용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각 독립 변인의 상대적 공헌도를 종래의 종다 회귀 분석 방법에 의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전통적 방법 중에서 가장 권장할 만한 S. S.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 S. (더구나 대개는 SPSS의 F. S.를 S. S.로 보고하고 있음)에 의해서 독립 변인의 종속 변인 변량의 상대적 설명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S. S.의 결과를 상대적 설명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통적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commonality analysis, 또는 element analysis이다. 이 방법에서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간의 상관 관계는 고유 설명 변량(unique variance)과 공통 설명 변량(common variance)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음 그림에서 밀줄친 부분이 공통 설명 변량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①은  $X_1$ 의 고유 설명 변량 부분이 되고 ②는  $X_2$ 의 고유 설명 변량 부분이 된다. 따라서  $X_1$ 과  $X_2$ 의 상대적 설명력은 ①과 ②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공통 설명 변량이  $X_1$ 과  $X_2$  중 어느 변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즉, 만약 공통 설명 변량이  $X_1$ 에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X_2$ 가  $X_1$ 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적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X_1$ 이  $X_2$ 보다 상대적 설명력이 높게 된다. 물론, 그 역도



역시 성립된다. 이 분석 방법은 전통적인 F..S, B.S., S.S.보다 상대적 설명력의 이해에 보다 나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 연구에서 commonality analysis를 적용한 연구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결국 무슨 변인이 회귀 등식에 먼저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변인을 회귀 등식에 도입하는 순서가 중요하게 된다. 이 순서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변인이 회귀 등식에 들어오는 순서에 대한 모델을 형성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려는 접근이 최근에 우리 나라 교육 연구에서 가끔 나타나는 回路分析(path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변인들 간의 가정된 연결(linkage)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필자는 이 방법이 교육 효과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공헌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종전의 여러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연구에서 이 분석을 적용할 때 그에 대한 탐색이 연구 방법 항목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채, 그리고 모형의 상세화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어 불안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몇 가지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회로 분석 모형이 편협하게 이용되고 있는 인상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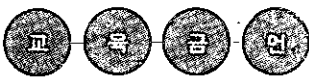
### 〈Ⅲ〉

지금까지 필자가 교육 연구 자료 처리 과정에서 흔히 목격할 경험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통계

분석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초보자뿐만 아니라 중견 연구자에게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연구의 목적, 연구의 설계, 연구의 방법 등과 관련시켜 볼 때는 여기서 지적된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점이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며, 그런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른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낀다. —————◆

### 參 考 文 獻

- C. H. Hall and N. H. Nie(1981). *SPSS update 7-9*.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Elazar J. Pedhazur(1975). Analytic methods in studies of educational effects, In Fred M. Kerlinger(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3. 243-286.
- Graham kalton(1983). *Compensating for Missing Survey Data*.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 Fred N. kerlinger(1973).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New York: Holt. Reinehart and Wiston. Inc.
- Fred N. Kerlinger(1973).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 Research*. New York: Holt. Reinehart and Wiston. Inc..
- Noh, Nine, et al(2nd ed. 1975). *SP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正直과 德의 심과 뿌리는 훌륭한 敎育에 있다.

—플루타르쿠스 「도덕론」에서—

The very spring and root of honesty and virtue lie in good education

—morals, of the train of children—

# 遠隔教育에 있어 비디오·카세트 活用に 관한 調査研究

金 載 姬\*

## 1. 序 論

### 1. 研究의 意義 및 目的

韓國放送通信大學은 1985년 3월, KBS의 施設 및 要員의 支援을 받아 TV를 통해 일부 과목을 放送하였으며, 同年 8월부터 自體의 施設 및 要員에 의하여 비디오·카세트를 制作, 普及하고 있다. 비디오·카세트가 教育媒體로 利用되는 경우 그것은 統制(control), 反復 및 相互作用(interaction)의 機會提供이라는 役割과 機能을 하기 때문에 教授-學習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는 데는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現在 우리 나라의 국민 경제 수준이나 생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비디오·카세트의 活用은 결코 기대 이상의 效果를 가져 오리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아직까지 VTR(video-tape-Recorder)은 가격이 비싸 大衆化되어 있지 못하여 特殊層의 奢侈品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낮은 VTR의 普及率을 고려하여 韓國放送通信大學에서는 全國에 分散되어 있는 10개 地域學習館에서 集團視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個別的으로 비디오·카세트를 利用할 수 없어 統制 및 反復을 통한 學習效果의 증진을 기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비디오·카세트는 教育的인 潛在力을 많이 지니고 있는 媒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VTR의 저조한 普及率 이외에도 비디오·카세트의 教育的 活用に 관한 研究·開發 및 經驗의 不足 등의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

는 韓國放送通信大學에서 비디오·카세트를 利用하고 있는 實態를 조사함과 아울러 提起되고 있는 諸般 問題點을 浮출해 내어 效率的인 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디오·카세트의 教育的 活用に 대한 研究가 全無한 시점에서 이 研究는 많은 制限點을 갖는다. 그러나, 向後 보나온 調査研究의 礎石이 되고자 하는데 그 意義와 目的을 둔다.

### 2. 研究問題

以上の 研究目的을 遂行하기 위해서 다루게 될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 1) 韓國放送通信大學의 VTR 普及率 및 個別的 活用の 實態는 어떠한가?
- 2) 韓國放送通信大學의 VTR의 集團活用實態 및 그 問題點은 무엇인가?
- 3) 集團視聽의 中心地로서 地域學習館의 現況 및 問題點은 무엇인가?
- 4) 비디오·카세트 學習의 實施에 대한 受容者의 態度 및 反應은 어떠한가?
- 5) 비디오·카세트 學習에 있어서 教授-學生間의 意思疏通(Communication)의 通路 및 頻度는 어떠한가?

### 3. 研究의 制限點

- 1) 이 研究의 調査對象을 韓國放送通信大學 5學年 在學生에 局限하였기 때문에 調査結果를 一般化시키기에는 다소 問題가 있다.
- 2) 「교양 영어 I」에 의한 비디오·카세트의 研究結果를 一般化시키기에는 다소 問題가 있다.

\* 韓國放送通信大學 教授

## II. 關係文獻研究

비디오·카세트는比較的 最近에 導入된 教育 媒體로 TV 放送을 母體로 하고 있다. 비디오·카세트는 그 나름의 독특한 機能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TV 放送과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共有點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비디오·카세트의 效果 및 活用은 TV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 1) TV(비디오·카세트) 效果

TV의 教育的 利用에 대한 研究가 시작된 1950년대 이래, TV와 傳統的 授業 간의 效果比較는 활발하게 遂行되어 왔다. 이와 같은 效果比較는 다양한 年齡과 광범위한 教科內容에 걸쳐 行해졌다.

Chu와 Schramm<sup>1)</sup>은 1966년까지 TV와 傳統的 授業과의 效果를 比較한 421개의 研究를 종합한 結果, 그 중 308개는 둘 사이의 意味 있는 차이가 없었고, 63은 TV 授業이, 50은 傳統的 授業이 效果的인 것으로 分析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結果는 250개의 實驗研究를 比較한 stickell<sup>2)</sup>의 경우도, 192개의 研究結果를 比較한 Dubin과 Hedley<sup>3)</sup>의 경우에도 TV 授業과 傳統的 授業의 效果比較에는 意味 있는 차이가 없음을 示唆했다.

한편, Chu와 Schramm<sup>4)</sup>은 421개의 研究比較結果, 두 가지의 提示方法이 年齡과 關係가

있음을 발표했다. 즉 TV 授業은 국민 학교, 중학교의 경우가 대학 수준의 경우보다 더 效果的 이었음을 밝혔다. 이는 대학 수준에서 다루는 복잡한 講義內容이 TV 授業에는 적절치 못하며, 어린이들은 TV와 친밀하게 자라왔으므로 TV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TV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傳統的 授業보다 TV 授業을 더 先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daway<sup>5)</sup>는 국민 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TV를 先好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Curry<sup>6)</sup>도 6학년, 7학년, 9학년 順으로 TV 授業을 先好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arpenter와 Greenhill<sup>7)</sup>의 研究는 傳統的 授業을 TV 授業에 비해 더 先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hramm<sup>8)</sup>은 TV가 다양한 교과목에 걸쳐 잘 가르칠 수 있으나 인문 계통보다는 자연 과학 계통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했고, 그 후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의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TV가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교과목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2) TV(비디오·카세트) 活用

TV는 個別學習뿐 아니라, 100명 이상 대규모의 授業을 위해서도 利用된다. 研究結果, 대학 수준의 경우, 視聽集團의 크기와 學習效果 사이에 意味 있는 차이를 發見하지 못하고 있다

- 1) Chu, G.C. and Schramm, W. *Learning from Television: What the Research Says*, (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Broadcasters, Washington D. C. 1967) p. 6.
- 2) Stickell, D.W. *A critical review of the methodology and results of research comparing televised and face-to-face instruction*. in Schramm, W. *Big media little media*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7) p. 27.
- 3) Dubin, R. and Hedley, R. A. *The medium may be related to the message: College Instruction by TV*. (Eugene, Ore: University of Oregon Press 1969) p. 115.
- 4) Chu, G.C. and Schramm, W. (1967), pp. 6-8.
- 5) Hardaway, C.W., Beymer, C.L., and Engbretson, W.E. *A study of attitudinal changes of teachers and pupils of various groups toward educational television*. in Chu, G.C. and Schramm, W. (1967), p. 62.
- 6) Curry, R.P. *Report of three experiments in the use of television in instruction*. (Cincinnati: Cincinnati public School, 1959). p. 72.
- 7) Carpenter, C.R., and Greenhill, L.P. *Instructional television research*. Report No.2.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58).
- 8) Schramm, W. "Learning from instructional televis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62, 32, pp. 156-167.

(Carpenter and Greenhill(1953)<sup>9</sup>, Driscoll(1959)<sup>10</sup>).

視聽角度, 스크린까지의距離와學習效果 사이에는心理學(Carpenter and Greenhill, 1958)<sup>11</sup>이나物理學(Tendam, 1967)<sup>12</sup>의경우와같이知覺(Perception)이크게관계없는科目에서는意味있는차이를발견하지못했으나,像의知覺(image perception)이學習의중요한部分일때(Ash and Jaspens(1953)<sup>13</sup>, Kasten(1967)<sup>14</sup>, Hayman(1963)<sup>15</sup>)는視聽角度와스크린까지의距離가學習效果和관련이있음을알아냈다. 가장적절한視聽角度는TV화면을중심축으로40°이내의부채꼴(Ash and Jaspens은60°라고報告함)이며, 스크린까지의距離는화면크기의12배이내였다. 그러나온도, 습도, 통풍등의物理的環境에관한研究는體系의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 III. 研究方法

#### 1. 研究設計

이研究는遠隔教育에서비디오·카세트의活用實態를調査하여問題點을抽出하고이에대한要求를分析함으로써, 비디오·카세트의活用に대한방향을設定하기위해設計되었다. 韓國放送通信大學에서비디오·카세트로制作된60分단위, 총12篇의「교양영어I」시리즈를일정기간視聽케한후, 이에관한受容者の全般的인意見을設問紙를통해수렴, 分析하였다.

#### 2. 調査對象

이研究는비디오·카세트「교양영어I」의目標對象者(target audience)인韓國放送通信大

學5學年在學生15,452명을母集團으로하고, 이중10%에해당하는1,545명을標本抽出하여調査對象으로삼았다. 標集方法으로는大學當局에의해컴퓨터로無選化(randomize)하여274개의교실에배치된母集團중27개의교실을無作爲로抽出하였다.

#### 3. 調査實施 및 資料處理

「韓國放送通信大學在學生의비디오·카세트利用實態調査」質問紙는1985년10월6일(卒業學力考查日)에回收우표를同封하여직접配布되었으며, 回收率을높이기위하여매주발간되는「放送通信大學報」에1회에걸쳐回收要請記事를실었다. 質問紙는총1,545部配布하였으며, 289部(약18.7%)를回收하였다. 그중分析가능한284매를電算화된統計分析프로그램인SPSS를이용하여分析하였다.

### IV. 研究結果 및 解釋

#### 1. 人口·統計學的 特性

이研究對象者의一般的特性은다음과같다. 먼저, 性別分布를보면남자가73.9%, 여자가26.1%로, 남자가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

年齡別로는20~30세가31.3%로가장 많았고, 그다음이40세이상(25.7%), 30~35세미만(22.9%), 35~40세미만(13.7%)의順으로나타났으며25세미만은6.3%로가장 적었다.

職業別로는專門·技術職이48.6%, 行政·管理職이21.8%, 販賣·서비스職이16.5%, 나머지는기타로전체의85%이상이職業을가지고있었다.

가정의月收入은20만원미만이8.8%, 20~

9) Carpenter, C. R., and Greenhill, L. P. (1958).

10) Driscoll, J. P. "Can TV improve college teaching?" *NAEB Journal* 1959, 18, pp. 16-20.

11) Carpenter, C. R., and Greenhill, L. P. (1958).

12) Tendam, D. J. *Preparation and evaluation in the use of a series of brief films of selected demonstrations from the introductory college physics course.* in Chu, G. C. and Schramm, W. (1967), p. 39.

13) Ash, P., and Jaspens N. *Optimum physical viewing conditions for a rear project daylight screen.* Instructional Film Research Reports. (Port Washington, N. Y., 1953).

14) Kasten, D. F. *A study of five factors influencing the legibility of televised characters.* in Chu, G. C. and Schramm, W. (1967), p. 39.

15) Hayman, J. L., Jr. "Viewer location and learning in instructional television", *Audio-Visual Communication Review*, 1963. 11, pp. 27-31.

35만원 미만 32.4%, 35~50만원 미만 40.1%, 50~70만원 미만 15.5%, 70만원 이상 3.2%로 나누어진다.

專攻學科別로는 行政學科 30.3%, 經營學科 18.7%, 初等教育學科 22.5%, 農學科 12.7%, 家政學科 15.8%로 構成되어 있었다.

居住地域別 分布는 特別市(서울)가 26.5%, 直轄市(부산, 대구, 인천)가 16.5%, 그 밖의 中小都市가 32.0%, 郡이 25.0%였다.

## 2. VTR의 普及 및 利用

TV 受像機는 全體의 대부분인 98.2%가 所有하고 있으며, 이 중 칼라 82.4%, 흑백 18.6%였다. VTR은 所有하지 않은 경우는 93.7%로 전체의 6.3%만이 VTR을 所有해 극히 낮은 普及率을 보였다.

VTR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은 18명(6.3%)이었는데, 이 중 13명은 VTR을 學習을 위해 전혀 利用하고 있지 않았다. VTR을 學習에 사용하지 않는 理由로는 「地域學習館의 利用을 先好하기 때문」, 「프로그램을 複寫할 수 없기 때문」 등을 들었다. 즉 극소수의 학생만이 VTR을 所有, 活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複寫 및 貸與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VTR을 所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學習을 위해 제대로 活用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VTR은 個別的인 視聽뿐 아니라 4~6명, 혹은 그 이상이 小集團을 이루어 視聽하는 樣相도 보이고 있었으며, 한 프로그램당 平均 2회를 視聽하고 있었다. 또한 자세한 觀察이나 노트 정리를 위해 프로그램의 速度를 調節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보고되고 있다.

### 3) VTR의 購買意思

VTR의 購買意思를 가진 應答者는 51.9%, 그렇지 않은 경우는 44.0%였다. 그러나, 비디오·카세트를 學習 및 評價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主教材로 使用할 경우에는 購買意思가 78.8%로, 25%정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購買意思가 없는 가장 큰 理由는 「VTR의 가격이 비싸다」(65.3%)를 들었다. VTR의

가격이 「10~20만원 정도」면 購入하겠다는 경우가 30%로 가장 많은 分布를 보였다. 즉, VTR의 普及이 普遍化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價格이 상당한 수준까지 저렴해져야 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 4. 視聽行爲

### 1) 地域學習館利用의 前提條件

#### (1) 地域學習館까지의 所要時間

韓國放送通信大學의 비디오·카세트 學習은 地域學習館을 中心으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地域學習館의 訪問이 비디오 講義·視聽의 前提가 된다.

학생들은 地域學習館까지 그들이 利用하는 交通手段으로 얼마 정도의 時間을 所要하는지 아래 표에 나타냈다.

地域學習館까지의 所要時間

항 목	% (사례수)
30분 이내	26.0
1시간 이내	31.0
1시간 30분 이내	15.7
2시간 이내	9.3
2시간 이상	18.0
계	100 (281)

「1시간 이내」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 이내」(26.0%), 「2시간 이상」(18.0%), 「1시간 30분 이내」(15.7%), 「2시간 이내」(9.3%)順으로 나타났다. 즉 1時間 이내를 要하는 경우가 57.0%, 그 나머지가 1時間 이상을 必要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地域學習館을 訪問하기 위하여 最小限 往復 3時間을 所要해야 하는 경우가 43.0%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비디오 講義實施에 대한 認知與否

비디오·카세트 講義實施에 대하여 認知하고 있는 경우는 85.9%였으며, 나머지 14.1%는 비디오 講義를 實施하고 있다는 事實조차 모르고 있었다. 비디오 講義實施에 대한 사실은 「放送通信大學報를 通하여」(68.5%), 「地域學習館을 通하여」(18.4%), 「學友를 通하여」(13.1%) 알고 있었다. 認知經路로 學報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理由로는 이것이 全學生을 對象으로 한 唯一한 傳達媒體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地域學習館의 利用

(1) 地域學習館의 利用頻度

비디오 講義를 위해 地域學習館을 利用한 頻도는 다음과 같다.

地域學習館을 利用한 頻도는 「1~3회」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6회」(12.3%), 「10회 이상」(8.3%), 「7~9회」(2.6%) 順이었다. 한편 전혀 利用하지 않은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57.7%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비디오 講義 實施에 대해 알고 있으나 利用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 학습관의 利用頻度

항 목	% (사례수)
10회 이상	8.5
7~9회	2.5
4~6회	12.3
1~3회	19.0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57.7
계	100 (284)

43.6%에 달함을 알 수 있다.

地域學習館의 利用頻도는 訪問所要時間과 밀접한 關係가 있었다.

訪問所要時間別 地域學習館의 利用頻度

방문 빈도 \ 소요 시간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30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7회 이상	20.5(15)	12.6(11)	9.1(4)	0	0
4~6회	21.9(16)	10.3(9)	15.9(7)	3.8(1)	5.9(3)
1~3회	20.5(15)	28.7(25)	9.1(4)	19.2(5)	9.8(5)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37.0(27)	48.3(42)	65.9(29)	76.9(20)	84.3(43)
계	100(73)	100(87)	100(44)	100(26)	100(51)

$\chi^2=48.03, df=12, p^{**}<0.001$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 학습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2시간 이상」이 84.3%로 가장 높았으며, 「30분 이내」는 37.0%로 가장 낮았다. 즉 지역 학습관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용하지 않은 경향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7회 이상」 또는 「4~6회」의 이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소요 시간에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30분 이내」

는 20.5%나 되었으며,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도 1시간 30분 이상의 소요에서는 매우 적은 반응을 보였으나, 그 이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학습관까지의 소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빈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居住地域과 地域學習館의 利用頻度와의 關係는 아래 표와 같다.

居住地域別 地域學習館의 利用頻度

이용 빈도 \ 거주 지역	대 도시	중 소 도시	소 도시
7회 이상	19.3(23)	13.6(6)	2.8(2)
4~6회	15.2(18)	15.4(14)	4.2(3)
1~3회	19.3(23)	29.7(27)	5.6(4)
전혀 이용하지 않음	46.2(55)	48.4(44)	87.3(62)
계	100%(119)	100%(91)	100%(71)

$\chi^2=86.08, df=6, p^{**}<0.001$

地域學習館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은 大都市(46.2%)나 中小都市(48.4%)보다 小都市(87.3%)에서 많이 나타났다. 1회 이상 利用을 한 경

우도 小都市(5.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反應을 보이는 반면, 大都市(19.3%)나 中小都市(29.7%)에서는 利用頻도가 높았다. 즉 大都市

에 居住할수록 地域學習館의 利用頻度가 높아지고, 이용하지 않는 率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나, 中小都市 혹은 小都市로 갈수록 利用도가 낮아지고, 利用하지 않는 率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地域學習館이 中小都市 혹은 小都市에서는 쉽게 利用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2) 地域學習館 不利用의 理由

비디오 講義를 위해 地域學習館을 利用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地域學習館不利用의 理由

항 목	% (사례수)
거리가 멀어서	35.8
시청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	25.3
시간표를 몰라서	6.2
너무 바빠서	27.2
가정의 녹화기 이용	1.9
별도움이 되지 않아서	3.6
계	100% (162)

地域學習館까지의 「거리가 멀어서」가 35.8%로 가장 많았고 「너무 바빠서」(27.2%), 「視聽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25.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시간표를 몰라서」(6.2%), 「별도움이 되지 않아서」(3.6%), 「가정의 녹화기를 이용」(1.9%)는 상대적으로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結果를 토대로 할 때, 地域學習館을 利用하지 않은 根本的인 理由로는 學習館이 자신의 居住地 혹은 직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學習館이 현재의 숫자보다 확산·분포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居住地 혹은 직장에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學習館을 利用하는 頻도와 可能性도 그 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3) 視聽頻度

비디오·카세트는 TV 放送의 一回性的 弱點을 극복할 수 있는 潛在力을 지닌 媒體이다. 즉 反復視聽이 可能하다.

「1회分的 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視聽하느냐」는 質問에 대하여 「1회視聽」이 63.1%로 가장 많았고, 「2회視聽」이 27.0%, 「3회視聽」(9.9%)였으며, 「4회視聽」은 한 번도 없었다. 즉 1회

정도의 反復視聽을 하는 경우가 36.9%이며, 나머지는 反復 없이 1회만 視聽하여 한 프로그램當 平均 1.4회의 視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視聽篇數

地域學習館의 1회 訪問時 視聽하는 프로그램의 篇數로는 「2篇視聽」이 37.7%로 가장 많았고, 「1篇視聽」(27.2%), 「3篇視聽」(25.5%)가 비슷한 分布를 보였고, 「4篇視聽」은 9.6%였다. 즉 地域學習館의 1회 訪問時 平均 2篇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視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研究의 對象이 되는 「교양 영어 I」은 1篇當 60分의 視聽時間을 要하므로 地域學習館의 1회 訪問에 最小限 2時間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視聽方法

비디오·카세트는 反復과 統制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어 TV 放送과 다른 독특한 視聽方法을 가질 수 있다.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反復視聽으로, 한 프로그램當 平均 1.4회를 視聽하고 있음을 記述한 바와 같다. 한편 「反復視聽의 要求與否」에 대한 質問에 對해 「있다」는 47%였으며, 이 중 73.2%는 反復視聽이 可能했음을 밝혔다. 集團視聽의 경우, 개개의 要求에 다 應할 수 없다는 限界點을 考慮해 본다면, 73.2%는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VTR이 지니고 있는 統制의 기능은 프로그램의 速度調節을 可能케 하여 學習進度와 必要에 따라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速度調節의 與否」에 대한 질문에 經驗이 있는 경우는 6.1%, 經驗이 없는 경우는 93.9%에 달했다. 이는 集團視聽으로 인해 個人的 사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速度調節이 容易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6. 視聽環境

教授-學習過程에서 적절한 環境的 條件을 갖추어야 함은 認知的인 面뿐 아니라 情意的인 面에서도 重要하다.

韓國放送通信大學의 비디오 講義가 實施되고 있는 地域學習館의 視聽環境은 교실의 크기, 좌

석수, 照明, 通風, TV 모니터의 設置, 騒音 및 기타 附屬施設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視聽環境

항 목	%	%	%
	양 호	보 통	불 량
교실의 크기	47.0	36.5	16.5
교실의 좌석수	38.3	33.9	27.8
교실의 조명	43.5	35.6	20.9
교실의 통풍	36.5	46.0	16.5
TV 모니터의 설치	41.6	46.9	11.5
주위의 소음	27.0	47.0	26.0
계	100(%)115		

TV 모니터가 設置되어 있는 교실의 環境에 대한 質問에 대체적으로 滿足하고 있으나, 「좌석수」(27.8%), 「교실의 照明」(20.9%), 「騒音」(26.0%)에 대해서 不滿足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의 크기」에 대해 대체로 滿足하나(83.5%), 너무 작아 視聽人員을 다 收容할 수 없거나, 너무 커 안정된 분위기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실의 좌석수」는 72.2%가 滿足하나 좌석의 부족으로 서서 視聽해야 하는 불편함과 좌석 배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교실의 照明」에 대해서는 79.1%가 滿足하나 너무 어둡거나 혹은 직사 광선으로 인해 너무 밝아 學習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있어 커튼, blinder 시설, 혹은 dimmer의 設置가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교실의 通風」은 82.5%가 滿足하나 에어컨, 선풍기, 煤煙을 제거할 空氣淨化施設이 必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TV 모니터의 設置」에 대해서는 88.5%가 滿足하나 모니터의 位置가 너무 높거나 낮아 長時間의 視聽에 不便함이 호소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TV 視聽을 위한

정해진 교실이 없는 不便함, TV 모니터의 臺數의 不足도 지적되었다. 「주위의 騒音」에 대하여 74%가 滿足하나, 나머지 26%는 소란하므로 授業妨害를 받았다고 意見を 開陳하였다. 비디오 講義는 8,9월에 實施되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연 창문을 통해 騒音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나, 根本적으로 카펫, 防音 tite, 혹은 2층 창문 등의 防音施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타 環境」으로는 教室構造의 개량뿐 아니라 地域學習館의 교실이 일반 講義室과 같은 분위기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휴게실, 수도 시설 및 주차장 施設을 要求한 경우도 있었다.

7. 視聽反應

1) 學習效果

이 研究의 對象이 되고 있는 비디오 「교양 영어 I」은 卒業學力考査를 겨냥한 特講이었다.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視聽한 후, 卒業學力考査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反應을 알아본 結果, 「어느 정도의 도움」(46.5%)와 「매우 도움」(44.7%)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8.8%를 차지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디오 講義에 인한 考査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중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4.7%로 비디오 講義 「교양 영어 I」은 成功的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學習效果는 비디오 講義를 視聽하기 위해 地域學習館을 利用한 頻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에서는 「1~3회」가 15.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6회 이하(35.3%)보다 7회 이상(72.4%)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즉 卒業學力考査에 도움

地域學習館 利用頻度別 學習效果

지역 학습관 이용	7 회 이상	4~6 회	1~3 회
졸업 교사의 도움			
매우 도움이 되었다.	72.4(21)	35.3(12)	35.3(18)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24.1 (7)	61.8(21)	49.0(2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 (1)	2.9 (1)	15.7 (8)
계	100 (29)	100 (34)	100 (51)

$\chi^2=16.59, df=4, p<01$

$n=114$



비디오·카세트 講義에 대한 Image 評價

항 목	많이 있다 (%)	약간 있다 (%)	중간 정도 (%)	거의 없다 (%)	전혀 없다 (%)	계
자 부 심	30.0	33.6	30.0	5.5	0.9	100(110)
관 심	52.7	33.7	12.7	0.9	0	100(110)
소 속 감	42.7	35.5	18.2	3.6	0	100(110)
학 습 의 욕	63.6	24.6	10.9	0.9	0	100(110)
친 근 감	38.2	41.8	17.3	1.8	0.9	100(110)
만 족 감	27.2	38.2	28.2	6.4	0	100(110)
자 신 감	30.0	42.7	23.6	3.7	0	100(110)
신 퇴 감	34.6	43.6	20.9	0.9	0	100(110)

이 되려면 最小限 4회以上 地域學習館을 訪問해야 하므로 平均 8篇以上의 프로그램을 視聽해야 하며, 7회以上 地域學習館을 訪問한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큰 效果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2) Image 評價

비디오 講義에 대한 反應을 5點尺度(5 point-scale)로 알아 보았다.

8개의 所感中 80% 이상의 肯定的 反應을 보인 것은 學習意欲, 關心, 親近感이었고, 所屬感, 信賴感, 自信感은 70% 이상의 肯定的 反應을, 自負心과 滿足度는 60% 정도의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 不滿足한 反應으로는 自負心과 滿足도가 6.4%로 가장 높았고, 自信感, 所屬感, 親近感이 2.5~3.5% 정도의 反應을, 信賴感和 關心, 學習意欲이 0.9%로 가장 낮았다. 즉, 비디오 講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學習意欲과 關心은 높았으나, 自負心과 滿足은 상대적으로 낮아 학생들의 기대를 充分히 채워 주지 못함을 示唆했다.

3) 問議

遠隔教育의 特徵中 하나는 教師와 學生이 隔離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遠隔教育機關에서는 教師와 學生 사이의 雙方通行의 通路를 提供해 줄 必要가 있다.

비디오 講義를 視聽한 후, 學習內容에 대해 擔當教授에게 面談, 전화 혹은 著신으로 反應해 본 經驗을 質問해 본 結果, 어떠한 反應도 해 본 經驗이 없는 경우가 9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7%만이 「1~2회」에 걸쳐 問議해 보았다. 視聽內容에 대해 反應이 없는 경우는 學習의 內容을 완전히 理解했거나, 아니면 問議를 위한 制度的인 通路를 갖지 못할 경우 중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사실상 全學生이 視聽學習의 內容을 다 理解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問議를 위한 通路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機能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은 提供되는 프로그램에 受動的으로 參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制度的인 問議 專擔機構의 設置 희망 장소」에 대한 質問에 「地域學習館」에 設置를 희망하는 경우가 80.6%로 대다수였으며, 「대학 본부」(15.9%), 「협력 대학」(3.5%)順이었다. 이는 地域學習館이 全國에 散在해 있어 가장 쉽게 利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력 대학에 비하여 所屬感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諸般意見

프로그램에 관한 諸般意見中 수업 진행에 관한 意見은 7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프로그램의 制作(12.6%), 과목 선정(10.5%) 및 보조 자료의 제공(5.3%)順이었다.

授業進行에 대한 肯定的 意見은 31.9%로 教授의 철저한 準備와 능숙한 授業進行을 들고 있으며, 否定的 意見은 68.1%로 授業進行의 速度가 빠름을 지적했다.

프로그램 制作에 관한 意見中 肯定的 反應은 33.3%로, 프로그램 中間의 휴식 음악의 插入, 연습 문제와 학생 參與時間의 插入 등을 들었다. 否定的 意見은 66.7%로 映像美를 살려 興味있게 制作할 것, 카메라의 Shot에 注重을 기할 것 등을 지적했다.

科目選定은 다른 科目에도 확대할 것과 體系的인 選定을 要求했다.

한편, 비디오 講義를 위해 적절한 補助資料를

프로그램의 諸般意見

항 목	% (사례수)	세 부 의 견
과목 선정	10.5	다른 과목의 경우도 비디오 카세트화, 체계적인 과목 선정
강의 진행 방법	71.6	긍정적 반응(31.9)   철저한 사전 준비, 능숙한 수업 진행
		부정적 반응(68.1)   진행 속도가 빠름, 내용이 난이, 내용의 깊이 결여
프로그램 제작	12.6	긍정적 반응(33.3)   휴식 시간 삽입, 연습 문제 및 참여 프로그램 삽입
		부정적 반응(66.7)   영상의 특성을 못살림, 흥미가 없다, 불필요한 카메라 shot 남발
보조 자료	5.3	보충 교재 및 print 물 제공, 지도 교수 혹은 tutor 배정
계	100(95)	

원했으며 專擔教授 및 tutor 의 配定도 원했다.

5) 프로그램 運營上의 意見

비디오 講義 運營上의 問題點으로는 「視聽方法 및 日程運營」을 47.6%로 가장 많이 지적했고, 「地域學習館의 施設」(31.0%), 「철저한 弘報」(8.3%), 「프로그램의 質的 유지」(4.8%)順이었다.

「視聽方法 및 日程運營에 관해서는 視聽時間表 作成, 貸出, 複寫, 反復視聽에 관한 制度的

인 考慮 및 運營의 妙를 지적했다. 한편 市·郡 단위 學習館에도 VTR 을 設置해 줄 것과 視聽 環境의 改善을 要求했고,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弘報의 實施뿐 아니라 廣範圍하고 迅速한 弘報의 通路가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또한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內容, 지도 교수 및 VTR 담당자의 配定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비디오·카세트 프로그램 運營上의 問題點

항 목	% (사례수)	세 부 의 견
철저한 홍보	8.3	프로그램의 내용, 보급 상황, 시청 일정표에 관한 홍보
시청 방법 및 일정 운영	47.6	일정표의 작성, 반복 시청 고려, 개별 진로 고려, 대출·복사의 통로
지역 학습관의 시설	31.0	학습관의 증설, 시청 환경의 개선
프로그램의 질적 유지	4.8	화질의 개선 및 보관
기 타	8.3	지역 특수성 고려, 지도 교수 및 VTR 담당자 배치
계	100(84)	

V. 結 論

1. 要約

· TV 受像機의 普及率은 98.2%였으며, VTR 은 6.3%의 낮은 普及率을 보였다. VTR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學習에 活用하고 있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複寫 및 貸與받을 수 있는 制度的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VTR 의 購買意思는 51.9%였으며 VTR 의 시중 가격이 10~20만원 정도로 저렴해져야 VTR 의 普遍化를 이룰 것으로 豫想된다.

VTR 의 普及率이 낮은 現在로서는 地域學習館에서의 集團視聽이 不可避하다. 그러므로, 地域學習館까지의 訪問이 비디오 講義의 前提가 되고 있다. 그러나, 地域學習館을 訪問하기 위하여 往復 3時間을 所要하는 경우가 전체의 43%로 비디오 講義의 視聽을 사실상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비디오 講義를 위해 地域學習館을 1回以上 訪問한 경우는 42.3%였고, 전혀 利用하지 않은 경우는 57.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利用者中 「1~3回」를 利用한 경우는 19%로 가장 많았고, 1회로서 10回以上까지 비교적 고른 利用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地域學習館의 1回 訪問時 視聽篇數는 1篇에서 4篇

까지의 고른 分布를 보였으나, 平均 2篇 정도를 視聽하고 있었다.

한 프로그램當 1회를 視聽하는 경우가 63.1%로 가장 많아 平均 1.4회를 視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速度調節의 經驗도 6.1%에 불과해 VTR이 지니고 있는 反復 및 統制의 機能을 제대로 活用하고 있지 못하였다.

視聽環境은 대체적으로 滿足하나 「교실의 좌석수」, 「騷音」 및 「교실의 照明」에 대한 不滿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비디오 講義를 視聽한 후 卒業學力考査에서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었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44.7%가 인정하여 비디오 講義가 成功의이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도움의 認定與否는 視聽頻度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많이 視聽할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회以上 地域學習館을 訪問한 경우, 즉 「교양 영어 I」 시리즈 전체를 最小限 1회視聽한 경우는 72.4%로 두드러지게 學習效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디오 講義에 대하여 느끼는 所感으로는 學習意欲과 關心이 가장 높았던 반면, 滿足度와 自負心은 비교적 낮아 학생들의 기대를 充分히 채워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비디오 講義의 視聽內容에 대하여 教授에게 問議를 해 본 경우는 1.7% 이어서 대체적으로 一方의이며 受動的으로 學習에 參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提言 및 結論

遠隔教育에서 비디오 講義는 VTR의 個別的인 所有를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VTR의 普及이다. 그러므로, VTR의 利用 및 購買를 촉진시킬 수 있는 discount 制度나 貸與 시스템 등의 積極的인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이미 VTR을 所有하고 있는 學生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複寫 및 貸與 시스템의 運營과 비디오·카세트 도서실을 갖출 必要가 要請된다.

VTR이 상당한 정도 普及되기까지는 集團視聽이 不可避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쉽게 利用할 수 있는 視聽場所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VTR 施設이 갖추어져 있는 10개의 地域學習館으로는 이 機能을 充分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전학생에게 均等한 教育의 機會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보다 細分化된 地域에 VTR을 갖춘 學習館이 增設되어야 한다. 또한 集團視聽의 경우, 보다 많은 사람의 必要와 要求를 채워주기 위하여 프로그램 視聽時間表의 作成과 運營의 妙를 살려야 한다.

비디오·카세트는 그 나름의 독특한 媒體의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可能性을 效果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體系의이고 繼續的인 研究, 制作 및 評價를 위한 人的·物的 投資가 要求되고 있다. 왜냐 하면, 어떠한 教育媒體든지 效果的으로 開發, 活用하기 위해서는 研究機能과 並行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 〈參考文獻〉

- Ash, P., and Jaspens N., *Optimum physical viewing conditions for a rear project daylight screen.* Instructional Film Research Reports (Part Washington, N. Y.; U. S. Naval Special Devices Center, 1953).
- Bates, A. W., *Broadcasting in education An evaluation.* (London; Constable and Company Ltd., 1984).
- Bates, A. W. (ed.), *The Role of Technology in Distance Education.* (London & Sydney: Croom Helm, 1984).
- Brown, Stephen, "Video-cassettes versus broadcasting?" *Teaching at a Distance*, No. 25, Autumn 1984, The Open University.
- Chu, G. C. and Schramm, W. *Learning from Television: What the Research Say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Broadcasters, 1967).
- Curry, R. P. *Report of three experiments in the use of television in instruction.* (Cincinnati: Cincinnati Public Schools, 1959).
- Driscoll, J. P. "Can TV improve college teaching?" *NAEB Journal*, 1959.
- Dubin, R. and Hedley, R. A. *The medium may be related to the message: College Instruction by TV.* (Eufene, Ore: University of Oregon Press, 1969).

# 教育改革的 基本方向

金 信 福\*

## 序

教育改革審議會는 發足 이후 개혁의 기본 방향 設定을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投入해 왔다. 그와 관련하여 간행된 報告書만 하더라도 『21世紀를 向한 教育改革的 方向』, 『2千年代의 經濟·社會發展 展望과 教育改革』, 『教育改革的 基本方向과 課題』, 『韓國教育 發展의 基本方向』, 『教育改革的 基本構想』, 『改革的 問題點과 方向』 등이 있다.

一部 人士들은 교육개혁심의회가 散發的인 當面課題를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장기적인 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出帆 당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30여 개 과제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短期的인 改革方案樹立도 並行하고 있으나,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데 最優先的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 要約, 紹介하려는 기본 방향은 그 동안의 작업 결과를 暫定的으로 마무리하여 지난 年末에 靑瓦臺 定期會議에서 報告한 내용을 筆者나름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人間像과 基本原則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검토되고 아울러 具體化될 예정이며, 이러한 작업은 중요한 改革審議會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 I. 21世紀의 國家發展 展望과 教育

교육은 국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아울러 그것을 先導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국가 발전에 대한 寄與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教育改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政治·經濟·社會·文化 각 부문에 걸쳐 장기적인 發展 展望과 그것이 교육에 주는 示唆點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1. 國家發展의 長期展望

9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정치 발전과 정치 안정이 相互補完的으로 균형 있게 추구되어 민주 정치의 土着化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政治參與機會가 확대되어 각계 각층의 意思가 폭넓게 收斂되는 제도적 장치들이 확립될 것이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地方自治制度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의 自治能力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國際政治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80년대 말까지는 局地的 군사 분쟁 가능성이 尙存하고, 한반도 주변 세력이 재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安保態勢의 확립이 계속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한국군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北韓을 압도하게 되고 韓半島의 주변 정세도 平和定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統一實現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教育改革審議會·第三分科專門委員; 서울大 教授

한국 경제는 2000년에 이르기까지 年平均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國民總生産은 1984년에 비해서 不變價格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산업 구조 역시 高度化되어 技術集約인 산업과 소프트(soft)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 인구 중에서 科學技術人力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高等教育을 요하는 專門人力의 需要도 加速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의 貿易規模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金融의 국제화와 資本去來의 자유화도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國際化·開放化 추세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加速化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부의 社會福祉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GNP 중에서 정부 재정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그러나, 總投資財源 중 정부 재원의 상대적인 비중은 오히려 감소되고 民間部內의 比重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經濟運用에 대한 統制 및 개발 계획의 추진 방식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종래와 같은 政府主導的인 행정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民間主導化, 自律化의 政策基調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가 高度로 分化됨에 따라 문화적 多樣性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 사회에 여러 다른 형태의 사회 조직과 生活樣式이 共存하고 서로 다른 價値들이 混在하는 경우에 개인은 심각한 價値觀의 혼란과 역할의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특히, 高度産業社會의 到來와 더불어 풍요한 사회가 갖는 社會病理現狀들이 수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따라서, 건전한 價値體系를 확립하고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外來文化의 流入에 대응하여 우리 문화의 正統性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

해질 것이다.

## 2. 教育改革에 대한 示唆

우리 나라가 自由民主政治의 理念을 실현하고 政治體制의 안정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한 政治發展을 이룩하는 데 있어 교육은 중요한 役割期待를 안고 있다. 교육은 국민들의 政治行態(political behavior)와 정치 현상에 대한 心理的 志向性, 즉 政治文化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에 있어 교육의 가장 큰 課題는 國家的 正體性(national identity)을 바탕으로 國民統合(national integration)을 이룩하는 일이다. 국가의 一員으로서 矜持와 共同體意識, 그리고 自主性의 배양은 우리 나라처럼 위태로운 安保環境 속에서 발전 과업을 이룩해야 하는 국가일수록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民主的 市民性을 함양하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資質은 정치 과정에 대한 能動的인 참여와 정치 행정에 대한 批判精神이라 할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이 조화된 自律精神과,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信賴 및 정치 현상에 대한 分析的인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산업 구조의 高度化와 함께 所要되는 人力의 수준도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高級人力의 壘産을 위한 교육 기능의 강화가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高級頭腦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의 秀越性 提高가 急先務이며, 각급 학교에서 과학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創意力을 개발하는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技術革新의 기반을 構築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需要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그에 對應하여 교육 여건을 擴充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義務이지만 誤導된 教育觀에서 비롯된 지나친 教育熱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雇傭政策, 賃金政策 등과 제휴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價値觀의 歪曲 현상이 수반되지 않도록 건전한 職業觀과 근로 의욕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消費 및 餘暇善用 能力을 배양해야 하는 것 또한 교육의 課題이다.

經濟·社會的 측면에서 國際化·開放化 추세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점차 加速化될 전망이다. 이에 부응하여 外國語教育의 강화와 함께 國際理解 教育의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며, 文化의 異質化 및 價値의 混亂 속에서 교육은 구체적인 民族文化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의 자랑스런 文化傳統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發掘해 내고 그것을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再照明하여 교육을 통해 擴散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광범하고 체계적인 사회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市民社會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內面化하여 다가오는 사회 변동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여러 媒體를 통해서 광범한 사회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經濟運用的 民間主導化 및 行政의 自律化 추세는 교육 부문에도 직접적인 波及效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성과 및 生産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행정의 방향을 自律的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참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統制爲主의 私學政策, 學科別 定員策定 등과 같은 직접적인 統制爲主의 행정 방식은 앞으로 自律的인 운영과 간접적인 지도·육성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II. 未來를 이끌어 갈 韓國人像

교육 개혁을 위한 基本構想에 있어서 가장 先行되어야 할 작업은 어떤 人間을 육성해야 하는가를 概念的으로 定立하는 일이다. 오늘의 교육은 다음 世代를 이끌어 갈 主體를 양성하는 미

래 지향적인 활동이므로 이번 교육 개혁에서는 21世紀를 主導할 韓國人을 길러내기 위한 새로운 教育體制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 발전의 長期展望과 그것이 교육에 주는 示唆點을 토대로 소망스러운 韓國人像을 抽出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그 동안 이루어진 많은 先行研究와 關聯學問分野의 理論의 文獻에 관한 分析結果가 반영되어 있다.

### 1. 自主의 人間

자주적 인간이란 主人意識이 뚜렷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지닌과 동시에 自律 및 자립 정신이 강하며 역사적 문화 의식과 투철한 국가 의식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主人意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肯定的·主導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자세와 주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책임 의식과 권리 의식이 수반되는 개념이다.

自我意識은 자기 자신을 卑下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自己實現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矜持와 자부심을 가리킨다.

自律 및 自立精神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統制하고 독립적인 思考를 하며 문제를 他人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歷史的 文化意識이란 주체적으로 역사를 洞察하고 그 의미를 內省化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文化的 傳統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화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文化도 受容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가리킨다.

國家意識이란 국가에 대한 同一視와 奉仕의 態度를 의미한다. 즉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紐帶가 강하고 국가의 목적과 개인의 價値構造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 2. 創造의 人間

창조적 인간이란 思考에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思考의 융통성은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폭넓은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으로서 創意性의 기초가 된다.

合理的 判斷力은 主觀이나 偏見, 혹은 개인적 인 利害를 떠나서 理性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변화에 대한 能動的인 對應能力이란 미래의 상황이 물고 올 문제를 미리 예견하여 도전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활용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리킨다.

獨創性은 어떤 자극이나 조건에서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도 못하는 非凡하고 희귀한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과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생산해 내는 知的·情意的 性向을 말한다.

생산적인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創意的인 태도가 단순히 空理空論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實績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道德的 人間

도덕적 인간이란 건전한 論理意識과 審美的인 情緒를 바탕으로 共同體意識과 協同心 등 민주국민의 資質을 갖추어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開放的인 사람을 가리킨다.

건전한 윤리의 의식은 도덕적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德目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不義와 타협하지 않으며 良心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

情意的으로 윤택한 審美的인 자질은 도덕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풍부한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善과 서로 相通하는 心理的 性向이 있기 때문이다.

共同體意識과 협동심 역시 현대 사회의 구성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道德的 規範이다. 公衆道德과 秩序를 준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정신은 사

회적 측면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태도인 것이다.

民主國民으로서의 資質 역시 넓은 의미의 道德性을 기초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여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을 존중하며 다수의 의사에 承服하는 한편 소수의 의견과 권익도 아울러 존중하는 民主的 倫理(democratic ethic)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國際化 시대에 요구되는 道德性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방적인 성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폐쇄적이고 人種優越的(ethnocentric)인 태도를 지양하고 외국의 文物과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世界主義(cosmopolitanism)的인 자세가 涵養되어야 한다.

## Ⅲ. 教育改革의 基本原則

교육 개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遂行되어야 할 작업은 세부적인 연구 과제의 추진 및 개혁방안의 심의에 있어서 기초로 삼아야 할 共通的인 準據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기초 작업과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의 교육 개혁이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 아홉 가지를 抽出하였다.

### 1. 韓國人의 矜持를 심는 教育

자랑스런 한국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여 긍지 높은 한국인을 육성하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가난과 外勢의 압력에 시달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卑下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므로 교육을 통해 그러한 낡은 因襲이 하루 속히 拂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數千 年の 뿌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뚜렷한 主人意識과 투철한 국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현대적인 價値 教育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2. 全人을 지향하는 教育

앞으로 우리 教育은 오늘의 知識偏重教育으로부터 全人的 발달을 도모하는 教育으로의 과감한 轉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 教育을 지배해 온 출세 위주의 知識競爭을 지양하고 知·德·體를 조화롭게 兼備한 인간을 길러내는 教育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숙한 人格形成에 注力해야 할 것이며 민주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審美的 안목과 풍부한 情緒를 배양하는 教育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3. 創意性을 기르는 教育

계속적인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냉혹한 국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식의 暗記를 강요하는 教育 현상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창의적 潛在力을 啓發하는 教育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암기시키는 시험 준비 위주의 教育을 탈피하고 새로운 생각이 격려되면서 個性과 人格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學習의 主體가 되도록 새로운 授業體制가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教育課程面에서도 다양한 好奇心과 個人差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4. 未來에 대비하는 教育

이번 教育 개혁에서는 다가오는 21世紀의 미래 상황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教育이 設計되어야 하겠다.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래 사회는 지식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의 팽창, 高度産業社會의 到來, 국제 정치적 대립의 尖銳化가 전방되고 있으니 만큼,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教育의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生成되는 지식과 정보의 量은 幾何級數의으로 팽창할 것이 예상되므로 情報社會化에 대처하는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轉移效果가 높도록 학습시키는 일이다. 즉, 지식의 基礎性 教育에 注力하면서 정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산업 구조가 끊임없이 高度化되고 科學技術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유능한 人力을 양성·공급하기 위해서는 産業需要에 부응하는 다양한 教育 機會의 제공과 계속 教育 체제의 확립이 요망된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北韓을 압도하게 되고 韓半島의 주변 정세도 통일 실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족 통일에 대비하는 理念教育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5. 秀越性的의 追求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教育의 質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월성이 추구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量的의 팽창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 온 학교 教育의 平凡性을 지양하고 질적 高度化를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潛在力을 최대한으로 伸長할 수 있는 教育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教育의 秀越性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質 높은 教育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個人差를 감안한 學習方法을 도입·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教育 평가를 통한 選別機能을 강화하여 善意의 경쟁을 유도하고 實績과 能力이 반영되는 補償體制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多樣性的의 助長

그 동안 우리 教育의 固質的인 弊病로 지적되어 온 劃一的이며 硬直化된 教育 운영으로부터 脫皮하여 다양하고 柔軟한 教育 체제로 전환이 요망된다. 다양한 個性과 가치관, 그리고 多元化된 조직과 사회 구조가 共存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특징이며, 동시에 바람직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그것을 촉진하고 助長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個성과 資質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個人差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多樣化하고, 劃一的인 注入式 교육 방법을 지양하여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소질을 살려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는 교육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교육 기관은 획일적인 발전 모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특성을 살려 나가야 하며, 특히 私學은 독자적인 建學理論에 따라 다양성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각종 교육 제도의 운영과 기준의 適用, 행정상의 지시와 감독에 있어서도 劃一성을 지양하고 각 지역, 또는 학교의 輿件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彈性性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7. 自律性的의 伸長

21 세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학교 교육과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裁量과 책임이 수반되는 진정한 의미의 自律性이 伸長되어야 하겠다. 즉 종래의 他律的이고 하향적인 교육 운영으로부터 自治能力과 責任性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교육 행정은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이고, 劃一的인 지시와 감독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지방 자치제와 더불어 教育自治制度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교육 정책 결정에 參與機會를 擴大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하여 應分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自律的인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自律化가 행정 기관 간의 縱的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 행정 기관 및 교육 기관의 내부적 운영에 있어서도 촉진되어야 한다. 最高管理者나 학교장이 全權을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권한과 책임을 委任하는 分權化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8. 教育環境의 人間化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질 높은 全人教育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非教育的이고 落後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人間的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인 학교의 교육 시설 擴充이 시급하다. 過密學級을 해소하고 과대 규모 학교를 분리·신설하여 학교 및 학급 규모를 適正化하고 건물의 구조나 교육용 器資材들을 현대화하여 快適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환경의 人間化가 실현되려면 학교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스승과 학생 간에 인간적 유대를 증진하고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을 淨化하는 등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9. 社會의 教育的 機能強化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주요 교육 문제들의 대부분이 교육 자체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까지 학교에만 의존해 온 教育體制로부터 앞으로는 사회 전체가 能動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體制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망된다.

가정과 사회가 갖는 교육적 기능이 학교 교육 못지 않게 莫重함을 인식하여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大衆媒體 등의 사회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先導的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正常化가 실현되려면 教育觀과 職業觀을 비롯한 사회의 가치 체계가 올바르게 定立되어야 하며, 健全한 청소년 문화가 육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學歷間 賃金隔差를 완화하는 등 교육 체제와 人力構造, 그리고 사회적 報償體系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 教育制度 改善의 方向과 課題

金 永 哲\*

## 1. 序

교육 제도는 한 나라의 공식적인 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틀이다. 국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적인 합의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手段인 동시에, 국민 개개인에게서 각자의 자아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 제도의 문제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 나라의 教育制度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6-3-3-4 제의 학제 등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教育内外의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修正·補完되어 왔다. 이러한 수정·보완의 과정은 대체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해 온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이제까지의 교육 제도는 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 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 예컨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980년 대학 졸업 정원 제도의 도입 등은 教育機會의 보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주요 정책들이었다.

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일련의 주요 정책들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적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우수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여 오늘날의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 제도 수정·보완 과정은 증대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육 기회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질 제고 또는 수월성 추구라는 측면을 비상대적으로 소홀히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거나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의 普遍性과 秀越性이라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데 합의되어 있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는 '教育의 機會均等'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일차적으로 취학 기회가 확대되고, 그 기회가 지역간·사회 계층간 그리고 남녀간에 균등히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보편화는 불가피하게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못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機會均等이 교육 기회의 확대·배분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질을 도외시하는 이념은 아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단순히 교육 접근 기회의 균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산출 및 생애 기회까지도 균등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機會均等은 우월성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공존할 수 있는 이념이다. 즉 기회 균등이 단순히 취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역량을 보다 심화시키고, 결

\* 教育改革審議會·第一分科專門委員; 本院·教育發展研究部長

손을 효과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교육 산출에서의 궁극적인 균등을 지향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 제도 운영에 있어 均等性和 秀越性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教育機會均等 이념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적 철학이 융화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教育制度改善의 방향 설정에 있어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 문제에 관한 한, 양자택일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난점이 존재하더라도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 동시에 추구될 때, 教育制度는 본래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우리 나라 教育制度의 主要問題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진술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제도가 교육의 균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주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幼兒教育和 特殊教育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평생 교육의 이념이 강조되고 幼兒時의 성장과 경험이 지니는 교육적 중요성이 널리 認識되면서 유아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아 교육의 기회가 계속 확대되어 오긴 하였으나, 4세~5세 유아 인구의 就園率이 현재 약 17%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유치원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하여 지역별 교육 기회 격차가 심하다. 또한 유아 교육 기회는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 문화적 혜택 결손 계층의 자녀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주로 도시의 중·상류 계층의 자녀에게 주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5~6세 아동의 就園率이 대체로 7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도 幼兒教育機會를 점차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그 기회를 균등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재나 심신 장애아를 위한 특수 교육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영재의 경우, 그 개념과 판별 기준이 확연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數마저도 정확하게 把握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학생 인구의 상위 3% 학생들을 영재로 볼 경우, 초·중·고등 학교만 하더라도 1985년 현재 약 30만명의 영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불과 소수 인원만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몇몇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예컨대, 과학 고등학교, 예·체능 고등학교 등)에 의해 교육적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대부분의 영재들은 거의 교육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영재를 조기 선발하여 그들에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까지 국가 발전의 우수 인재를 養成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教育制度上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 장애아들의 교육 기회 협소 문제 또한 심각하다. 特殊教育協會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심신 장애아 중 약 4%~9%만이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나마 장애아 교육 기관의 70% 이상이 사립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아 교육은 주로 이들 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어 일부 목지자들의 노력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심신 장애아들도 그들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앞으로 장애아 교육 기회 협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제도의 構造나 運營이 경직되어 있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교육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학생의 개인차가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한 바, 교육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교육의 우월성이 저해되고 있다. 예컨대, 국민 학교 취학 연령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만 6세에 고정되어 있거나, 학

생의 진급 체제가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능력에 따른 월반제나 조기 졸업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계열간 學生異動이 경직화되어 있어, 진로 선택과 변경이 어려워 개인의 適性和 能力의 신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교육 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 계열을 設置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융통성 있는 선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多樣성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고등 학교 단계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고등 학교의 교육 계열은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취업을 위한 실업계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우며, 就業과 進學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계열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選擇할 수 있는 계열이 제한받고 있는 것도 체제 운영의 경직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즉 고등 학교 계열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업계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계는 工業團地를 중심으로, 농업계는 주로 農村地域에 설치되어 있어, 고교 선택 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 계열은 상당히 제한 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학교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대부분 學業成就度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간 계열 간 격차가 표면화되어 있으며, 이들 간 학생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특히 중등 학교의 전학 범위와 대학의 편입학 기회 등이 제한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학생의 適性和 能力에 맞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세째,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연계 체제가 미흡하여 평생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 교육은 학교 교육을 근본으로 하여 발전되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을 부인하는

사회 교육이 성립될 수 없음은 뚜렷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교육의 상호 협력 체제하에 平生教育의 이념은 원만히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제도를 보면, 일단 학교라는 체제를 벗어나면 다시 학교 교육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社會教育機關의 종류와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여,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팽창하는 지식이나 經驗을 습득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취업자들이나 만학자들을 위한 교육의 개방 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며, 직업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가 선용, 지역 사회 개발, 청소년 지도, 인구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위한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은 각각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결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教育制度改善의 基本方向

교육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教育理念을 지향하는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살펴본 教育制度上的 문제들과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관련지우면서 그 방향을 探索해 본다.

첫째, 교육 제도는 교육 이념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人間性和 秀越性, 그리고 교육 기회의 均等性を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에서의 인간성 강조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으로 사회 체제의 발전에 못지 않게 個人 그 자체의 발전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최대한의 교육적 배려가 제도상에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教育의 秀越性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는 한편, 教育體制의 效率性を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均등성이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월성의 개념을 내포하면서 학교 교육 접근 기회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산출에서의

기회까지도 균등화를 의미한다.

둘째, 교육 제도는 그 원만한 기능 발휘를 위해 體制運營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改善되어야 한다. 교육 체제의 다양성이란 國家와 個人的 다양한 요구를 교육 제도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체제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에 따라 적성과 능력이 다르며 社會體制가 고도로 분화됨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교육 체제의 개방성이란 교육 체제의 내외에서 학생들의 횡적 이동과 종적 이동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여기서 횡적 이동이란 교육 제도의 융통성을 강조하여 학교간·계열간 학생 이동을 말하며, 종적 이동은 교육의 계속성을 강조하여 學校教育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平生教育體制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교육 체제의 효율성이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그 산출은 최대화하기 위한 價値로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의 效用極大化라는 점에서 체제 운영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다.

세째, 교육 제도는 적절성의 측면에서 人間發達上的 적합성과 社會體制와의 통합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인간 발달상의 적합성이란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에 부합되는 교육 제도의 구현을 위해 학교 단계 구분과 그 수업 연한의 적합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는 각각의 단계에서 遂行해야 할 발달 과업이 다르며, 能力發揮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육 제도도 이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발달 단계라 할지라도 발달 과업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교육 체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회 체제와의 통합성이란 학교가 학교 외의 사회 체제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 제도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교육 외적 상황의 계속적인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사회 체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 체제와의

이러한 관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4. 教育制度改善의 課題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개선 과제는 취학전 교육 단계에서부터 고등 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문제를 보는 관점과 향후 교육 발전을 展望하는 시각에 따라 달리 진술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 분석과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에 터해, 향후 시급히 改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幼兒教育機會의 擴大와 就學年齡에의 伸縮性附與

아동의 취학 전 시기가 기본적인 지적 능력, 정서, 사회성, 도덕성, 신체 능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人間能力의 기본이 되는 지능, 정의적 특성, 신체 능력의 기초는 5~6세 이전에 대부분의 원형이 결정되며, 이 시기에 그러한 行動特性 및 유형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학습 조건을 투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잠재 가능성 개발에 한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유아기 아동 발달의 중요성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은 유아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就學率이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도 취원율의 꾸준한 상승을 도모해 왔으나 그 수준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해서도 유아 교육의 기회 확대는 앞으로 계속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유아 교육의 기회는 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이 약하고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서벽지나 촌락 지역 및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擴大·開放되어야 한다. 따라서, 5세 기준의 아동을 위한 유치원 설립에 있어 이들 계층과 지역을 위한 國·公立幼稚園의 증설

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현재와 같은 국민 학교 병설 유치원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 교육 기관은 그 본질상 대규모보다는 소지역 단위의 소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교육 효과나 운영상 적절하다. 한편, 유치원의 취학 연령은 학제의 전체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設定·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 교육의 시작 연령은 선진국의 경우 대개 빠른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3세~4세 수준이며, 초등 교육의 취학 연령은 5~6세이다. 그러나, 發達心理學의 관점에서 보아 4, 5, 6세 아동의 신체적·지적·기능 발달에 큰 차이가 없음을 비추어 유치원 취학 연령과 초등 교육의 취학 연령은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는 학생의 과밀 정도가 낮은 農村地域이나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있는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考慮해 볼 만하다.

## 2. 中等教育의 統合化와 系列分析

중등 교육 단계는 발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장래 진로가 대부분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교육 단계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이나 고등 교육 단계보다 중등 교육 단계에는 개인의 適性과 能力의 다양한 탐색 과정이 필요하며, 교육 계열의 다양한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적성과 능력 변화에 따른 교육 계열간의 원만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체제 운영이 요구된다. 오늘날 主要先進國의 중등 교육 개혁의 일반적 동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여 계열을 달리하는 학교 또는 과정간에 횡적 이동을 허용하고, 공통 과정의 기간 연장과 선택 교과제를 확대함으로써, 동일 단계에서 병치되고 있는 각종의 중등 학교나 각 과정의 통합화를 試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Comprehensive School, 미국의 Comprehensive High School과 Alternative School, 독일의 Integrierte Gesamtschule, 스웨덴의 Gymnasialhala 등은 서구의 대표적인 통합형 중등 학교들

이다. 그런데, 중등 교육의 통합화에 대한 基本趣旨 중 하나는, 교육 제도의 민주화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중등 교육의 통합화는 일정 연령의 모든 靑少年들을 균등한 教育與件 안에 수용하고 다양한 교육 계열을 제공하면서 교육적 차별을 없애려는 민주화된 교육 제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 등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學問的 系列과 職業的 系列을 한 학교에 병치시키고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적성과 능력의 다양한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社會階層間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중등 교육의 통합화에서의 교육 과정 운영은 학문적 계열이거나 직업적 계열이거나를 막론하고 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모두 이수해야 할 공통 과정과 개인의 능력이나 요구에 맞게 履修할 수 있는 選擇課程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통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어느 계열이든 이수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중등 교육의 통합화를 모색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토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등 학교 교육 계열의 세분, 중학교에 있어 진로 탐색 과정의 설치 등이 교육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高等教育의 秀越性 追求

고등 교육은 고도의 지적 문화를 계승·전달하고 창조·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유지와 발전의 견인차적 기능을 遂行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교육 단계에서보다 教育의 秀越性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등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느 한 부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성취될 문제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고등 교육의 수월성은 교육의 이념·목적 재정립에서부터 교육 과정의 구조와 운영, 교수-학습의 방법, 教授의 質關聯 教育政

策 및 制度, 교육행·재정, 교육 여건 및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라는 명제와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과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부터 점진적으로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졸업 정원 제도 도입 이후, 악화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教育施設·設備를 보완하며, 교수, 대학생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고등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 교수-학습의 질 제고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또한 고등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광역권을 형성, 대학의 특수화를 유도하고 私立大學을 지원·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고등 교육의 교원 정책도 인력 수급과 사회 수요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學生選拔制度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교수 요원의 확보와 자질 향상, 전문 대학 및 대학원의 내실화, 대학의 학술 연구 활동의 진흥 등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4.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의 連繫強化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량의 급격한 팽창과 단명한 지식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학습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産業社會가 요청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연수

와 현직 교육이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며, 이를 社會教育機關 단독으로 소화해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치관 혼란과 생활 규범 약화 현상을 극복하고 社會秩序를 確立하기 위해서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상호 연계에 터한 平生教育體制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 제도의 구조나 운영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나아가서는 가정 교육과 직장 교육까지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 나가도록 刷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교육 기관의 다양한 설치가 전제되는 가운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이룩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방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공공 기관과 산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職業訓練所와 職業技術學校 등을 중학교 내지 고등 학교와 연결시켜 상호간에 학생·시설·교원 및 교육 과정 이수 등의 교류를 구상할 수도 있으며, 정규 학교의 특수 활동에 사회 교육 기관의 專門教師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放送通信高等學校 및 放送通信大學과 각종 사회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 및 시설 교류 등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開放大學의 종류와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일반 사회인에게 문호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노인 대학, 주부 대학, 시민 대학 등의 계속적인 운영, 각종 종교 단체의 사회 계몽 활동 등도 활성화시켜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教育은 生産品이 아니다. 즉 그것은 점수, 졸업장, 직업, 돈의 順인 그런 것이다. 教育은 過程이다. 결코 끝이 없는 過程이다.

—B. 카푸만 「텔레비전 회견」에서—

Education is not a Product: mark, diploma, job, money in that order; it is a process, a never-ending one.

—Ben kaufman, 「Television interview」—

## 幼稚園 · 初 · 中等敎育의 發展方向

郭 柄 善\*

## 1. 初 · 中等敎育의 現況과 問題點

6-3-3-4의 기본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고등 교육 이전 단계인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초에 20%에 미치지 못하던 유치원 취원율은 1985년 현재 50%로 상승하였고, 1960년대 말 이래 완전 취학률에 도달해온 초등 교육은 1970년대말부터 완전 무상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 학교의 진학률은 각각 99.2%와 90.7%로서, 중학교는 90년대 초까지, 고등학교는 늦어도 90년대말 안에 무상 교육으로 실시될 것이 전망된다. 이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고등 학교 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1984년 현재 약 1010만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는 15,530개, 가르치는 교사는 266,400명이다. 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이는 돈은 2조 1,287억원으로 이것은 전체 문교 예산의 85.4%, 정부 예산의 17.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만한 외형적 규모로 발전한 우리의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과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쌓아 올린 주목 될 만한 업적이다. 국민 일인당 소득이 150달러 미만이던 1960년대초에 외국 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이미 우리 나라의 교육 발전은 당시 분석 대

상 세계 75개국 가운데 이탈리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등과 함께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1)</sup> 학생들의 취학률 수준만 따진다면, 우리 나라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과연 양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의 유치원·초·중학교의 실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과정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다운 포부를 실현시켜 주고, 미래의 험난한 국제 경쟁에서 나라의 자존을 지켜나갈 유능한 한국인을 길러내는 데 적합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섭섭하게도 이 중요한 질문에서 우리의 학교 교육 전반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단순한 미봉책이나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국가의 기업으로서 학교 교육의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대 전면적인 개혁이 크게 요청된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의 무엇이 우리에게 일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학교 교육 전반에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아,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능력있는 학생들은 능력이 있

\* 敎育改革審議會第二分科專門委員 · 本院 敎育課程研究部長

1) Harbison, F. & Myers, C. A.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Strateg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어도 인정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틀에 맞춰 학생을 지도하려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국민 학교 취학 전에 아무리 읽기 쓰기를 잘하여 학교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린이라도 만 6세 이전에는 학교를 못들어간다.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조기 교육으로 기초 학습 기능을 갖춘 어린이는 오히려 국민 학교에서 초기 문자 지도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가르칠 내용을 고정시켜 놓고 학생을 여기에 맞추려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다. 초·중등 학교에서 공부를 월등히 잘해도 월반할 수 없고, 학력이 없어도 졸업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력 평가가 지필 검사 위주로 되어 있고, 누구나 교과서에 통달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적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교과서 외우기에 골몰하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 보다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공부가 학생 본인들에 있어서 장래의 학문적 성취를 가져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과학적 사고 능력은 실험을 설계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을 통해서 길러짐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을 객관식 지필 검사로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재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과학자와 점수나 잘 따는 천박한 학생을 의미 있게 변별해 내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인적 발달이라는 것을 교과별 점수의 합계로 보는 총점주의적 발상에 젖어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을 되풀이 한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적성의 개발보다 소위 고득점 과목을 맹목적으로 추종케 하는 탈적성주의(脫適性主義) 교육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이 오늘의 학교 교육의 실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면서도 성과는 그리 나지 않는 교육,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

한다.

둘째, 학교와 교사가 자율과 창의로 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교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야 할 필요성은 교육의 속성 그 자체가 교사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단순히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을 답습하는 인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연, 학습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재형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이 일을 담당할 교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격려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교원 인사, 장학, 학교 재정 등에 보편화된 현상이긴 하지만 특별히 교육 과정 결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즉 교육 과정, 교과서 등이 학생의 능력이나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진다. 학력 평가의 기준이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한다. 교육은 개개인 능력이나 흥미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차이를 소중히 하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의 학교는 전자(前者) 일변도로 편포되어 있어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다양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맥락 하에서 교사는 평소에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교사의 전문성은 그가 가르칠 교육 내용과 수업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지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교사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직무를 피동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세계, 교육 내용이 고식적인 교과 교육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교과의 지식 전달은 강조되고 있지만, 일반 교육의 중요한 교육 목표인 종합적 능력이나 태도 예컨대, 건전한 국민 의식,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가치 분별 능력, 건설한 대화 능력 등은 소홀히 되고 있다. 즉 교과 교육이 교과의 학문적 목표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도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력,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적인 사고력이나 지적 호기심, 계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은 소홀히 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목표, 사회 및 국가 생활에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대인 관계,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능력, 민족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발전시키려는 의지, 각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개인적 목표의 추구 등이 교육 내용에 균형 있게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가 교과서 일변도로 획일화되어 있어, 수업 방법을 서적 중심 일변도로 흐르게 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또한 간략하고 빈약하여 교과서를 해설한 참고서가 음성적으로 범람하고 있다. 즉 공인되지 않은 교재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력 있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된 큰 이유는 교재의 발행이 교과서만으로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 학교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평가를 살펴 볼 때, 학생들의 작업 진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평가이기 보다는 학습 결과로서 학생 성적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학습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과주의를 학생들에게 만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전국 수준에서 학교 교육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네째, 학교 시설 및 제반 교재 교구의 구비가 낙후되어 있다. 학교 교실의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책·걸상 교구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되지 않은채, 옛 모습 그대로 제작·활용되고 있다. 다른 모든 부분의 분야가 발전해 가는데 학교 환경만은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우선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도시 지역에서 과대, 과밀 학급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은 도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학급 규모가 적을수록 교육은 좋아진다고 보고되었다.<sup>2)</sup> 즉, 학교 교육에서 다른 것들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교사와 학생은 적은 학급일수록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학급 학생들은 36명 학급 학생들 보다 2주 내지 3개월 더 학습할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된다.<sup>3)</sup> 우리 나라의 과밀 학급 현상은 과밀 학급의 교육적 폐해에 관해 무감각해 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적어도 우리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악화된 교실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분명할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가진(유치원 34.7, 국교 47.2, 중 63.2, 고 57.7) 학교 교육으로는 이미 50년대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선으로 감축하였고, 현재 20명선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선진 제국과는 교육력에 있어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 환경을 고쳐야 될 이유는 단순히 학력을 올려야겠다는 단견(短見)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는 학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4이 삶

2) Glass, G & Smith, M. *Meta Analysis of Relationship of Class-size and Achievement*. The Class Size and Instruction Project Far West Lab.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1978.  
 3) Jencks, C. *The Coleman Report and the Conventional Wisdom*, in F. Mosteller & D. Moynihan(eds.),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Vintage Books, 1972.

을 영위하는 생활의 공간이다. 그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고 조밀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어서야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가장 안락한 장소, 밝은 장소, 가고 싶은 장소, 질문이 있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부터 40~50년 전 유리창이 많아 밝고, 책·결상이 있어 앉기 편했던 교실은, 그 당시의 생활 수준에서 보았을 때, 일반 가정과 동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학문과 인격적 수양을 가져올 수 있는 각성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 다른 모든 분야는 급격히 변화하였지만, 교실만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다. 학교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의 마음을 바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소홀하였고, 학생들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데 대한 기성 세대의 관심이 소홀한 증거이며, 종래의 정책 담당자들이 교육을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만 앞 세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감각한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교실의 여건이 그러한데, 다른 시설이나 교구의 낙후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교육 행정의 편의주의에 밀려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에 편의주의, 관료주의가 만연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 하나를 지적하면 대학 입학 학력 고사 제도이다. 금년부터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즉 모든 문제를 하루에 사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 관리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3년 동안 공부한 실력을 한 가지 검사 방법에 의해서 하루 동안에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그런 점수따기 요령이나 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방식으론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적성을 무시하는 총점제라는 것

도 마찬가지로 발상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 4~8주 동안 치른다. 한 과목에 대해서 2~3시간씩 4번을 치르기도 한다. 실험 실습실에서 실험하는 과정, 실습하는 활동도 계획되고 관찰된다. 한 학생이 치르는 시험 과목은 3~5개에 불과하다. 시험 과목은 누구나 동일한 과목이 아니고 학생의 장래의 희망에 따라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필요한 과목을 각자가 선택한다. 미국의 학업 적성 검사는 객관식이긴 하지만 언어·수리 능력 두 영역에 대해서만 3시간 이상을 치르도록 한다. 교육 행정은 그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의 내실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정이라야 할 것이다.

## II. 發展方向

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유치원·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안된다.

첫째, 유치원, 중·고등 학교 교육의 기회가 의무 교육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의무 교육 년한은 선진국이나 경쟁 상대국에 비해 현저히 짧다.

이 일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학교 교육은 국민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원천이 된다. 때문에 이 일반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능률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내야 한다. 입학전 우수아는 6세 이전에도 국민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 내용 수준에 미치지 않고 상급 수준의 내용을 능력껏 공부할 수 있거나 상급 학년으로 월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조

기에 학교를 마칠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별 반 편성을 할 수 있고,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부진 현상이 방지되지 않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머리가 우수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고등 학교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육 평가에서 서적 중심, 지필 검사 일변도의 검사로 학생들이 진정으로 길러야 할 능력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엄정한 실력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학문적 탐구 능력이나 적성은 없어도 교과서 암기만 잘하면 통과할 수 있는 지금의 대학 입학 학력 고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포부나 뜻을 둔 분야에 집중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닦은 실력은 모조리 들춰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설명력이 필요하면 설명하게 하고, 실험 능력이 필요하면 실험하게 하고, 문제 형성 능력이 필요하면 바로 그런 실력을 직접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번 인정된 능력은 몇 년을 두고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

특별히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허송하게 하고, 뺏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제한된 방식으로 묶어두는 제도나 절차는 과감하게 고쳐져야 한다. 우리 학교 교육은 어느 나라의 교육 못지 않게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데 열심을 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열심이 비능률적 절차와 틀로 인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활달하게 쑥쑥 키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그 능력을 따라가며 보살피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선진 제국의 교육과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이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중학교나 고등 학교에서 마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를 내실화하여 교육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에 필

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고등 학교에서 일반(인문) 고등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 준비나 뚜렷한 사회 적응 능력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대학 진학의 기대를 안고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이것은 인력 양성면에서 사회적인 손실이고, 학생 개개인에게는 초등 학교에서부터 쌓아온 교육적 배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불행이다. 고등 학교(특히 일반계 고교) 교육의 과정에서 능력 위주로 학생들을 선별하여 진학반과 직업반을 구별하고 학생 각자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 수학 능력이 있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어려운 난관없이 곧장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짧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재수(再修)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에 대한 낮은 선호도의 경향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교, 일반 고교에서 실업 계열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하거나 현격히 낮은 경비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 계열의 이수 과정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지 않고, 2, 3, 4, 5년제 등 과정의 성격에 따라 수학 년한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째, 학교가 자율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문교부로부터 교육 위원회에, 교육 위원회로부터 교육청과 학교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문교부는 교육의 기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한하고, 교육 위원회나 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춰 문교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지역 교육 계획을 세우며, 학교 교육의 세세한 실천 계획과 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문교부—교육위원회—학교—교사의 관계는 일방적 하향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가급적 가르치는 일

이외의 불필요한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되고, 필요한 도움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학 상담과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 내외의 교육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적 지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사회는 이를 높이 신뢰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자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즉 자치 활동의 기회를 풍부하게 가져, 비합리적인 절차를 배격하고 건실한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을 자유 민주주의 보위 세력으로 편입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월한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율 능력을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길러주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다.

학교는 독자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 의사 결정에는 교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한다. 교육 과정 운영, 예산 집행, 학사 운영 등에서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교육 내용은 전통적인 교과 중심 편제를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 포부를 실현시켜 주고 직업의 세계를 안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 컴퓨터, 생태학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목의 신설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 정비, 목공, 공예, 수예, 원예 등과 같은 장·단기 실무 과정들이 실업 제열에서 폭넓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통 필수 과정을 줄이고 선택 과정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일반 교육의 공통된 목표로서 언어, 수리,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사고 기능,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관습과 가치 판단 능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효능감과 자아 실현 의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 개혁 심의회가 설정한 자주성, 창의성, 도덕성은 이런데 대한 충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과정이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지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과정(과목)별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이 학교 교육을 안내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고, 교과서는 교육과정 자료의 하나로서 다양하게 편찬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는 자유 발행 되도록 하고, 개별 학습용 교재, 읽기 자료, 연습지 등 부교재를 비롯하여 영상녹화·녹음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 등 발달된 교육 공학을 폭넓게 활용하는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적 교육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출판사들의 음성적인 참고서 발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발행 제도에 과감한 개혁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환경을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과 생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한 교실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축소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교실과 각종 부대 시설은 학습이론과 인체 공학에 맞춰 현대화되어야 하며, 교구와 설비 등도 새롭게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한꺼번에 해결해 낼 수는 없는 과제이다. 우선 문화적 혜택이 뒤떨어지고 있는 농·어촌, 도시의 빈곤 지대부터 시작하여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신규 학교를 건설할 때, 새로운 시설의 모델을 적용·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진정으로 국가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 성금 모으기를 거국적으로 실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

# 高等教育改革의 方向과 課題

姜 武 燮\*

## I. 머리말

한국 교육은 트로우(trow)의 교육 성장·발전 단계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1980년을 기점으로 엘리트 단계를 벗어나 大衆化 段階에 돌입하였다. 고등 교육의 大衆化는 단순히 고등 교육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高等教育體制 확충은 물론, 고등 교육이 수행하는 役割과 機能의 확대·신장을 포괄하게 된다.

고등 교육은 성장·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自我를 實現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나아가 국가 사회의 理想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이 이룩한 업적은 체제의 역량 증대와 이러한 역량 증대를 통한 教育力의 伸張, 研究機能의 擴充, 그리고 社會奉仕活動의 擴大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등 교육은 그 성장과 발전 과정에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병존시켜야 한다는 갈등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다. 大學의 亂立에 따른 理念과 機能의 불명료성, 교수 부족에 따른 教授負擔의 과중, 교육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지역간 대학의 불균형적 발전, 사립 대학에 대한 육성 미흡 등 고등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山積해 오고 있다.

未來社會는 대학 교육이 수행해야 할 役割과 機能은 물론 教育內容과 教授方法 그리고 大學의 內部構造와 組織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은 고등

교육을 받은 高學歷者들이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낼 고등 교육의 변화 없이는 미래 사회에 전개될 변화의 충격을 收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長期的인 궁극적 고등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더하여 高等教育改革課題를 探索·抽出함으로써 高等教育의 改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II. 高等教育의 發展方向

향후 韓國 高等教育改革의 방향과 課題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 고등 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發展方向은 한국 고등 교육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未來社會變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고등 교육의 본질적 機能이나 발전 추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準據 내지 指標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고등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의 지표로서 秀越性, 自律性, 多樣性, 效率性의 네 가지 준거를 설정하고 이에 관하여 논의한다.

### 1. 秀越性의 追求

고등 교육은 人類共同社會를 존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편적 眞理를 탐구하고, 인간을 위한 至高·至善의 價値를 부단히 창조하며,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보편 타당한 規範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진리·정의·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배출해야 할 本質的 使命을 지닌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 教育改革審議會·第三分科專門委員·本院教育計劃研究室長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등 교육 체제를 개방하는 추세 하에서도 결코 간과되거나 경시될 수 없는 고등 교육 최상의 가치는 學問의인秀越性의 추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선진 국가들이 고등 교육의 大衆化·普遍化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월성 추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한국 고등 교육의 발전·방향 탐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고등 교육은 지난 4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질적인 成長·發展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학문적인 수월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고등 교육이 本質의인 機能과 役割遂行的 측면에서 침체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등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압력 가중과 고등 교육 인구의 多樣化·異質化는 고등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고등 교육 체제의 多樣化와 階層化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도의 知識·情報化 社會를 주도할 고급 인력의 양성과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창출을 위한 國際競爭의 심화 등은 고등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더욱 결실히 요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고등 교육은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간의 상충이 심화되는 현상하에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커다란 비중을 두면서 고등 교육의 教育, 研究, 社會奉仕라는 3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수월성 추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 2. 自律性的의 伸張

고등 교육의 價値創造와 知的文化的의 비관적 발전을 도모하는 본질적 기능이나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象牙塔的인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보면, 자율성은 고등 교육의 존속·발전을 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자율이란 교수에게는 教授活動과 思想의 自由, 새로운 진리 탐구를 위한 연구 활동의 自由를 의미하며, 고등 교육 기관에 있어서는 학원 관리·운영의 자율, 그리고

전체 고등 교육 체제에 있어서는 政治的의 中立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의 의미와 개념적 범주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大學人이 쟁취한 소중한 知的的의 遺産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 있어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고등 교육의 國家依存度가 높아지면서 고등 교육의 자율성 보장이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이 스스로 自己規律과 自己統制를 통한 자치 능력을 배양해 온 구미 선진국의 대학들은 보장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고등 교육은 때로는 一貫性이 결여된 고등 교육 정책의 혼재와 와중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급성장의 과정에서 公共性을 상실하고 자치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공공성 상실과 자치 능력의 미흡은 국가의 과도한 干涉과 他律的의 統制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한국 고등 교육은 그들이 획득·쟁취해야 할 자율권을 양보한 策外的의 統制와 他律의 범주 내에서 안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 사회는 民主·自律化의 기풍이 진작되며 多元·多樣化 社會로 급진전,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해 볼 때, 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 自律性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하에 한국의 大學들은 국가·사회로부터 서구의 대학들이 쟁취·향유하고 있는 자율권을 획득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며, 반면 국가는 대학이 주어진 自律을 책임질 수 있기 위해 자기 규율과 자기 통제를 통한 自治能力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 교육은 國家·社會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하에 자율과 자치를 바탕으로 하여 個性과 創意를 진작시키며,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발전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多樣性的의 提高

고등 교육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봉착하게 되는 문제는 기회의 확대·보편화와 질적인 秀越性 追求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 현상이다.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보편화는 고등 교육 인구의 학문 수행 능력상의 異質化와 교육적 요구의 多樣化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고등 교육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高等教育體制의 다양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고등 교육 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高等教育機會의 平等性과 고등 교육의 質的인 秀越性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구미 선진국의 고등 교육 체제는 한국 고등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에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현대 사회의 고등 교육에 대한 多樣한 需要와 要求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등 이후 단계의 교육 체제를 다양화하였다. 미국의 주립 대학을 일컬어 “教育都市”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대학의 구조적인 多樣性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처럼 고등 교육 체제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다양한 대학들 간에 水平的·垂直的 機能과 교육 프로그램상의 分化를 도모하고 있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다양성의 제고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 간의 갈등 해소라는 측면 외에 대학의 個性과 創意性을 살리고, 그 운영에 있어 自律性을 보장하기 위한 基本的인 原則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등 교육 체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대학의 獨自性과 特殊性이 결여되어 있어 다양한 고등 교육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등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의 管理·運營體制 또한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있어 自律性과 效率性을 저해하고 있다. 획일적인 教育課程과 教授-學習方式 또한 고등 교육 인구의 이질적인 능력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고등 교육은 體制의 水平的·垂直的 機能分化를 통하여 고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며, 질적 수월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多樣性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고등 교육 체제의 관리·운영은 물론 教育課程 및 教授-學習方式에 있어서도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하여 융통성·다양성을 대폭 증진함으로써 自律性 伸張과 效率性 增大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4. 效率性의 增大

효율성은 사용된 자원과 성취·획득된 결과물 비교함으로써 측정되는 것으로서 投入된 요소에 비하여 產出된 수익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막대한 財源이 교육에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이 消費가 아닌 投資의 관점에서 고려됨에 따라 投入-產出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가 크게 중시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은 하급 교육에 비하여 高價의 投資를 요하는 부문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 투자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등 교육의 非效率性(inefficiency) 내지는 非生産性(unproductivity)은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손실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손실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의 효율성은 다른 產業部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시되고 있으며, 산업 또는 기업의 經營方式이 고등 교육 기관의 경영에 적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이다.

따라서, 고등 교육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재정 여건 하에서 財政確保의 實現可能性을 타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가능한 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效率化 方案의 모색이 결실히 요청된다. 전시 효과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教育效果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 운영의 제 측면에서 適正規模를 연구·개발하고 財政配分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중점 분야를 선정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效率的인 運營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의 추구가 고등 교육에서의 秀越性 追求나 自律性 伸張 등을 희생해 가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本末의 전도를 의미하며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 Ⅲ. 高等教育改革의 課題

고등 교육의 급속적인 발전 방향에서 보면 한국 고등 교육은 改善 또는 改革을 요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절에서는 고등 교육의 理念과 制度, 教育內容과 方法(教育課程의 編成·運營), 學生定員, 學生管理(입학과 졸업 및 평가), 教育 및 研究與件 그리고 教育 및 研究支援體制 등 6개 영역에서 개선 또는 개혁의 課題를 추출하고 과제의 개선 또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 1. 理念 및 制度

첫째, 대다수의 대학들은 역사가 日淺하고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學問的 共同體로서의 기본 성격이 불분명하고 教育, 研究, 奉仕機能의 조화와 이들 제 기능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基本理念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단기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 대학의 경우 準專門職業教育에 대한 이념과 성격만을 규정하고 있어 단기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성격과 기능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고등 교육 기관은 그 기본 성격과 目的 및 機能을 보다 명료화하고 고등 교육의 獨自的 理念을 보다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 4年制 大學의 경우 教育·研究·奉仕機能의 조화적 수행과 중점 분야 및 우선 순위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제반 여건을 확립하며 制度的인 補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專門 大學의 경우 확일적이고 과도한 準專門職業指向의인 교육 기능에서 탈피하여 인문·교양 교육적 성격의 성인 계속 교육적 기능과 4년제 대학의 전반기 과정으로서의 중간 교육적 성격 등을 부가하여 기능의 多變·多樣化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 교육 기관 상호간의 役割分擔이 미흡하여 대학의 형태나 지역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百貨店式으로 학과를 나열하고 있어 고등 교육 기관간의 중복과 불균형,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도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 교육 기관이 多樣性 속에서 統一性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별로 중점 분야를 育成·開發하고 각 기관별로 특성을 달리하는 고등 교육 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 간에는 물론 국·공립 대학 상호간과 사립 대학 상호간에도 相互補完的 機能分化가 요청된다. 예컨대, 學部中心大學과 大學院中心大學, 純粹學問指向大學과 實際指向大學 등으로 구분·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유형으로 발전되는 획일적인 경향을 억제하고 각기 比較優位의 분야를 중점 육성하며, 특색 있는 校風과 學問性向을 조성하도록 대학의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2. 教育內容과 方法

첫째,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教育過程編成면에서 전공 학과간에는 물론 학문 영역간의 閉鎖性으로 학문 발전과 교수 및 연구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大學教育過程이 아래로는 고등 학교 그리고 위로는 大學院教育過程과 連繫性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 과정은 고등 학교 교육 내용과, 전공 과정은 대학원 과정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고등 교육의 교육 과정이 그 본래의 교육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學問指向教育內容과 職業指向教育內容을 균형 있게 구성·안배해야 할 것이다.

● 학문 계열에 기초한 廣域型 教育過程을 편성하여 전공 학과간 또는 전공 영역간의 硬直性과 閉鎖性을 탈피해야 한다. 즉, 폐쇄적인 학과 중심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문 상호간의 유대성과 공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開放化하여야 한다.

●大學教育過程에서 교양 과정을 보강해야 한다. 교양 과정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필수 과목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學問的인 關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선택 위주의 과목을 확충해야 한다.

●教育過程編成에 있어서 교육 내용의 從的·橫的 連繫性을 강화해야 한다. 종적으로는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과 대학원 간 그리고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간에 教育內容의 중복과 반복을 피하고, 횡적으로는 전공 영역간, 전공 학과간, 각 교과목 간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學習意慾을 증진시키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教授-學習方法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고등 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은 가장 취약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는 대학의 施設이나 教授確保 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지만, 대학 스스로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대학에서 아직도 舊態依然한 교수의 講義 일변도식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하지 않는 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여건의 개선과 교수 수업 부담의 경감, 도서관의 확충과 도서 확보 등과 아울러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 능동적인 教授形態를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教授類型(teaching styles)과 教授方法이 多樣化 되어야 한다.

●학문의 성격과 과목의 특성에 적합한 教授方法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습의 效率化와 個別化를 위하여 최선 教育工學을 과감히 도입·활용해야 할 것이다.

### 3. 學生定員政策

첫째, 1970 년대에 들어와서는 科學技術系를 중심으로 人力需要의 추정에 의하여 고등 교육 정원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인력 수요 추정 자체가 국가의 經濟發展 政策變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정

원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이 이미 大衆化段階에 들어섰으므로 더 이상 인력 수요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고등 교육에 대한 社會需要가 과대하기 때문에 人力需要만을 고려하여 정원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再修生의 누적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전체 고등 교육의 學生定員은 물론 개별 대학의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높은 教育熱, 하급 학교 교육 인구의 증가, 그리고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등 교육에 대한 個人的 欲求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체 고등 교육의 定員規模는 社會需要를 최대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 수요는 고등 교육 체제의 開放化를 통해 수용 가능할 것이다.

●고가의 교육 투자를 요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배출할 필요가 있는 自然系列의 정원과 대학원의 정원은 교육의 投資-效果라는 측면에서 특히 人力需要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전체 고등 교육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학의 학생 정원 규모는 대학 교육의 학문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즉 教授 및 施設確保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둘째, 질적 기준의 확립을 전제로 하여 고등 교육 정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定員策定의 自律化는 대학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고등 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원 책정의 자율화는 逆機能의으로 부실한 대학을 助長할 수도 있으며 과거 私學의 기업화 현상을 다시 불러 일으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원 결정의 자율화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고등 교육의 전체 정원 및 대학의 정원에 대한 決定權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의 고등 교육 정원 규모 및 개별

대학의 정원 규모와 계열별 정원 규모는 상기에 서 제시한 定員決定의 準據에 더하여 정부 차원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대학의 정원 규모는 고등 교육의 질적 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教育與件을 갖춘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決定·運營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의 경우는 당해 대학의 형편에 적합하게 문교부에서 정원을 策定·調整할 수 있을 것이다.

● 大學과 教育行政當局과의 완충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의 기구(전문 학회,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개별 대학에 대한 評價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결정의 自律權을 부여하도록 한다.

#### 4. 學生管理

첫째, 일반적으로 卒業定員制 실시 이후, 상대 평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적 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學業成績評價나 學點이 비교적 후하게 주어 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학점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라면 勉學風土의 조성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도입과 학점 부여, 엄정한 시험 관리로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생”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출석, 과제 등에 의한 획일적 學生評價에서 탈피하여 수업 참여와 태도, 연구 논문의 제출 등 評價基準을 多樣化하고 평가의 嚴正性和 학점에 대한 信賴性を 높여야 한다.

● 대학 사회에 있어서 학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學問의 正直性(academic honesty)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지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 고등 교육에 있어 學生의 質管理는 정원 정책과 입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1980년부터 시행된 졸업 정원제로 정원 외에 추가 모집된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탈락시키도록 하여 종래 입학만 하면 졸업이 보장되는 대학의 慢性的인 질적 통제 부재를 불식하고 입학 후 학생의 질 관리를 크게 강화하였다. 학생의 질적 통제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卒業定員制는 사실상 대학의 학생 정원을 크게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지만, 일면 제도 도입 당시에 기대했던 손기의 成果를 달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도 대학의 質的인 發展과 知的 風土造成, 그리고 대학의 낭비 요소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졸업 정원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고등 교육의 秀越性和 自律性を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을 대학의 自治와 자율적인 統制에 맞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졸업 정원제에서 탈락된 中途脫落者 또는 卒業修了者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도 탈락자자는 소위 一流大學에서 더욱 심각하므로 이들 대학의 중도 탈락자 또는 수료자들이 下位大學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강구되어야 한다.

#### 5. 教育 및 研究與件

첫째, 學生收容能力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정원 정책과 대부분의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 압박에 의한 소극적인 教授充員政策으로 교수의 부족 현상이 점차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교수들의 授業負擔이 점점됨에 따라 자연 그들의 연구 활동이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원의 教授養成機能이 미약하여 외국 유학을 통한 교수 양성에 크게 의존해 왔다. 교수 요원을 적정 비율로 양성·확보하여 교수들의 수업 및 학생 지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수들의 勤務條件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수·연구 및 봉사 기능이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학부, 대학원 강의 시간과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교수의 수업 부담을 適正化하고, 이에 더하여 전임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 교수들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有給助教制度를 확충해야 하고, 특히 대학의 研究機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 研究專擔教授를 확보할 수 있는 專任 研究教授制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교수 양성 기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大學院 中心大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교수의 신규 임용에 공개 채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수의 신규 임용이나 재임용 및 승진 등에 있어 業績과 能力 中心의 評價 基準를 설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교수 再任用制度의 발전적 보완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고등 교육 기관의 시설은 외곽 시설의 확보율이 저조하여 절대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內部 施設, 즉 실험 실습 시설 등의 부족 현상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科學技術人力의 수요 증대와 관련하여 자연 계열의 실험 실습 시설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確保率의 低調와 더불어 고가의 시설을 확보해 놓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 투자의 관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등 교육의 條件改善을 위하여 교육 시설 기준을 現實化하고,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한 기본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확보된 시설의 效率的인 활용을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 대학의 施設基準를 현실화하여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기본 시설을 확보하고 과학 기술 지식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內部 施設 및 機資材 등을 현대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도서관 시설의 확충과 장서 및 전문 잡지 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내부 시설 활용의 極大化를 위하여 고등 교

육 기관을 特性化하고, 고등 교육 기관 내의 타 대학 또는 타 학과와는 물론, 타 고등 교육 기관과의 協同을 통하여 共同活用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6. 支援體制

첫째, 고등 교육 행정 체제에 있어서 外部行政이나 內部行政을 막론하고 보다 專門化, 民主化, 效率化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대학 총장의 통합적·정책 결정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세부적인 관리 기능은 대폭 하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行政要員을 전문화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獨自性과 自律性을 보장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교 행정 전반에 걸쳐 요청되나 특히, 大學行政의 특수성에 비추어 더욱 강력하고 절실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 시대에 있어서 대학 행정의 效率化를 기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秀越性을 보장할 수 있는 行政支援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 고등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自律性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학 자율 기구의 운영을 活性化하고 점차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학 행정 업무를 과감히 위임함으로써 대학의 責任行政을 유도해야 한다.

● 대학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企劃機能을 강화하고 대학의 행정 관리 요원을 전문화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經營管理技法의 도입과 아울러 대학 경영을 위한 情報管理體制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 교육 기관이 인력 공급의 효율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財源確保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상의 公共性과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유능한 인력 개발을 위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장학 제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절실히 요청되는 고급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시설의 개선·정비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는 高等教育基金(가칭)을 조성하여 대학의 연구비 또는 총 경비에 대한 보조 등 적극적으로고도 다양한 고등 교육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國家支援의 확충과 아울러 재정의 탄력적 활용으로 고등 교육 기관의 教育 및 研究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적 측면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고등 교육 기관의 社會的 公益性和 財政的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公開財政制度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Ⅳ. 맺음말

教育改革審議會 高等教育分科(제 3 분과)에서 잠정적으로 고등 교육의 발전 방향을 상기에서

제시한 秀越性的의 추구, 自律性的의 伸張, 多樣性的의 提高, 그리고 效率性的의 증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고등 교육 개혁의 과제들이 제기되고, 이러한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해결의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과제들이 수행된다.

高等教育分科에서는 전문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과제 이외에도 대학 정원의 적정화, 학원 자율화 시책의 정착, 지방 대학 육성 방안, 외국 유학 및 연수 제도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미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과 대학 시설 기준안 등은 연구가 종료되어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정책 연구 과제들이 연구·완료되어 한국 고등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으로 고등 교육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韓國教育』原稿募集

教育學學術誌 『한국 교육』 제 13 권 1 호에 掲載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公募합니다.

1. 原稿內容 : 한국 교육학 관계 연구 논문(미발표 논문에 한함)
2. 原稿枚數 : 200 자 원고지 70 매 내외  
(영문 요약 5 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3. 原稿接受 마감 : 1985. 7. 1 (1986. 8 월말 출판 예정)
4. 原稿提出處 : 한국교육개발원 출판실 {
5. 其他 : 제출된 원고는 出版審議委員會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原稿는 國漢文을 적당히 混用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567-5021 (교환 384)번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 教育改革 基盤造成的의 課題

尹 正 一\*

교육개혁의 成敗를 좌우하는 要因이나 條件에 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條件, 즉 改革案을 自律的·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行政體制의 構築, 改革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教育風土의 造成, 그리고 改革案의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教育財政의 確保는 가장 중요한 條件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教育改革案이 수립되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세 가지 條件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이는 上空空論에 지나지 않으며, 有名無實한 改革文書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많은 教育改革案과 教育計劃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들을 실천 가능케 하는 行·財政의인 支援策을 마련치 못하였거나 教育內外的인 與件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死藏시켰거나 본래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0년에 발표된 長期綜合計劃, 1972년에 수립된 高等教育改革案, 1974년에 실시된 高校 平準化 施策, 1980년의 7.30 教育改革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볼때, 현재 推進中에 있는 教育改革事業을 成功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우선적으로 充足되어야 한다고 본다.

## I. 教育의 自律性 伸張

教育行政이 그 본연의 역할인 支援·助長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 교육 행정 단위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自律

性이란 교육이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하고, 獨自的인 裁量權을 행사하되, 그 結果에 대하여 應分의 責任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地方教育行政機關이나 個別學校가 그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구를 自主的으로 설치하고, 組織發展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실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責務性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에 있어서 自律性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教育活動 自體가 專門的인 활동이며, 成熟한 집단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으며, 특히 地方과 單位學校의 特殊性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교육의 成果를 極大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自律性을 신장시키기 위하여는 教育行政의 民主化·自律化와 教育行政의 效率化·專門化의 두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 1. 教育行政의 民主化·自律化

教育現場의 실제적인 與件의 多樣性和 特殊性에 부합하는 教育行政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에 대한 決定權이 적정한 수준까지 下部行政機關으로 委任되어야 하며, 行政要員들이 創意性을 발휘하고, 自治能力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정도의 自律權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행정은 利害關係人이 많기 때문에 民主的인 과정을 통하여 수행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敎職者들은 專門性을 가진 집단이므로 自律性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教育行政의 運營方式은 학생들의 思考方式과 自

\* 教育改革審議會·第四分科專門委員; 서울大教授

治能力 培養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民主性과 自主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 1) 政策決定過程에의 參與擴大

教育行政의 民主化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要件 중의 하나는 정책을 樹立·推進하는 과정에서 參與機會를 확대하는 일이다. 參與機會가 확대되면 각계의 의견을 收斂하고, 衆智를 모아 반영함으로써 계획 내용의 妥當性을 높이고, 關聯人들의 利害關係를 조정하여 정책의 衡平性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정책에 대한 愛着心과 一體感을 형성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支持와 支援을 용이하게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教育改革審議會의 時限終了後에 교육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推進體를 구성·운영하거나, 中央教育審議會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教育政策의 一貫성과 安定성을 확보하고, 關聯人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制度的 裝置로서 教育行政節次法을 제정·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都市計劃 등의 분야에서 이에 적용하고 있는 立法豫告制를 교육 행정 분야에도 적용하여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 단계에서 意見收斂 및 參與機會를 갖도록 制度化해야 할 것이다.

### 2) 地方教育自治의 活性化

교육 행정에서 地域의 特殊性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실시하기 위하여는 中央集權의 行政體制로부터 地方自治制로 전환하여야 한다. 地方教育自治制는 地域住民에 의하여 選出된 代表로 하여금 교육 정책을 議決·執行하도록 하는 住民統制의 原理와 地方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을 自律的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地方分權의 原理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地方教育自治制는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地方自治制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市·郡과 市·道로 二元組織을 하고, 각각 教育委員會를 議決機關으로 하고, 教育監과

教育長(教育區廳長)을 執行機關으로 해야 할 것이다. 地方教育自治制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는 行政階層間의 機能의 再分配를 통하여 文教部는 企劃 및 政策開發機能을, 市·道教育委員會는 執行的인 업무를 주로 담당토록 함은 물론 地方教育自治團體의 組織과 人力을 확대·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地方教育自治團體가 財政的인 自立을 하는 문제는 教育自治의 성과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稅制改編을 통하여 地方教育財政을 擴充하는 한편 財政運營의 裁量權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政府로부터의 教育費 轉出金을 확대하고, 최소한 初·中等學校의 시설비를 地方政府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學校運營의 自律性 擴大

교육에 있어 基本的인 行政單位는 학교가 되어야 하며, 여타의 교육 행정 기능은 一線學校의 교육을 效率的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各級學校에 대한 세부적이고 劃一的인 행정 지시를 지양하고, 教育現場에서 創意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學校長 中心의 行政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學校長의 責任經營制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指示·報告事項을 대폭 감축하는 반면에, 학교에 自由裁量權을 확대하여 각 학교의 特殊與件을 반영한 學校運營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都給經費制度를 확대·적용하여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指示·監督·統制爲主의 정책으로부터 支援·育成爲主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高等教育의 경우에는 대학에 自律權을 대폭 확대·부여해야 할 것이다.

## 2. 教育行政의 效率化·專門化

행정의 效率化는 最小의 資源으로 最大의 成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는 組織 및 機能의 적절한 조정, 그리고 專門化가 요청된다. 행정의 專門化는 그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分化·發展시키고,

行政要員들의 資質과 능력을 그에 맞도록 신장 시킴을 의미한다. 교육 행정은 行政管理能力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專門知識이 요청되는 複合的인 專門領域이다. 따라서 教育行政의 專門化는 교육 운영의 效率化를 위하여는 물론 教育改革을 위한 필수적인 要件이라 할 수 있다.

### 1) 教育行政組織 및 機能의 再調整

새로운 行政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教育行政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現행의 교육 행정 조직 및 기능은 再調整되어야 한다. 行政機能의 民間委託, 中央機能의 地方委任, 行政組織 내에서의 業務分業 등 여러 측면에서 기능의 재조정 및 그에 따른 組織改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機能과 組織의 改編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업무와 새로 부각될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長期的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市·道 및 市·郡 單位에 있어서는 中學校 義務教育化에 대처하여 義務教育行政을 강화하고, 幼兒教育과 社會教育에 대한 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教育自治制와 관련하여 自律的으로 政策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行政體制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행정의 效率化를 위하여는 現代적 管理技法의 導入·活用, 行政簡素化 및 電算化 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教育情報資料 蓄積·活用の 體系化

교육 정보 자료를 體系의으로 축적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教育現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教育行政機關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意思決定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情報資料에는 現代적 教育理論·教育方法은 물론 외국,의 實態와 事例, 각종 先行研究의 結果, 각종 統計資料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各급 教育行政機關에 教育情報資料室을 설치·운영하고, 管理情報體制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情報資料室과 管理情報體制는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共同利用方式를 채택함으로써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全國 교육 행정 기관들 간에 電算組

織網을 구성한다면 時間과 人力을 절약함은 물론 명실 공히 교육 행정의 科學化·現代化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3) 行政要員의 專門性 向上

教育行政의 效率化·專門化는 교육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要員의 專門性이 向上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 교육 행정 요원에는 一般行政職과 獎學職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교육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올바른 理解, 그리고 行政管理에 대한 素養과 운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資質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誘致·確保하여 계속적인 再教育과 經驗의 축적을 통하여 能力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一般職의 경우에는 行政考試에서와 같이 모든 職級에서 教育行政職列을 분리하여 選拔하여야 할 것이다. 獎學職의 경우에는 適正規模의 학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장학 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獎學職의 定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職前教育과 계속적인 現職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資質과 專門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 II. 教育風土의 刷新

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주요 社會制度이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사회 제도들과 依存關係 내지 相互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制度와 內容을 결정하거나 改革한다는 것은 단지 教育制度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教育改革을 위한 基盤造成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존립하고 실시되는 社會的 風土, 즉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특성이나 구조적 성격 가운데서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健全한 教育風土를 沮害하는 요인들은 教育外의 要因과 教育內의 要因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교육 외적 요인으로서 序列的인 職業觀, 교육을 社會的 上昇移動의 수단으로만 보는 教育觀, 高學歷爲主의 賃金 및 고용 정책, 非教育的인 學校周邊環境 등이 있다. 教育內의



要因으로서의 劃一的인 教育內容, 행정 편의 위주의 學校運營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教育外的 風土의 淨化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은 心理的 環境과 物理的 環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環境的 條件들이 改善되지 않고는 教育改革에 대한 노력이 그 實效를 기대하기 어렵다. 教育外的 風土의 개선은 教育內的인 獨自的 努力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課題가 아니다. 이는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 全體社會의 課題이며, 政府와 기타 사회의 主要機關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社會에 팽배해 있는 誤導된 教育觀·職業觀, 부모의 子女觀, 學閥과 學緣爲主의 고용 관행과 學歷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처우, 非教育的인 社會環境 등은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教育改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國民意識의 제도, 賃金 및 雇傭政策의 개선, 教育에 逆機能的인 사회 환경의 정화 등과 같은 학교 밖의 教育風土가 우선 淨化되어야 한다.

#### 1) 教育發展을 阻害하는 國民意識의 改善

대부분의 국민들은 教育을 社會移動欲求 充足의 手段으로만 인식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는 교육을 출세나 간판을 얻기 위한 手段과 道具로 보는 教育觀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入試爲主의 학교 교육, 過熱課外, 再修生 增加 등과 같은 많은 교육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歪曲된 教育觀은 부모들의 子女觀이나 傳統的인 職業觀으로부터 연유된다. 부모들이 子女들을 자신들의 願望을 실현시키는 대상이나 이기적인 競爭心理 充足의 대상으로 보는 從屬的인 子女觀은 자녀들의 適性, 希望, 能力과는 관계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 官尊民卑의 사회 풍토와 士農工商의 職業觀은 교육의 均衡發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出世爲主의 그릇된 教育觀과 부모의 從屬的인 子女觀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國民意識改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에는 대중 매체와 社會教育을 통하여 國民啓蒙 및 弘報活動과 父母教育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教育觀과 職業觀을 형성시키기 위한 進路指導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雇傭 및 賃金政策의 改善

高學歷에 대한 教育熱을 비정상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產業社會의 學歷爲主의 雇傭 및 賃金政策이다. 利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企業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學歷別 賃金의 심한 격차, 高學歷의 高級人力에 대한 選好, 性別差等, 雇傭政策 등은 高學歷에 대한 需要를 증대시키면서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能力爲主의 雇傭政策과 生産性에 따른 報酬體系의 조정은 물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구분없이 일할 수 있는 직종 또는 직급에서는 고용과 처우에 있어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발전함으로써 良質의 우수한 勞動人力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產業社會가 발전할 수 있다는 相互依存關係의 바탕 위에서, 產業體는 雇傭과 賃金政策 改善에 솔선 수범해야 할 것이다.

#### 3) 非教育的인 學校周邊環境의 淨化

교육은 學校內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家庭과 社會教育보다 강력할 수 있으나, 學校教育의 成果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家庭과 社會가 教育的인 環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學校周邊環境은 무질서한 商行爲와 폭력 행위가 만연되고, 소음, 공해 등으로 오염되어 勉學雰圍氣를 해치고 학생들의 情緒的 發達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逆機能的인 社會環境을 順機能的인 環境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국민 계몽은 물론 당국의 철저한 행정 감독 및 단속이 발동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염된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한 生活指導 對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중 매체는 청소년들이 올바

른 價値觀을 형성할 수 있도록 學校周邊環境을 正화하는 사회적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學校內 教育風土 刷新

오늘날 학교는 가장 경직되어 있는 傳統의인 官僚 體제의 하나로서 학교에 대한 국민의 期待를 저버리고 있다. 학교는 다음 세대에게 바람직한 文化를 전수하고, 人間性을 회복시키는 데 中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는 人間性을 造成하는 教育보다는 知識教育, 그 중에서 특히, 入試準備教育이라고 하는 지엽적이고 파행적인 목표에 매달려 있다. 학생들은 점수 경쟁에 휘말려 적대감, 공포와 불안 등 情緒的 不安定 狀態에서 부정적인 인간 특성을 학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學校內의 教育風土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學生爲主의 學校運營體制를 확립하고, 深層의인 人間關係를 형성할 수 있도록 生活指導를 강화하고, 학생 각자의 個性이 존중될 수 있도록 學習環境을 多樣化하여야 한다.

### 1) 學生爲主의 學校運營體制 確立

학교의 最上의 目標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一線教育行政이나 學校運營體制는 행정이나 運營·管理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教育目標과 方法은 위에서 규정되어 전달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 成長目標, 必要, 個性, 興味로부터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학교의 施設, 教育課程 및 運營의 成功度는 개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얻는 所得과 滿足度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給水, 採光, 照明, 冷·暖房, 衛生 등의 施設條件은 적어도 成人들이 생활하는 평균적인 사무실 수준이 되어, 학생들이 마지 못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갈 수 있도록 학교는 그 魅力度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權威, 강제, 위협이라는 外部의 手段보다는 학생들의

內面에서 일어나오는 成長動機에 의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2) 深層의 人間關係를 위한 生活指導 強化

現代의 人間問題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인간 관계의 疏外에서 비롯된다. 근래에 만연되고 있는 이른바 不信風潮는 이러한 表皮的 人間關係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에는 경쟁적 분위기, 學校規模의 過大化와 학습의 過密化, 교사의 과중한 업무, 人間關係 技術의 미숙 등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相互間의 격의 없는 理解와 人間的인 접촉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生活指導와 相談活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深層的인 人間關係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個別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지도함은 물론 相談에 의해 그들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活性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서로 간에 상대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 내의 모든 構成員이 他人의 成長을 돕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여, 학교의 教育力이 보다 확장될 것이다.

### 3) 學習環境의 多樣化

학교가 목표로 하는 全人教育의 취지는 학생들의 전체 가능성이 유기적·통합적으로 實現되도록 제반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학교 교육은 편협한 知識偏重教育에 초점을 두어 왔다. 즉, 敎科教育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의 성과도 敎科目的의 이해도로만 평가되어 학문적인 것 이외의 학생들의 人間性 형성의 문제는 거의 도외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敎科教育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통합되어야 하며, 학교는 知的인 영역 이외의 바람직한 人間特性을 조화롭게 계발시키기 위하여 학습 경험을 多樣化시켜야 할 것이다. 敎科書와 칠판에만 의존하는 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특별 활동, 야외 캠프, 봉사 활동 등 사회적·심미적·정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平均學生 육성으로부터 個別化된 교육으로 전환하고, 評價도

학생들의 學業成就도를 全人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하고 非價例的인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대상은 학생의 學業成就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교사, 학교 환경 등에 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越班制와 留級制 등의 진급상의 융통성, 選擇의 다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생별 個人指導體制의 확립 등이 이를 위하여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 Ⅲ. 教育財源의 確保와 配分의 合理化

教育改革審議會가 제시하게 될 教育改革의 수많은 과제들은 거의 예외없이 새로운 財政需要를 誘發하는 것들이므로, 전체 教育改革事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總財政規模는 막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教育財源의 確保 여부는 곧 教育改革의 성패를 결정짓는 第一次의인 關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教育財源을 公共部門에 의존할 것인가 民間部門에 의존할 것인가는 政策的인 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財源 조달 방안의 결정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부담의 衡平性和 社會正義에의 부합 정도, 國民의 反應, 징수 및 관리의 問題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財源確保方案은 國民의 合意를 바탕으로 한 政策決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教育改革審議會에서는 국민 복지 향상 내지 국가 발전에 있어서 教育의 役割이 얼마나 중요하고, 教育發展을 위하여 어떠한 改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理解시키고, 이에 필요한 財政需要와 이를 確保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수립·제시하는 데 總力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 1. 安定教育財源의 確保

교육의 公共性和 국가 발전에 대한 寄與도를 감안할 때 教育財政은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에 따라서 確保方案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教

育財政은 國家百年大計인 教育 활동을 支援하기 위한 것이므로 安定的으로 確保되어야 한다. 둘째, 地方教育自治制가 실시될 경우 教育 재정에 대한 1차적인 責任을 地方自治團體에 부여하고, 中央政府는 지역간 教育 재정의 衡平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民間教育投資를 적극 유치하고 教育財源을 多樣化해야 한다. 넷째, 教育의 機會均等を 보장하기 위하여 教育費負擔의 衡平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學校級別로 教育費 負擔主體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基本原則에 따라, 教育 財源 確保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國家, 社會, 學生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중 特別交付率 환원, 教育稅의 徵收年限延長과 課稅對象 擴大, 地方政府로부터의 教育費 轉入金 擴大, 國土開發利益 還收制度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 또는 民間의 차원에서는 寄附金 및 教育誠金의 誘致·確保, 企業體의 教育投資 誘致, 人力活用稅 도입, 教育銀行 設置, 私學金庫設置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登錄金과 育成會費를 인상하여 現實化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教育費負擔의 衡平維持

국민의 福祉意識과 平等 및 社會正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所得과 富, 機會 및 公共便益을 균등하게 향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社會的 衡平에 대한 요청이 점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教育費도 貧富의 차에 따라 負擔上의 衡平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학부모의 負擔能力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逆進的인 성격을 갖는 公納金을 公費負擔으로 轉換하여 累進的인 내국세 수입으로 대체하여 稅負擔率을 대폭 인하하고, 低所得層 자녀에 대하여 학비 감면은 물론 獎學金, 貸與獎學金 등 移轉的 支出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私立學校가 대다수인 幼稚園

의 경우에는 納入金을 自律化하고, 國民學校의 경우에는 현재의 育成會費를 대폭 인상하되, 가정 형편에 따라 差等制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義務教育이 실시되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대로 教科書代를 징수함은 물론 育成會費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初·中學校 育成會費의 인상은 “義務教育은 無償教育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修正과 인식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高等學校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學生負擔과 國庫負擔의 형식을 취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國庫負擔을 지양하고 受益者負擔 原則을 적용하되, 專攻別 教育費 差異度를 반영한 學點單位當 納入金制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教育財政配分の 合理化

한정된 財源으로서 最大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확보된 재원을 效率的으로 配分·活用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年代를 對備하기 위하여 教育改革審議會가 제시하게 될 教育改革的 課題들은 무수히 많으며, 각 과

제들이 상당한 규모의 財政投資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優先順位를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財政投資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地域間·學校間의 교육비 배분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配分基準을 재조정하고 衡平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學校數, 學級數, 學生數를 기준으로 하는 劃一的인 배분을 지양하고, 地域的 特殊性과 학교의 特性이 반영될 수 있는 配分基準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事業別, 教育 프로그램별 投資優先順位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企劃豫算制度나 예산의 낭비적 要素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零根據豫算制度(ZBBS)의 활용이 절실히 요망된다. 철저한 費用—效果分析을 통해 投資優先順位를 설정하고, 수행하려는 계획 또는 사업과 豫算編成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재정 운영의 效率性을 극대화할 수 있다. ◆

### 現場教育相談問題 公募

【 教育現場에서 겪는 問題나 그 밖의 教育에 관한 質疑事項을 간략하게 적어(形式:自由) 보내 주시면 專門家의 명확한 應答과 함께 本誌에 掲載해 드리겠습니다. 】

단, 內容에 따라 公開應答해 줄 필요가 없는 質疑에 대하여는 質疑者에게 個別的으로 應答해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事項을 보내실 때는 所屬, 職位, 姓名을 明記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江南區 牛眠洞 山 20-1

韓國教育開發院 出版室

우편번호 : 135

# 現代 教育哲學의 研究方法

—社會哲學의 教育和 韓國教育의 研究—

정진곤\* · 조경원\*\*

## I.

현대 教育哲學의 研究動向을 要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 명희<sup>1)</sup>도 지적한 바와 같이 教育 철학 연구 동향에 관한 설명은 教育 철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나, 이제까지 教育 철학의 성격에 대해 학자들 간의 合意된 觀點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傳統적으로 철학은 宇宙의 本質, 인생의 意味, 삶의 倫理的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과 같이 심오하고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經驗論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의 分析哲學者들은 종래의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은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 眞僞가 밝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철학적 탐구의 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 철학의 입장을 현대의 모든 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석 철학이 등장한 이후 현대의 철학자들이 종래의 철학의 성격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教育학의 성격에 관한 논의도 철학의 성격에 관한 논의 못지 않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sup>2)</sup> 이 역시 서로 다른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철학과 教育학을 어떤 형태로든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教育 철학의 성격에 관한 합의된 견해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의 教育 철학의 성격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教育 철학의 연구도 서로 다른 견해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글 속에서 教育 철학의 여러 가지 연구 동향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자의 독단적인 見解이거나, 혹은 매우 皮相의인 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한편으로 이러한 종류의 논의가 한국 教育의 연구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저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다양한 서양 教育 철학의 연구 동향 중, 현재 우리 나라의 教育 철학계에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sup>3)</sup> 社會哲學的 혹은 批判哲學的 입장의 教育 철학 연구의 方法論의 특성을 살펴본 후, 그 입장이 한국 教

\* 서울대학교 강사

\*\* 이화여대 교수

1) 한 명희, 『교육철학』, 서울: 배영사, 1983, p. 62.

2) '83년과 '84년도에 발행된 『정신문화연구』와 '85년도에 발행된 『교육개발』에서 김 신일, 이 돈희, 장 상호 등이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이 세 사람의 공통된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教育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W. Feinberg, C. A. Bowers, B. Gowin, H. Browdy F. McMurray, J. Burnet 등에 의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역시 합의된 견해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3) 사회 철학적, 혹은 批判哲學的 教育학에 대한 소개는 한 명희의 『교육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이 책에서 현대 教育 철학의 主流을 20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概觀하고 있다. 전자의 主된 흐름으로 本質主義, 恒存主義, 進步主義 등을, 후자의 주된 흐름으로, 분석철학, 실존주의와 現象學, 비판철학적 教育학을 후자의 주된 흐름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성격상 비판적 教育 철학의 연구 방법론과 한국 教育에 대한 시사점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육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示唆點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 글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

## II

사회 철학, 혹은 비판 철학은 인간이 사회의 역사·문화·교육·정치·경제 등을 창조해 가지만, 한편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이러한 사회 제도는 그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의 行動樣式, 思考方式, 價値觀, 情緒, 感情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辨證法的 方法론을 통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철학의 세부 영역—인식론, 가치론, 형이상학, 논리학, 미학 등—에서 탐구된 철학적 지식을 根幹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나, 철학 외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탐구되어진 여러 지식들을 함께 받아들여,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종합 과학적(Interdisciplinary)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사회 철학적 입장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론적 배경은 롤즈(J. Rawls), 매킨타이어(MacIntyre) 등과, 프랑크푸르트 학파<sup>4)</sup>에 속한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W.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프롬(E. Fromm), 하버마스(J. Habermas) 등의 사회 철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상 사회의 주요 규범들—자유, 평등, 정의—의 본질적 의미와 이들을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는 데 저해가 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현 사회 제도가 이러한 규범들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는 것 등 다양하지만,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호르크하이머의 다음과 같은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사회 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 사회 관습, 사상, 문화, 거의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정치·제도 등을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

여 사회 성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가를 밝히고, 또한 왜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여러 사회 제도—정치, 경제, 문화, 교육—와 관련하여 탐색해 보는 것이다.<sup>5)</sup>

한편, 사회 철학적 입장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교육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기존 사회를 유지·존속시켜 주고, 재창조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문화적 脈絡과 관련지어 탐색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교육이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술, 지식, 행동 규범, 문화 등을 현재 혹은 미래의 사회 성원들에게 전수하여 주며,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사회 규범에 비추어 비판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어떤 지식이 時空을 초월하여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가치로운 지식인가, 혹은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주어진 사회 속에서 왜 그것들이 좀더 가치로운 지식으로 看做되어지는가, 또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은 表面的, 혹은 潛在的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과 사회 의식을 전수하는가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 제도와 관련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 철학적 교육학의 탐구 대상과 접근 방식의 특성은 현대 교육 철학의 또 하나의 주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분석 철학적 입장의 교육학 연구와 대비하여 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후자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앞서 말한대로 종래의 대부분의 철학적 논의가,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혼동하고 착각함으로써 개념적 혼란 속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분석 철학자들에 의하면, 철학의 본질적 문제는 여러 학문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模糊性을 감소하고 曖昧性을 제거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 이론 전개상에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을 가려내어 그 논의가 명백한 논리적 바탕 위에 진

4) 프랑크 푸르트 학파에 관한 책은 매우 많지만 필자는 이 학파의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 있는 Martin Jay의 「*Dialectical Imagination*」, Boston; Little, Brown, 1973을 먼저 읽도록 권하고 싶다.

5) M. Horkheimer, *Critical theory*, N. Y.; Continuum, 1982. p. 270

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철학적 입장에서 교육을 연구해 온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훈련', '교화', '학습' 등의 용어와 '교육'과의 차이를 밝히거나, 교육받은 사람'의 준거를 일상 언어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고, '命題的 知識'과 '方法的 知識'의 구분, 혹은 학교 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의 分類方式 등을 탐구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분석 철학적 교육 학자의 대표적 학자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터스(R. S. Peters)는 '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교육'은 '改造'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교육받았으나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내 아들이 개조되었으나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하튼 순진히 개념적인 문제이다. 교육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내용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교육에 대한 분석 철학적 접근에 대한 사회 철학자들의 주요 불만의 하나는 분석 철학적 입장의 교육 학자들이 '교육'의 개념을 분석할 때, 주로 개인의 心理的 變化 상태에 초점을 맞추므로 인해서, 교육의 문제란 개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문제라는 認識을 심어 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석 철학은 교육의 주변을 둘러싸고, 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교육과의 관계를 度外視했거나, 혹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나 指針을 거의 제공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sup>7)</sup>

### III

그러면 사회 철학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탐구하여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철학의 연구 방법론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철학의 연구 방법은 종종 精神分析學者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비유되어 설명되어진다.<sup>8)</sup> 정신병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때 精神科 의사는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直說的으로 反駁하거나, 환자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일단 의사는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 행동을 세밀히 관찰하여, 그 얘기 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의사는 환자의 얘기와 행동을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해석하고, 재 조직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와 그 상태의 원동력이 되는 무의식과를 연결시켜 現 症狀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정신병 치료는 증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 스스로 이 병을 고쳐 나감으로써 정신병은 치료되어진다.

사회 현상에 대한 이러한 사회 철학적 연구 방법은 분석 철학과 함께 현대 철학의 또 하나의 주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또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현상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회 성원들의 행동, 혹은 행위의 의미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현상 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인식의 形態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삶의 세계'와 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社會哲學者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달리 말하여, 인간의 認識作用과 의식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사회라는 空間性과 歷史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형성되어진다. 가령 "X가 소나무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X가 소나무 자체라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장아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현대라는 역사적 시점에 살고 있는 한국 사

6) R. S. Peters (ed.), *The Concept of Education*, London; R. & K. P. p. 2.

7) 교육에 대한 분석 철학적 접근에 대한 한계와 그 대안은 K. Harris, W. Feinberg, C. A. Bowers, M. Carnoy, M. Greene 등의 저서에 잘 제시되어 있다.

8) J. Habermas, *Human Knowledge and Interests*, Boston; Beacon Press, 1968, pp. 214~245.

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것처럼 인식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현상 학자들은 사회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인간의 경험, 혹은 인식 작용을 아무런 先入見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社會哲學의 들은 일차적으로 現象學의 들의 이러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치 정신 치료가, 환자가 하는 행동이나 내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사회 현상의 탐구는 행위자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被研究者가 그릇된 의식(false consciousness)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sup>10)</sup>도 있을 수 있는데, 연구자가 오직 彼 연구자의 의식, 혹은 인식 구조의 이해에만 만족할 경우, 어떤 점에서 그와 같은 의식이 그릇된 것이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철학자들은 歷史的, 經驗的, 現象學의 연구를 통하여 被研究者가 그러한 그릇된 의식을 소유하게 된 社會構造와 要因을 밝히고, 또한 무엇이 그것들을 維持·強化시켜 주고, 혹은 消滅시켜 주는 데 기여하는 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 IV

끝으로 필자는 이러한 사회 철학적 입장의 교육학이 한국 교육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概括的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한국 교육 연구에 관한 綜合科學的(Interdisciplinary) 연구의 필요성이다. 사회 철학적 입장의 교육학은 앞서 살펴본대로 교육 현상이나 행위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정치·문화·경제적 맥락하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현상은 이러한 맥락들과의 관련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의 문

제를 연구할 때도 교육 학자들이 교육학 이외의 다른 人文·社會科學者들과 좀더 폭넓은 학문적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한국 교육을 종합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학 내에서도 교육을 心理學的·行政學的·文化人類學的·社會學的·哲學的·歷史學的 입장에서 연구하는 각 전공 영역의 교육 학자들 간에 좀더 학문적 대화의 폭을 넓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 철학적 입장의 교육학은 한국 교육에 대한 종합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학자들이 한국이라는 사치 문화적 공간과 역사적 맥락하에서 진행되는 한국 교육의 현상이나 행위를 연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사회 철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의 存立自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과학, 특히 사회 과학의 탐구 대상인 사회 현상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현대의 한국 교육은 高麗, 李朝, 日帝植民地, 解放, 美軍政時代를 거쳐 왔으며,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현 한국 교육의 모습은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여, 현 한국 교육 속에는 여러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흔적의 참된 의미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연구를 진행할 때,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한 시대의 교육의 목표, 혹은 방향, 방법, 내용들이 그 당시 어떠한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 시대의 교육을 主導·管掌하였던 정치가나 교육가들이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러한 교육의 목표나 내용들을 피교육자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으며, 왜 그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9) 박 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서울; 일조각. p. 88.

10) 그릇된 의식을 소유한 경우란, 어떤 집단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의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는 오직 黨爭의 역사였다”거나, 혹은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統治能力이 없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있다면, 그 한국인은 그릇된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릇된 의식의 일례는 영화 ‘soldier story’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 한국 교육 속에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으며, 왜 그러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또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教育史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현 시대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당연하게 혹은 그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들—을 그 뿌리로부터 파헤쳐 봄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김 경동의 일제 시대에 사용된 修身 교과서와 대한 민국 정부 수립 후 문교부가 처음으로 만든 국민 학교용 ‘도덕’ 교과서의 比較研究에 의하면, 이 도덕 책에서 제시된 “道義教育”의 상당한 부분이 반공 사상의 고취에 기울어져 있으며, 이 점만 빼면 일제 시대에 사용되던 修身 교과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우리에게,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심어 주려고 했던 도덕성이나 사고 방식의 본질을 좀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쳐 그 사상의 근본을 確認·檢討하지 못한 데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또한 해방 후의 교육 속에 자주 민족으로서 추구해야 될 참다운 교육의 방향, 혹은 내용과 어긋나는 植民主義的인 價値規範들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역사적 연구와 함께 또한 현재의 한국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은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 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경제가 등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 교육은 한국의 정치·경제·종교·문화 등과 어떠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교육 연구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것들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眞摯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영역과 탐구 방법,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등은 기존의 서구 학문으로부터 빌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학문이 설명해 줄 수 없는 혹은 한국 사회라는 독특한 역사, 문화적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교육 문제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개념 구조를 통하여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교육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교육이 수행되는 사회·역사·정치·문화적 맥락은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서구의 이론을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나름의 교육 이론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11) 김 경동, 教科書分析에 의한 韓國社會의 儒教價値觀研究, 『李相伯博士 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1964, p. 35.

## 高等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李 容 淑\*\*

### I. 序 論

이 研究는 1983년의 “國民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와 1984년의 “中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에 이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금년도의 研究對象은 '84년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서독, 프랑스 등 6개국이다. 연구 대상 학년은 대체로 우리 나라 고등 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10학년부터 12학년 까지를 基準으로 하였다. 그러나, 나라마다 학년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美國은 15~17세의 上級中等學校(Senior high school : 9~12학년 혹은 10~12학년), 日本은 15~17세의 高等學校(10~12학년), 英國은 15~17세의 綜合學校(10~12학년), 프랑스는 16~18세의 리세(Lycée : 10~12학년), 西獨은 16~18세의 김나지움 上級段階(11~13학년), 스웨덴은 16~19세의 김나지 스킨라(Gymnasie Skola : 10~13학년)를 對象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1983년과 1984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國家 또는 州水準에서 개발된 教育課程 指針인 “教育課程文書”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는 1983년판 뉴욕주 “교육 과정 개정안”과 1982년판 뉴욕주 “중등학교 교육 과정 지침”을 분석하였다. 영국은 “학교 교육 과정 지침”(教育·科學省, 1981년)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1978년에 개정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등 학교 학습 지도 요령”(1978)을 분석하였다. 프랑스는 1977년 새 “고등 학교(Lycée) 교육 과정 개발 지침”과 “고등 학교 교과별 교육 과정”(1981), 서독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김나지움 상급 단계 교과별 교육 과정”(1981), 스웨덴의 경우는 새로이 개편된 “고등 학교 새 교육 과정 개요”(1982)등을 중심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 II. 教育課程 特性的 比較

#### 1. 高等學校 教育制度

스웨덴, 영국, 프랑스, 서독 등 4개국에서는 高等學校 統合化的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즉, 高等學校의 종류에 따라 大學進學 可能性, 教育課程, 學生들의 社會的 背景에 있어 격차를 갖게 되는 分화된 高等學校制度에서부터 점차 탈피하여, 적성, 능력, 가정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같은 학교에서 학습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코스를 각기 다르게 택하는 統合高等學校制度를 신설·확장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高等學校統合化的 정도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스웨덴은 이미 1971년 人文系學校, 商業系學校, 工業系學校, 專門學校, 職業學校 등의 高等學校를 통합한 김나지 스킨라(Gymnasie skola)를 신설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점차 확대 실

\* 이 글은 이 용숙, 김 영준, 이 근남 3인이 쓴 1985년도 보고서 “高等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教育課程研究部 教科書國際比較研究室長·哲博

시하고 있는 중이다. 스웨덴의 統合高等學校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찍이 1930 년경부터 高等學校의 統合化를 실시하여, 현재 綜合高等學校가 전체 高等學校의 약 90%에 이를 정도로 통합화에 성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高等學校의 지나친 統合化가 고등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제시되기 시작해 왔다. 그러나, 綜合高等學校를 대신할 만한 다른 유형의 학교 형태에 관한 시도는 아직 없다.

일본의 경우, 1965년 전체 高等學校의 38.6%에 달하던 “總合校”가 1982년에는 28.5%로 줄었을 정도로 오히려 反統合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시 교육 심의회”에서는 앞으로 中·高等學校의 일부를 6년제의 中等學校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中等教育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실시 형태의 하나로서,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의 복합 또는 통합 교육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는 일본에서 종합 고등 학교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고등 학교의 통합화 문제는 교육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비교 대상 6개국은 모두 최소한 9년간의 의무 교육 규정을 갖고 있어서, 전기 중등 단계까지는 完全한 대중화를 이루었지만, 義務教育後 中等教育段階인 고등 학교 단계에 있어서는 해당 연령층의 반 이하가 진학하는 영국, 프랑스에서부터 리커런트 제도를 병행한 스웨덴 그리고 12년까지 의무 교육(직업 학교 취학 의무 포함)을 받아야 하는 서독에 이르기까지 고등 학교의 취학과 관련한 실제적인 운영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보통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 학교의 수업 연한도 2년에서 4년까지로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한 나라 안에서 학교의 종류나 계열에 따라 수업 연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 있어서도 서독,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進級査定을 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낙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

으나, 개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낙제가 허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 이후 직장에 진출한 사람들도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職場과 병행하여 고등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리커런트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제도 실시 이후, 高等學校, 大學校의 進學率이 현저히 문화되었다는 사실은 대학 입시 지원자의 끊임없는 증가가 汎社會的인 문제로까지 되고 있는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 2. 教育課程 開發過程

高等學校 教育課程 開發方式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中央集中式 開發方式과 地方分權式 開發方式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될 수 있겠다.

최근까지도 공식적인 教育課程文書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教育課程開發이 地方分權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실질적인 교과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그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여러 개의 教育課程 對案 가운데서 적합한 것을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 각종의 교육 과정 대안들을 만드는 곳도 정부가 아니라, 각종의 教授-學習 資料나 教科書 발행 회사들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全國的인 초·중등 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1981년 教育·科學省에서 20쪽의 “學校教育課程”을 발행하였다.

서독의 教育課程開發도 地方分權的이지만, 영국의 경우처럼 각 학교나 교사들이 教育課程의 선택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학교 현장의 대표자들이 학계의 대표나 州 文敎部 전문가 등과 함께 州 教育課程 개발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일단 현장 實驗과 檢討를 거쳐 확정된 州 教育課程指針은 州內의 모든 학교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또한 州 文敎部長官會議(KMK)를 통해 각주의 교육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教育課程 開發도 서독과 같이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문교부와 주 교육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教育課程指針書를 개발하면

지역 학교구는 州政府의 평가와 감독 하에서 개발된 教育課程 指針書의 각 영역을 상세화하거나, 주 교수 요목이 없는 교과에 대한 교수 요목을 개발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학교나 교사들의 참여도는 서독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3개국은 中央集中式 教育課程 開發方式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교부 장관의 책임하에 학부국 장학관들이 개발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으며, 國立教育資料 센터가 개발 실무를 전담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개발된 초안은 “教育課程委員會”와 교사, 학부모, 노동 조합 대표 등에게 제시되어 검토된 후, 다시 “中央教育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이 된다.

일본의 教育課程인 “學習指導要領”은 문부 대신이 “教育課程審議會”의 자문·심의를 거쳐 개발·공포하게 되어 있다. “教育課程審議會”의 역할은 특히 중요한데, 開發·改定の 기본 方向을 제시할 뿐 아니라 教育課程의 內容을 검토하고, 전국의 교육 위원회, 전국 고등 학교장 협회, 학교 현장, 연구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教育課程開發·改定作業을 맡고 있다.

스웨덴 역시 國立教育局의 “高等學校委員會”가 教育課程開發을 주관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의 여지는 대단히 많다. 우선 “高等學校委員會” 자체에도 숙련된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 과정 시안으로 實驗授業을 행한 후에 발생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된 교육 과정 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教育課程開發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나라마다 教育課程 開發樣式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教育課程 開發作業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며, 현장 교사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이 외에도 학부모 모임, 노동 조합같은 비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教育課程이 홀로 存在하지 않는 “社會的인 共同產物”로 되고 있다.

### 3. 教育課程文書의 體裁

教育課程文書의 基本體裁는 나라마다 상이하 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表 1>과 같다. 다음에는 <表 1>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教育課程文書와 관련지어 체제상의 특징을 비교·서술 하고자 한다.

서독의 경우는 교육 과정 문서 자체가 교과별로 된 29개의 分冊으로 되어 있어 우리 나라 교육 과정에 비해 수십배의 분량이다. 예컨대, 서독의 國語科 教育課程은 45행 181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 學習組織, 授業方法論, 중요한 教科概念, 評價 등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教科關聯內容을 풍부히 실고 있다. 프랑스는 合卷으로 된 教育課程을 갖고 있지만, 각 교과의 교육 과정을 學年別로 제시하고, 교과의 목표와 내용을 취급하는 방식에 관한 具體的인 補充說明을 정작 목표와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실고 있다. 따라서, 1학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國관 561 페이지에 달하는 교육 과정이 발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 문서 자체는 각각 國별판 100 페이지, 國관 160 페이지 정도로 國관 398 페이지인 우리 나라 “고등 학교 교육 과정” 보다 그 分量이 오히려 적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각 과목별·주제별로 상세한 “교수 요목” 또는 “교과별 해설서”를 발행하고 있어, 교사들의 실제 授業運營에 큰 도움을 주는 指針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의 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자료가 거의 없는 우리 나라에서 정부 발행의 教育課程文書가 피상적인 수준의 目標, 內容, 評價指針만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이상적인지 살펴볼 必要가 있겠다.

### 4. 教科運營上的 特徵

고등 학교의 教科의 編制와 그 時間運營에 있어서도 각 나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각 나라의 教育課程은 제각기 교과의 性格(選擇, 必須) 교과의 運營, 교과별 時間配當 등 教育課程運營의 여러 구체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一般化된 모습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表 1〉

教育課程文書の體裁

국 가	기본 문서의 이름	크기 및 분량 (근 사 치)	기본 문서의 형태	기타 교육 과정 운영 관련 자료
미 국 (New York 주)	· 중등 학교 교육 과정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1983)	국배판 100 페이지	뉴욕주 교육 과정 기본 문서인 “중등 학교 교육 과정”은 총론과 각론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중, 각론은 각 교과 의 학습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개괄적인 주 수준의 기본 지침에 불과하다.	· 교수 요목(syllabus) · 학습 과정 개요 (course outlines) · 보조 교재 (supplementary material)
서 독 (NW 주)	· 김나지움 상급 단계 교과별 지침서 (Gymnasiale Oberstufe, Richtlinien 1981)	국판 각권 150~300 페이지	29 개의 교과 교육 과정이 분책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각 교과별 교육 과정 속에는 교과에 걸쳐 내용이 동일한 총론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관보(Amtsblatt) · 교육 및 시험 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스웨덴	· 고등 학교 교육 과정(Upper Secondary School Information, 1982)	국배판 각 계열별 4 페이지 (졸업장사본 제외)	합편으로 된 교육 과정은 없고, 25 계열 과 특수 코스의 교육 과정이 26 개의 “안내문”(brochure)과 같은 간략한 체제로 되어 있다.	—
영 국	· 학교 교육 과정 (The School Curriculum, 1981)	국판 20 페이지	기본 문서인 “학교 교육 과정”은 초·중 등 교육을 모두 관장하는 문서로서,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지방 교육 당국과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 실제 교육 과정
일 본	· 고등 학교 학습 지도 요령(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1979)	국판 160 페이지	고등 학교 영역의 총론과 교과별 각론이 합편의 형태로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 교과별 해설서
프 랑 스	· 고등 학교 1학년 (Classe de second des lycees.) · 장기 중등 교육 (Le second long conduisant au baccalauréat d'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1980)	· 국판 561 페이지 · 국판 241 페이지	기본 문서의 고등 학교 1학년과 장기 중등 교육은 합편의 형태로서 서두에 시간 배당을 다루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각 교과의 교육 과정을 학년별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의 교육 개혁 · 후기 중등 교육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이들 국가의 경우 多様な 教科科目을 개설하고 있고, 必須 科目의 數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系列 혹은 科目選擇의 여지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특히, 西獨의 경우 각 교과가 학습 수준에 따

라 基礎課程(주당 3시간)과 專攻課程(주당 6시간)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英國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一般資格試驗의 상급 수준 과목들과 보통 수준 과목들을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各자의 다양한 能力과 適性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같은 選擇의 幅이 큰 教育課程 編成方針은 全人教育과 教育의 質的 改善의 側面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美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制度로서, 能力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大學水準의 講座를 제공하며, 그 결과를 대학에서도 學點으로 인정해 주는 일종의 學力向上 誘引體制인 고급 배치 프로그램(Advanced placement program)을 우리도 연구해 볼 만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英才만을 위한 獨立의인 特殊學校의 設立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행하면서도 社會的 逆機能을 비교적 배제할 수 있는 制度라 여겨진다.

教科編成에 있어 유럽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哲學, 心理學, 法學, 教育學, 社會學 등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에서나 다루어지는 科目들이 必須 또는 選擇科目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사고력, 분석력과 같은 高等精神機能의 培養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高等學校에서도, 이런 교과목의 개설은 검토해 볼 만하겠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수업 시수의 10%를 학교장이 自律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가 西獨의 “학습 모임”(Arbeitsgemeinschaften), 혹은 스웨덴에서 예비 시간을 두어 進路教育, 周邊問題學習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授業時數를 1單位 미만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教科運營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 5. 評 價

각국의 評價制度 중에서 후기 중등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教科活動 評價의 측면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英國, 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全國學力評價制度이다. 이 試驗制度는 학교별, 학생별 상대 비교를 행하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표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과목별 학업 성취 수준의 동향을 파악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시험 결과는 각 學校에서 教科指導 등에 참고로 쓰일 뿐 아니라, 教育課程改定 등 전국적인 교육 운영상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어떤 影響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教育制度에 대한 평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운영에 따라서, 대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의 학업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學校의 平準化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장학의 차원에서 학교의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검토해 볼만한 制度로서 미국의 뉴욕주 教育課程改定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간 학교구 종합 평가 보고서”(CAR: Comprehensive Assessment Report)를 들 수 있겠다. 이 제도는 한 지역구가 教育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效率的으로 教育課程運營을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西獨·프랑스의 學生 評價制度를 살펴보면 거의 “學力”만을 측정하고자 행해지는 우리나라의 評價制度와는 달리 다양한 評價形態—全國의 學力·適性檢査, 각 학교의 筆記試驗(論文式 포함), 口頭試驗, 集團評價 등—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조로운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이들 각 나라의 評價形態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겠다.

또한, 프랑스와 西獨의 엄격한 進級審査制度의 운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의 完全에 가까운 자동 진급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이 入學한 學生들이 거의 동시에 卒業하게 되는 현행 제도보다는 월반·낙제 제도 등을 확대, 적용하여 進級과 卒業 연한에 융통성을 둬으로써, 교육의 질적 向上을 도모하며 동시에 大入過熱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6. 大入選拔制度

우선 6個國의 大學入試制度를 표로 만들어 <表 2> 개관한 다음 각국의 選拔制度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英國, 프랑스, 西獨 등 유럽 국가들의 國家試驗은 우리나라의 大入學力考査와는 形態가 매우 달라 고등 정신 기능을 측정하는 논문 형식이 지배적이며 구술 시험이 포함되기도 한다. 試驗科目數도 2~6개 정도로 적으며, 대신에 과목별 시험 시간은 3~5시간으로 길게 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고 있고, 동시에 科落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西獨의 아비투어 시험

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大學入學資格試驗인 동시에 高等學校 卒業資格試驗이라는 特徵을 갖고 있다.

高等學校 內申 반영 제도는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각 학교 내에서의 일률적인 상대 평가로 등급을 정하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英國·美國·日本 등에서는 大學入試에 내신 성적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는 完全히 각 大學의 재량 사항으로 반영 여부나 반영 방법이 劃一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이 내신 성적에 포함되기도 하며, 스웨덴에서는 “직장 생활 경험”이 내신 성적과 함께 학교 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반드시 학생들의 學力만이 내신의 기준이 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大學入試制度의 또 하나의 特徵은 “先試驗 後志願”의 제도를 사용하면서도 합격의 기회는 단 두 번밖에 없다는 것이다. 西獨, 프랑스 그리고 美國, 英國의 대부분의 大學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全國의인 學力檢査 결과(혹은 適性檢査 결과)와 內申成績을 이미 알고 대학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선시험, 후지원의 입시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한 학생이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거나, 대학 입학 사정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의 지망을 고려하여 학교 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입학의 여부가 결정되는 우리 나라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表 2

各國의 大學入試制度

국 가	전국적인 시험	출제 방식	대학별 시험	고교 내신 성적
미 국	학업 적성 검사(SAT) 또는 미국 대학 검사(ACT)	객관식 주관식(문답식 포함)	소논문 시험 (사립 일부)	대부분 포함
서 독	아비투어 시험	주관식(문답식 포함)	없음	73% 반영
스 웨 덴	없음	—	없음	포함
영 국	교육 일반 자격 시험 (GCE) 보통 수준, 고급 수준	주관식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등 극히 일부	대부분 포함 대부분 포함
일 본	국공립 대학 공통 학력 시험(1차 시험)	객관식	학력 시험, 면접, 소논문, 실기(2차 시험)	
프 랑 스	바칼로레아	주관식(논술 시험, 구두 시험, 때에 따라 실기 시험)	없음	포함되지 않음

이와 같이 先進國들의 大學入試制度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大學入試制度의 단점으로 단조로운 教科書 위주의 객관식 學力考査,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학교간의 격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劃一的인 상대 평가 제도로서의 내신 성적 반영, 그리고 적성 실력보다는 눈치나 행운에 의한 大學 및 전공의 선정을 조장하는 제한적인 先試驗 後志願 制度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高等學校教育의 方向을 좌우할 大學入試制度의 改善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先進國

들의 入試制度의 장·단점과 우리 나라에의 適用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Ⅲ. 結 論

최근, 각 나라는 고도의 산업 기술 발전과 점점 첨예화되어가는 國際競爭時代를 맞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後期中等教育段階의 教育課程을 개선하고자 가일층 노력하여 왔다. 이들 改善의 方

向은 크게 “教育의 平等化”와 “質的인 改善” 두 가지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두 개의 개선 방향 중 어느 쪽에 어느 만큼 比重을 두고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상이하였다.

美國의 경우 최근의 改善 움직임은 거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教育의 平等化運動에 의해 달성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지나쳐서, 高等學校教育의 質的인 低下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改善을 위해 高等學校教育이 大學教育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학문적 교과와 컴퓨터 教育을 포함한 기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個別化된 學習을 위하여 학생들을 재조직해야 하고, 연간 수업 일수와 卒業 단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教育課程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개선의 방향이다.

전통적인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美國과는 달리 아직도 教育의 平等化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모든 계층의 學生이 다닐 수 있는 統合高等學校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학생들이 學問中心의 教育뿐 아니라 實用的 技能을 길러주는 教育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義務學校 卒業 후 사회에 진출했다가 언제든지 高等學校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리커턴트 제도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善의 움직임은 美國이나 스웨덴처럼 “平等化”나 “質的 改善” 중의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프랑스의 경우 1975년 아비 장관의 “프랑스 教育制度의 近代化를 위한 提言”이 제시하였던 “民主化로의 指向”과 “學力의 伸長”은 계속 改革의 目標로 남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콜레쥬 드 프랑스가 제시한 “未來의 教育을 위한 9가지 提言”을 토대로 하여 教育內容을 近代化하고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基礎教育을 철저히 시키고, 教育의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15년 이내에 고등 학교 입학자수를 늘이고 동시에 바슈리에의 比率를 현재 약 60%에서 늘어난

고등 학교 정원의 약 80%로 증가시킨다는 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최근에 지나친 入學試驗 위주의 教育 등 소위 教育의 荒廢化 현상을 불식시키고 날로 尖銳化하고 있는 국제 競爭時代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教育制度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제3의 教育改革”을 단행하기 위해서 1984년에는 臨時 教育審議會가 설치되었는데, 85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個性重視, 基礎技能의 重視, 創造的 思考能力과 表現力의 育成, 選擇機會의 擴大, 教育環境의 人間化, 生産學習體系로의 移行, 國際化 및 情報化에 대한 對應 등이 改革의 基本的 思考方向임을 밝힌 바 있다.

오늘날 英國 中等教育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수의 학생에게 질 높은 教育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學問的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科學”과 같은 教育課程開發의 必要性이 최근에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6+ 시험의 “教育一般資格試驗”(GCE) 普通水準과 “中等教育資格試驗”(CSE)을 통합하여 “中等教育一般資格試驗”(GCSE) 制度를 신설하고, 職業教育을 받은 학생을 위한 17+ 시험인 “前職業教育資格試驗”(CPVE) 制度를 신설하는 등 시험 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中等教育資格이나 大學入試資格 혹은 職業教育資格 등을 獲得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西獨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구체적이며 計劃的인 教育課程 開發運動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形態로 신설된 김나지움 上級段階의 균형적인 발전과 職業教育과 普通教育의 등가성의 確立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김나지움 上級段階의 教育內容이 大學에서 요구하는 학력에 충분치 못하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의 경우에는 상급 단계로의 입학 조건 및 진급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先進 6個國의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제 측면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으나 어떤 정형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教育課程 改善을 위한 他山之石이 될 수가 있다. —◆



# 特殊兒童의 判別과 教育的 措置에 관한 研究

尹 點 龍\*

## I. 緒 論

인간 존중의 정신과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민주主義 敎育理念과 사회적 요청에 따라 特殊敎育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특수 교육에 관한 關心이 高潮됨에 따라 就學의 機會를 넓히기 위해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이 대폭 증설되었고, 사립 특수 학교도 중학교 과정까지 無償敎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敎育課程과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특수 아동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번 국가적으로 특수 교육의 擴充과 內實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특수 교육 과제는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特殊敎育對象 兒童을 조기에 判別하여 그들의 獨特한 教育的 要求에 알맞은 조건을 구비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現在 우리 나라는 특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重症 障礙兒童들의 判別은 큰 문제가 없으나 輕度障礙로 判別이 곤란한 일반 국민 학교의 특수 학급에서는 特殊兒 判別에 대한 行政制度의 미비, 判別 담당 교사의 지식 부족, 判別 전문가의 不在, 그리고 적합한 判別 도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判別基準은 1977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 실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數值 區分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모든 要因을 고려한 종합적인 判別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물

론 어떠한 기준이든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관련 전문가의 해석과 이로 인한 한 개인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法的인 制度的 裝置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준을 修正·補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必要性和 함께 特殊敎育現場에서는 判別을 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으며, 특수 교육 政策立案者들도 관련 연구물의 부족 현상을 통감하여 이 분야의 연구물을 요청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特殊兒童을 명확하게 判別하기 위한 判別基準(案)을 設定하고 判別에 필요한 判別道具 및 方法을 탐색하며, 이들의 障礙程度에 따른 教育的 措置方案과 制度的 裝置를 構案하는 데 그 目的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고찰 및 각종 자료 분석, 현장 실태 조사, 그리고 專門家 協議會와 檢討 등 다양한 研究方法을 활용하였다.

## II. 特殊敎育對象者 判別基準(案)

### 1. 判別基準의 改正方向

1) 장애별 判別 기준은 하나의 指針에 불과한 것이지 判別을 決定하는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더라도 判別委員會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判別 기준안의 범위를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기준의 폭을 넓혔다.

\* 敎育發展研究部·研究員

2) 現行 基準에는 취학 학교 및 학급(특수 학교, 특수 학급)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였으나, 메인스트림 교육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3) 종래의 판별은 測定한 數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數値 못지않게 임상적인 結果나 觀察의 비중이 커졌으므로 수치에 의한 기준은 지양하였다.

## 2. 障礙領域別 判別基準 改正案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을 정신 지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장애 및 자폐증, 언어 장애, 학습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 영역별로 판별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精神遲滯(mentally retarded)

•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에서 동일 연령층이 갖는 일반 지능의 평균에서 표준 편차 -2 이하의 지능을 갖고, 適應行動은 -1 편차 이하인 경우.

### 2) 視覺障礙(visual handicaps)

• 시력 손상이 심해 시력을 교정하더라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정 시력이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교육 시설이나 학습 매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 聽覺障礙(hearing handicaps)

• 청력 손상이 심해 보청기를 가지고도 청각을 통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청각 능력상의 장애 때문에 일반 교육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

### 4) 肢體障礙(physical handicaps)

• 신체 기능 및 형태상의 심한 결함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

• 만성적(혹은 급성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체력, 활동적, 민첩성에 결함을 갖는 경우.

### 5) 情緒障礙 및 自閉症(emotional disturbance & autism)

(1) 정서 장애 : 다음의 특성 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증상이 長期間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① 지적, 신체적 혹은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는데도 학업 성적이 부진함. ② 동료나 對人關係가 만족스럽지 못함. ③ 정상적인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냄. ④ 늘 불행해 하고 우울한 기본으로 생활함. ⑤ 학교나 개인 문제에 연관된 정서적인 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통증이나 심한 공포감을 느낌.

(2) 자폐증 : 지적 능력과는 관련없이 생후 30개월 이전에 나타나는 發達障礙症候群으로서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언어, 인지 능력, 대인관계, 그리고 사물이나 사건 처리 능력에서 결함을 갖는 경우.

### 6) 言語障礙(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 말더듬, 음운 장애, 음성 장애, 어법상의 결함과 같은 의사 소통상의 결함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

### 7) 學習障礙(learning disabilities)

• 정신 지체, 정서 장애, 환경·문화적 결핍과는 관계없이 언어와 문장의 이해나 활용과 관련된 기본 심리적 과정에 결함을 가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셈하기, 철자 쓰기, 사고 능력 등의 한 분야 이상의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 Ⅲ. 特別兒童의 判別道具 및 方法

특수 아동의 판별 및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되는 道具의 종류에는 표준화 검사, 비형식적 도구, 작업 표본 분석, 과제 분석, 관찰, 檢目標(checklist), 평정 척도, 면담, 질문지 등 다양하며 査定의 목적, 대상, 인력 및 전문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활용할 수 있다.

特殊兒童의 사정 결과는 그들의 교육 및 관련 서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을 자칫 일반인과 분리시켜 별도 취급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실시 과정과 검사 결과 해석이 신뢰롭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檢査實施에 있어서 검사자의 훈련, 물리적, 심리적 검사 환경의 조성은 신뢰로운 검사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특수 아동의 選別과 診斷의 評價에 필요한 情報은 기초 사항에 관한 정보, 교육 진도에 관한 정보, 가정 배경 및 생육력 조사,

의학적 평가, 심리·행동적 검사의 결과 등이다. 이 중에서도 판별에 필요한 주요 情報源인 心理·行動的 檢査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행동적 검사 영역은 워낙 다양하여 이 글에서는 지능, 학업 성취, 언어, 지각·운동, 인성·적응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각 檢査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知能檢査

특수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知的能力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적 능력이 그들의 學業成敗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特殊兒童의 지능 측정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로는 첫째, 검사 특점이 精神遲滯 현상을 암시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검사방법을 적용해 보아야 하며 둘째, 검사 실시 당시 아동의 表出能力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그 아동의 基本能力을 예언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며 셋째, 틀에 박힌 점수는 항상 最小限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 學業成就 檢査

학업 성취 검사는 특수아의 選別과 教育措置의 目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검사의 결과는 개별 교수 계획과 교수 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3. 言語檢査

言語機能은 회화적 기능(oral language skill)과 문자적 기능(written language skill)이 있으며,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査定에서는 두가지를 모두 검사하여야 하나 判別에서는 주로 회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 4. 知覺·運動檢査

지각·운동 과정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능동적 과정이며, 지각·운동 학습은 획득한 정보가 관련 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 處理過程을 방해하는 장애를 知覺·運動障礙로 간주한다.

## 5. 人性 및 適應行動 檢査

인성 검사의 측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태도 척도, 일반적 성격 및 정서 발달 측정, 흥미 및 嗜好測定, 행동 특성 측정, 自我概念 測定이 있으며, 性格을 査定하는 主要技法에는 투사적 기법, 평정 척도, 自己報告式 測定, 상황 측정, 관찰법 등이 있다.

障礙領域別로 特殊兒童 判別에 필요한 檢査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신 지체아 : 지능 검사, 사회 적응 능력 검사, 학력 검사

- 시각 장애아 : 시각 감도(시력) 검사, 視機能 검사

- 청각 장애아 : 청각 감도(청력) 검사, 聽機能 검사

- 지체 장애아 : 발달 검사, 정형 의과적 검사, 재활 의학적 검사, 지각·운동 검사

- 정서 장애 및 자폐아 : 非行豫測檢査, 문제 행동 관찰, 자폐 행동 검사, 지능 검사, 인성 검사

- 언어 장애아 : 조음 검사, 구문 법칙 검사, 어휘 및 문장 검사, 발성 및 조음 기관 검사; 지능 검사, 청력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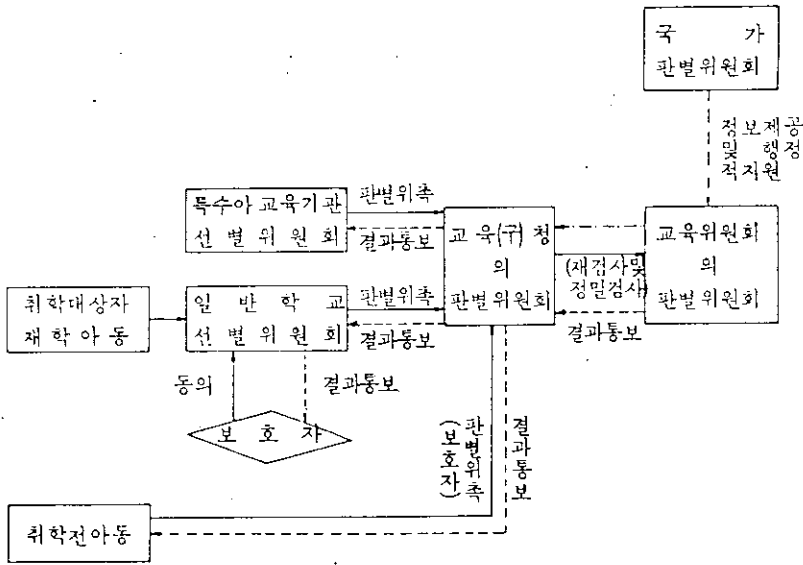
- 학습 장애아 : 표준화 학력 검사(읽기, 쓰기, 산수, 철자), 청각 및 시각 검사, 언어 검사, 운동 기능 검사

위에 소개한 검사는 특수아들을 判別하기 위한 최소한의 檢査이며, 重複障礙兒의 判別이나 個別教育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사가 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Ⅳ. 特殊兒童의 教育的 措置와 判別制度

### 1. 特殊兒童의 教育的 措置

특수아의 교육 조치는 특수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最小로 制限된 環境의 제공을 기본 원리로 한다. 프로그램의 多樣化를 위해 현재의 특수 학급과 특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을 일반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기타 시설로 구분하고, 각 교육 기관별로도 細分



[그림 1] 특수아의 판별 제도

化하여 구체적으로 특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적 조치를 할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향을 장애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精神遲滯兒는 高齡化 될수록 지체의 정도가 심하므로 적응력을 감안하여 점차로 分離教育을 강화해 나간다.

2) 視覺障礙兒는 시력을 중심으로 特殊學校보다는 특수 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교육하여 主流教育을 강화함이 좋다.

3) 聽覺障礙兒는 의사 소통 능력과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특수 학급을 중심으로 융통성있게 조치하며, 저학년에서는 治療와 보상 교육에 치중한다.

4) 肢體障礙兒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지역사회 내의 교육 기관, 의학적인 豫後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며, 심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하지만 가급적이면 일반 학급에서 교육함이 좋다.

5) 情緒障礙와 自閉兒의 教育的 措置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학급에서 그 대책을 강구함이 좋으나,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특수 학급과 같은 분리된 교육 기관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치료와 지도가 요망된다.

6) 言語障礙는 他障礙와 중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타영역의 교육 기관에서 조치함

이 일반적이며 순수한 언어 장애는 일반 학급에서 교사의 助言이나 資源教室 활용으로 그 대책을 강구한다.

7) 學習障礙兒도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특수 학급이나 특수 학교가 필요하지만 대개 일반 학급에서 뒤떨어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特殊兒童의 判別制度

現行 실시되고 있는 市·道 單位의 判別委員會制는 담당 의원의 전문성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수행에는 애로점이 많다. 따라서 市·道 判別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 관청인 教育(區)廳 判別委員會를 구성하여 현행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教育(구)청 단위의 판별 위원회는 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教育(구)청간의 협조나 市·도판별 위원회의 협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결국, 판별 제도의 구성은 중추 기관인 教育(구)청 판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부 기관으로 市·도 판별 위원회와 국가 판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위 기관으로는 학교 단위에 선별 위원회를 둔다. 判別制度를 간략하게 圖式化하면 [그림 1]과 같다.

選別·判別委員會의 構成 및 役割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一般學校의 選別委員會

人的 構成은 교장, 교감, 교무, 연구 주임, 담임, 교의, 양호 교사로 하며 특수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특수 학급 교사도 포함시킨다. 主業務는 재학생, 신입생 및 전입생 중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할 것같은 아동을 선정하여 교육(구)청 판별 위원회에 판별을 위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관장한다.

#### 2) 特殊兒 教育機關의 選別委員會

인적 구성은 교장, 교감, 교무, 담임 및 요육 교사, 판별 담당 교사로 이루어진다. 이 선별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 내지 치료한 결과에 근거하여 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선정하여 교육(구)청 판별 위원회에 再檢査나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 3) 教育(區)廳 判別委員會

학무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관내의 취학 대상자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판별 업무의 행정적 감독과 책임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특수 교육 담당 장학사로 하고 위원은 담당 의사 2명, 특수 학교 교장 및 교감 1명, 특수 학교(급) 교사 2명, 심리 검사자 1명으로 한다.

주된 업무는 전문 위원에게 검사 의뢰, 장애자의 교육적 조치 방안 강구, 시·도 판별 위원회에 재검사 의뢰, 검사 결과 통보, 각급 학교 선별 위원회 운영의 지도 등이다.

#### 4) 市·道 判別委員會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학무국장) 1명, 부위원장(특수 교육 담당 장학사) 1명, 위원 16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일은 판별 의뢰된 아동들의 전문적 검사와 교육(구)청 판별 위원회의 취약 지역 지원, 구역내의 판별 실무자 교육, 판별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이다.

#### 5) 國家 判別委員會

이 위원회는 실제적인 판별 업무보다는 判別의 評價, 方向 設定 및 이론 정립에 역점을 두고 하위 기관이 判別業務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이 없도록 行·財政의 支援을 하는 곳이다. 인적 구성은 문교부 특수 교육 관계자, 특수 교육 전문가, 의사, 사회 사업가, 심리 학자 등으로 한다.

## V. 結 論

이 연구에서 규명한 특수 아동의 判別基準과 教育的 措置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배려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1. 特殊兒童의 정상적인 판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아의 판별은 國家的 次元에서 적극적인 노력없이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판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制度化하여야 한다. 둘째, 判別委員會를 구성하는 專門 人力 養成이 시급하다. 즉 심리학자나 심리 측정 전문가, 요육사, 검안사, 청력 검사 전문가 등 각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판별 위원회에서 활약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판별의 기본 요건인 신뢰롭고 타당한 檢査道具의 開發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教育(區)廳 判別委員會를 중심으로 학교나 市·道敎委會에 판별을 하기 위한 기본 시설이나 기구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 학교 교사들도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을 選別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도록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서는 「特殊教育學 概論」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여 이수토록 해야 한다.

2. 특수 아동은 그가 갖는 障礙로 인해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므로 정상 아동보다도 더욱 더 早期教育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수 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制度的 確立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早期發見 體制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妊産婦의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의학적·교육학적 相談指導 체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둘째는 분만 후부터 乳·幼兒期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定期 건강 진단이 필요하며 끝으로 특수아의 申告가 義務化되어야 한다. ◆

## 教育投資規模와 收益率

孔 銀 培\*

### 1. 研究의 概要

우리 나라는 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1985년도 文教豫算은 2兆4,000億원으로 정부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이 부담하는 公·私教育費까지 포함시킨 直接教育費의 규모는 문교 예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실로 거대한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규모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적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追加財政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教育投資規模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가 없다면 합리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난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망스럽기는 매 년도 이러한 자료가 분석·추출되어야 하지만, 私教育費가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으로 방대한 조사를 거쳐서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적인 교육 투자 규모의 파악이 결코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년도 이러한 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3~5년을 주기로 連動的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수행되었으

며, 1985년도 교육 투자 규모의 종합적인 분석은 물론 더 나아가 投資收益率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투자의 총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公教育費의 규모 및 私負擔 정도, 사교육비의 규모 및 背景의 特性에 따른 지출 패턴, 학교 급별, 機會經費, 교육 투자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세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教育投資 收益率을 학교 급별로 분석하였고, 산출 결과의 時系列的인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이 교육 투자의 방향 설정에 주는 示唆는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였다.

교육 투자 규모의 분석을 위해 공교육비는 문교부 예산과 시·도 및 시·군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및 문교 통계 연보 등을 활용하였고, 사교육비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총 3,880명을 표집·조사하여 회수된 2,714명(회수율 70%)의 결과에 의해 산출하였다. 그리고 機會經費는 노동부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교육 투자 수익률은 限界投資收益率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 급별로 追加教育에 투입되는 교육비와 그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소득)을 일치시키는 內的 收益率 "r"을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산출 결과와 관련해서 학교 급별, 연도별, 성별 추이와 수익성 등을 비교·논의하였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과정에 따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제시한다.

\* 教育發展研究部教育經濟研究室長·責任研究員

## II. 教育投資 規模

### 1. 公教育費

학교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인 공교육비의 규모는 총 4조 6,599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校費 86.2%, 육성 회비 13.2%, 학도 호국단비 0.6%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설립별로 보면 총 공교육비의 61.4%가 국·공립, 38.6%가 사립 학교 교육비로 밝혀졌다.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 학교가 33.2%, 대학 24.8%, 고등 학교 18.4%, 중학교 17.9%, 전문 대학 4.4%, 그리고 유치원이 1.3%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가 6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운영비 19.5%, 시설비 17.2%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규모는 문교 예산의 1.87배에 해당되는 것이며, GNP의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교육비 규모 중에는 私負擔이 사립의 경우는 78.3%, 국·공립은 24.8%로 전체 평균 45.4%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급별로 보면 고등 학교가 73.7%로 가장 높으며, 국민 학교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총 공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大學이 1,216.5천원으로 가장 높고, 專門大學 855.7천원, 高等學校 397.6천원, 中學校 299.8천원, 國民學校 318.5천원, 幼稚園 190.6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1인당 사부담 공교육비는 학교 급별로 모두 사립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립 학교 학생의 私負擔率이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공교육비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해 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에서 고등 교육의 경우는 최근으로 오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의 증가가 학생수의 증가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교육비 중에서 사부담의 비중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私教育費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의 학교에 재학할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배경별 영향은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1인당 私教育費는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幼稚園 23.4천원, 國民學校 32.5천원, 中學校 35.1천원, 實業系 고등 학교 38.2천원, 人文系 고등 학교 56.8천원, 專門大學 80.3천원, 大學 86.5천원의 지출 규모를 나타냈다. 사교육비의 항목별 지출 경향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課外活動費,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副教材代, 고등 교육 단계에서는 教材代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도시, 도시, 읍·면의 순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지역별 격차는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둔화되고 있다. 한편, 설립별로는 전반적으로 사립 학교 학생이 국·공립 학교 학생보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사교육비 총량 규모는 약 4조 6,9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國民學校 33.6%, 高等學校 22.4%, 中學校 20.8%, 大學 17.5%, 專門大學 4.1%, 幼稚園 1.6%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61.0%, 사립이 39.0%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68년, '77년, '82년, '85년의 종단적 비교에서 '77년의 경우만 이 경향에서 예외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樣相을 GNP 대비 비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바, 연도별로 각각 4.5%, 2.2%, 4.1%, 6.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3. 機會經費

기회 경비는 상급 학년, 학교에 진급·진학함으로써 발생하는 遺失所得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년별·연령별 소득을 추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회 비용을 산출한 결과 中學校 6.5천원, 高等學校 16.2천원, 專門大學 59.5천원, 大學

87.8천원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이며, 성별로는 여자의 경제 활동 參加率과 就業率이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남자에 비해 높은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1인당 기회 경비에 학생수를 적용하여 총 기회 경비를 산출하는데 그 경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4. 總教育費

直接教育費(공·사교육비)와 기회 경비인 間接教育費를 합한 총 교육비의 산출 결과는 <表 1>과 같다. 1985년도 총 교육비는 10조 7,264 억원으로 GNP의 15% 수준에 해당된다. 이러한 총 교육비를 학교 급별로 보면 國民學校 29.2%, 大學 26.2%, 高等學校 21.1%, 中學校 17.3%, 專門大學 5.1%, 幼稚園 1.2%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57.2%를 점하여 사립에 비해 비중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교육비를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로 구분하면, 직접 교육비의 규모가 9조 3,559 억원으로 전체의 87.2%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교육비 중 私負擔 교육비는 6조 8,129 억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다. 총 교육비에 대한 사부담 교육비의 비중은 幼稚園이 88.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國民學校가 51.3%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설립별로는 사립 학교가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총 교육비 수준은 학교 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大學 2,960천원, 專門大學 2,254천원, 高等學校 1,048천원, 中學校 657천원, 國民學校 643천원, 그리고 幼稚園 425천원으로 산출되었다.

### Ⅲ. 教育投資 收益率

교육 투자 수익률은 교육의 費用과 收益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內的 收益率 "r"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용은 교육 투자 규모에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였고, 수익은 노동부 자료의 학력별·연령별·성별 소득에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 그리고 生存率을 학력별·연령별·성별로 적용하여 추정된 소득을 기초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수익률은 사회적·개인적 수익률로 학교 급별에 따라 推定되었는데, 그 결과가 <表 2>에 제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高學歷일수록 교육 투자의 사회적·개인적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대학이, 여자의 경우는 專門大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實物資本投資收益率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적 할인율 12~15%, 개인적 할인율 2~5%를 가정하면, 개인적 수익률은 중학교 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 급별에서 收益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수익률은 전문 대학의 여자와 대학의 남자의 경우만이 교육 투자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 1985年度 學校級別 總教育費 水準 (단위: 10 억원)

학 교 급 별	총교육비 (A)	직접교육비 (B)	사부담 교육비		C/A (%)	C/B (%)	D/C (%)
			계 (C)	공교육비 (D)			
총 계	10,726	9,359	6,812	2,117	63.5	72.8	31.1
국·공립	6,132	5,725	3,571	709	58.2	62.4	19.8
사립	4,594	3,631	3,241	408	70.6	89.3	43.4
유치원	134	134	118	44	88.0	88.0	37.4
국민학교	3,125	3,125	1,604	26	51.3	51.3	1.6
중학교	1,852	1,810	1,450	474	78.3	80.1	32.7
고등학교	2,263	1,908	1,682	631	74.3	88.2	37.5
전문대학	543	402	337	143	62.2	84.0	42.3
대학(교)	2,809	1,978	1,622	800	57.7	82.0	49.3



〈표 2〉 1985年度 學校級別 教育投資 收益率

(단위: %)

학교급별	사회적 수익률		개인적 수익률	
	남	여	남	여
중 학교	11.2	0.8	12.9	2.2
고등학교	7.6	9.0	7.6	9.5
전문대학	13.2	14.9	14.1	16.2
대 학	14.5	11.0	14.8	11.6

이상과 같이 분석된 결과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수익률보다 개인적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우리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선정된 국가의 경우보다 우리 나라가 교육에 대한 政府의 支援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대의 경향, 즉 初·中等學校의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의 先行研究들과 時系列的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高等教育의 수익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즉 외국에 비해 高等教育의 수익률이 높고, 또 우리 나라의 과거 산출 결과에 비해 고등 교육의 수익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모두 勞動市場의 학력별 임금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V. 結 論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학교 교육에 투자되는 직접 교육비는 GNP의 13%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직접 교육비는 公教育費가 49.8%, 私教育費가 50.2%로 거의 절반씩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에 간접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실로 거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直接教育費의 재원은 거의가 사부담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교육비 중 64%가 사부담이며, 국민 학교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비중은 80% 이상에 달한다.

셋째, 학생들은 막대한 私教育費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증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증가 경향은 公교육비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지출이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衡平財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사교육비의 지출은 전반적으로 가정의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 소재 학교일수록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단계가 낮을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배경의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지출 경향은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安定性있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 투자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증가는 크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수의 증가에 비해 公教育財源의 증가가 未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 투자 수익률은 고등 교육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 투자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고등 교육일수록 높다. 이러한 양상은 '70년대 초반까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純經濟學的인 관점에서 보면 고등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교육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고, 노동 시장의 정확한 조명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示唆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론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公教育費 재원을 안정적으로 確保할 수 있는 방안,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公교육비화 할 수 있는 방안, 학교 급별로 교육 투자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教育投資規模의 주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교육 투자 효과도 보다 심층적으로 分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의 경주를 제언하고 있다. ◀

## TV 中學英語 프로그램의 授業에의 活用方法

李 阮 基\*

### I. 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授業에 活用하겠다는 생각은 일상적인 교실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혹은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에서 출발한다. 특히, 영어(외국어)의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교사가 제공해 주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필요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提供해 줄 수 있고, 따라서 일상적 교실 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는 더욱 크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活用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첫째,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 進度 맞추기에 바쁘다.

둘째, 教師 자신의 업무 부담(수업+학생 생활 지도+잡무)이 너무 많아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교수 매체의 도입·활용을 귀찮게 생각한다.

셋째, 教師가 비디오 媒體의 特性和 效用性 및 效果의인 活用方法을 접하거나 익힐 機會가 극히 적다.

네째, 프로그램의 活用을 위한 기본·시설(텔레비전 수상기, VTR,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업에의 活用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學校에서의 活用可能性과 그 效果에 대한 學校 경영자 및 교사들의 새로운 認識과 더불어 TV 프

로그램 活用施設을 갖춘 學校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活用 시설이 갖춰진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活用하는 방법을 보면 방송된 프로그램을 錄畫하여 ‘그대로’ 수업에 투입하고, 투입 전후에 교사가 약간의 설명을 첨가해 주거나 자습 시간(혹은 자율 학습 시간)에 일방적으로 투입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活用 방법은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과 일상적인 교실 수업에서의 부족한 점 보충이라는 프로그램의 活用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것은 교사의 지도없이 학생이 가정에서 스스로 시청하는 것과 그 效果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企劃·制作하고 KBS 제 3TV를 통하여 방송하는 『중학 영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성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프로그램의 학교 수업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活用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中學英語」 프로그램의 性格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방송용 프로그램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채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소수의 통제 가능한 視聽者(학생)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자료 프로그램

\* 教育放送本部·研究員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서 영상 자료 프로그램이란 학교의 授業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업 목적과 수업 활동에 부합되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을 말하고, 방송용 프로그램이란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교수 활동을 하는, 즉 교실 교사의 지도없이 시청자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학 영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수업에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시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 교사의 講義式 진행이 때때로 불가피하게 된다.

둘째, 교과 교수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Middle School English book 1, 2, 3. 한국 교육 개발원 편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방학 특집 프로그램 등에서는 교과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란 주로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TV로 영상화하기 부적당하거나 영상화할 가치가 적은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다. 텔레비전의 매체적 성격에 맞는 내용, 영상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選定·組織되지만, 프로그램의 전체적 성격은 교과서에 바탕을 둔 교과 교수용 프로그램이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英語는 ‘말’이므로 ‘말’의 속성에 맞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말’(意味와 機能)로서 보다는 ‘글’(文法 및 文章構造) 위주로 가르치고 배워온 종래의 교수-학습 방법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수십 년간 길들여져 온 이러한 타성이 단기간내에 크게 改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영어 교육 종사자들의 職中研修가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교사의 職中研修가 보다 강화되고, 교과서의 개편, 방송을 통한 영어 듣기 평가의 실시, 생활 영어 지도의 강조 등에 힘입어서 종래의 영어

교수 방법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은 지역간의 격차나 교사의 개인차 등을 극복하고, 동일 내용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傳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이다. 또한, 매체 자체의 특성상 읽기, 쓰기 등의 ‘글’의 영역보다는 듣기, 말하기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말’의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종래의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해왔던 측면—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영어 원어민의 말과 언어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모방하고, 익히고 실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듣기—수용하기—발화하기의 세 과정과, 이 세 과정의 반복을 강조함으로써 영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들 중 생활 영어나 문장 독해 혹은 문법·구문 등도 흔히 대화체로 재구성하여 각각의 내용에 관련된 자연스런 언어 행동을 보여주고, 대화로 들려주는 것은 학생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나 문장, 대화의 상황 등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문자로 표현되어있고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 사용하고 練習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의 상황은 人爲的 性格이 매우 강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스런 언어 행동과 언어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활자로 되어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映像化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들—주로 원어민의 발음과 영어가 사용되어지는 자연스런 언어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화자들간의 역할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사를 대신하여 전체적으로 授業을 담당할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은 아니며 다만, 일상적 학교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측면을 補充해 줄 수 있는 참고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TV 중학 영어 프로그

램은 스튜디오 교사를 필요로 한다. 주로 가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시청하도록 勸獎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대한 (교실)교사의 사전·사후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내에 한국말을 사용하는 교사가 함께 출연하는 原語民의 도움을 받아 단어, 문장, 대화, 발음, 용법, 용례 등을 번역하고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진행해 간다. 그러나, 스튜디오 교사의 프로그램내에서의 역할과 활동 방향 등에 관하여서는 改善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授業을 할 경우엔 교수 내용과 관련된 특정의 언어 행동(즉 교과서 중의 내용)을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화)참여자(participants)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인서트<sup>1)</sup>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교실교사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속의 스튜디오 교사가 하는 活動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의도적인 教授活動을 직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Ⅲ. 프로그램의 授業에의 活用方法

현재 방송되고 있는 중학 영어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직접 投入한다든지(방송 시간대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프로그램을 錄畫하여 그대로 투입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을 볼 때, 수업에의 활용으로서는 의미가 적다. 이 프로그램은 放送用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텔레비전을 이용한 교수(TV-teaching)라기 보다는 비디오를 이용한 교수(video-teaching)이라고 일컬어야 적합하다.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직접 教室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경우엔 video-teaching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이 프로그램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전제로서 학교가 갖추어야 할 프로그램 활용 시설의 정도를 정하고, 거기에 基礎하

여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學校授業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條件은 VTR 2대와 칼라 텔레비전 셋트(20 인치 이상) 4대가 설치된(특별)교실의 마련이다. 하나의 교실에 최소한 4대의 텔레비전 셋트가 필요한 것은 학급당의 학생수 과다와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 그리고 음량 조절의 문제들 때문이다. 또 VTR은 錄畫와 編輯을 위하여 2대는 필요하다. 이 조건의 설정은 매 영어 수업 시간마다 T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두번 정도로 특별히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매 수업 시간마다 TV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投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녹화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目標, 教授內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또 하나의 VTR를 이용하여 실제로 授業에 투입할 부분(주로 원어민을 통한 발음 연습 부분과 언어 행동을 극화한 인서트 부분이 될 것이다)을 따로 編輯하여 錄畫해 둔다. 이때 스튜디오 교사의 활동이나 설명 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따로 적어 두었다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엔 주로 극화된 언어 행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영어로 작성한다. 이 질문들은 초기엔 학생들이 인서트를 보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Yes/No question이나 wh-question들로 구성하고, 점차 프로그램의 활용회수가 늘어가고 학생들이 익숙해져 감에 따라 학생들 자신의 經驗이나 意見を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구성해 나간다. 즉, Gurrey의 3단계 질문 유형<sup>2)</sup>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 질문들은 교사가 직접 육성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미리 인쇄하여 나누어주어 학생들의 긴장과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하면 다음의 'A'와 같은 내용엔 'B'와 같은 종류의 질문들이 準備될 수 있을 것이다.

1) 言語行動을 劇化한 짜막한 映像資料

A

Barbara: Hello.  
 Fred: Hello, May I speak to Alice Johnson, please?  
 Barbara: Just a minute Alice, It's for you,  
 Alice: Hello, Alice speaking.  
 Fred: Hi, Alice, This is Fred, Would you like to go to a movie tonight?  
 Alice: Thanks I'd love to. I haven't been to a movie for a long time.  
 Fred: Good. I'll pick you up around seven-thirty, then.  
 The movie starts at eight.  
 Alice: Fine, I'll be ready.

B

- i)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scene? who are they?
- ii) What does Barbara do when she first answers the phone?
- iii) Why does Fred telephone Alice? How do you know it?
- iv) Where do they promise to meet?
- v) How does Alice feel when she was suggested to go to a movie by Fred?/ How?...
- vi) What would you do (say) first if your friend asks you to go to a movie together?

그 다음 정작 TV를 이용한 授業時間엔, 사전 지도로서 그 시간에 공부할 주요 내용과 학생들이 해야 할 學習活動들을 간단히 소개해 준다. TV 영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으로나 학교의 여건(자주 이용할 수 없다는) 등으로 볼 때 그 이전까지 배웠던 학습 내용을 複習하고 補充·深化해 주는 目的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듣기·말하기 技能의 訓練을 위한 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서 교사는 준비한 편집된 프로그램(인서트 부분)을 보여주고 방금 視聽한 것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한다. 등장 인물은 몇명인가? 누구와 누구간의 대화인가? 무슨 일에 관한 것인가? 등장 인물들간의 관계는 어떤가? 등에 관련된 질문을 Yes/No식, 혹은 Wh-식으로 제시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답하게 하고 그 답이 옳은지 틀린지를 학생들 스스로가 確認할 수 있도록 질문의 답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장면을 정지 동작 혹은 느린 동작으로 다시 보여준다(VTR 조작: 유선 혹은 무선 원격 조종 장치 이용).

또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討論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과정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能動的 參與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체 학생을 4개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각 소집단들에 다른 질문을 提示하여 학생들이 토론을 하여(이 때 처음엔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갈수록 영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교사는 유도한다) 그 소집단 단위로 답을 내게한 다음, 그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장면을 정지 동작 혹은 느린 동작으로 보여주어 확인하게 한다. 만약, 討論에 의해 나온 답이 틀리는 경우엔 그 장면을 보여줄 때 학생들에게 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주도록 한다.

학생들이 答을 말할 때엔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을 써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제 3단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教師는 말의 뜻이 너무 통하지 않는다거나, 학생의 발음이 너무 큰 誤謬를 범하고 있지 않다면 일일이 수정해 줄 필요는 없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교사는 그 학생에게 보다 긍정적인 강화를 주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는 일에 대하여 지나친 防禦姿勢를 취하지 않도록

2) E. W. Stevick, "Technemes & the Rhythm of Class Activity" in H. B. Allen & R. N. Campbell(1972).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 90) McGraw-hill Publishing Co. U. S. A.

1 단계 질문: 주어진 내용 '중'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

2 단계 질문: 주어진 내용 속에 답이 내포(imply)되어 있는 질문.

3 단계 질문: 주어진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 자신의 생활과 경험 들을 토대로 답할 수 있는 질문.

특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프로그램의 음량을 완전히 줄여 場面만 보여준 다음, 그 장면에 적합한 말(대화)을 재생하게 하는 연습도 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즉, 앞에서와 같은 學習活動을 다 하고 난 후의 정리 단계 활동으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발전적 반복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는 能力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로 思考하는 능력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TV 영어 프로그램을 授業에 活用할 때,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提示할 질문을 만드는 일과 학생들이 提示된 질문(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답을 추출해 내도록 유도하는 일이며, 또한 그를 위한 條件들을 提供해 주는 일이다. 이 때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평상시의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를 보다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영어를 사용할 때엔 자신의 발음이 학생들이 模倣하는 모델 발음이 된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하여 항상 正確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TV 프로그램을 授業에 이용하려고 하는 教師自信의 의도대로 전체적인 수업의 방향과 細部事項들이 결정되었지만 영어가 사용되는 자연스런 상황과 자연스런 언어 행동을 학생들로 하여금 접하게 할 수 있고, 또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 작용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에서의 核心이다.

#### IV. 結 言

텔레비전 중학교 영어 프로그램의 授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프로그램 출연 교사의 役割과 活動을 다른 각도에서 대신해야 한

다. 즉 번역과 설명, 원어민의 발음에 대한 간단한 언급 정도의 출연 교사의 활동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相互作用 및 活動을 유도하고 보다 쉽게 해 주는 활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이용이 교사 수업의 대체가 아닌 하나의 학습 보조 자료로서의 활용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계획된 전체적인 授業過程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할 부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VTR의 조작법과 그 특성을 확실히 터득하여 기계 조작의 미숙에서 오는 學習缺損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이 프로그램 중에서 수업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負擔(수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연구·분석하고 편집·녹화한 다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의 연구 및 그를 위한 事前準備)이 뒤따르는데, 사전 준비에 드는 교사의 이러한 부담이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활용률을 낮추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용하려는 교사들의 성의와 노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英語教育의 커리큘럼과 부합되는 방송 커리큘럼과 거기에 따른 방송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적극적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에 맞지 않은 내용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매체의 浪費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英語教育에 있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교사의 肉聲授業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 라면,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갖추는 일과 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行·財政의으로도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다. ◆

## 初等學校 兒童學力向上을 위한 유네스코 亞細亞·太平洋地域會議

朴  
玄

時： 1986, 2. 10~19.

場所： 태일란드 방콕

參加國： 중공,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일란드(주최측에서 결정한 알파벳 순서임)

參加人員： 19명

### I. 첫 머리에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 국민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도 기초 학습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장차의 社會生活에 겪을 문제점은 너무도 많을 것이다. 나라의 입장에서 이리 사람들이 많을수록 발전의 기틀이 튼튼하지 못하여 정책 실현에 애로가 많을 것이다. 基礎學習機能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정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기초 학습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문제의 심각성은 다를 것이다. 예로서, 문자 해독이 네팔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큰 문제이나, 우리 한국은 독해력의 향상을 문제 삼고, 그들이 기초 계산 능력(1위수 덧셈)을 2학년 수준에서까지도 걱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한국은 '집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한국을 제외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은 높은 비율의 중도 탈락자, 저학년 과정조차 포기하는 자, 다시 입학하여 학년을 되풀이하는 학생들이다. 유네스코 教育革新機構는 이런 문제점의 여러 원인들

중의 하나로 기초 학습 기능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초등 학교 학력 승진을 위한 共同革新計劃(Joint Innovative Project(JIP) on raising the achievement level of children in primary education)을 1984년에 세워, 1986년 말까지 研究·實踐하기로 했다.

이 共同革新計劃에서 초등 학교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4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① 초등 교육을 위한 就學前 어린이의 효과적인 선수 학습 준비
- ② 초기(저학년) 교육에서 취학전 어린이들의 학업 성취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 교수 방법, 학습 자료, 학생 평가의 전략 개선
- ③ 학습 자료의 제공과 생활 지도의 과제를 遂行할 교사와 장학사들의 준비
- ④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초등 학교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참여

이들 요인을 고려하면서, 研究遂行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準備段階： JIP 적용 지역 선정에서 각 나라의 초등 학교를 대표할 만한 곳을 고려해야 함

\* 教育課程研究部·教育方法研究室長·哲博

\*\* 教育課程研究部·研究員

2) JIP 實施段階: 학업 성취도(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자료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JIP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제 적용함

3) JIP의 評價段階: 최소 8년간 JIP를 학급 단위의 활동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체계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 II. 中間報告會議

대개의 중간 보고 회의가 그렇듯이, 이 共同革新計劃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 결과들을 檢討, 確認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새로운 전략,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나라마다 정도를 달리하는 중요한 4개들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연구·실천해 본 결과를 제시했으나, 얼마만큼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첫째, 문제의 중점 영역이 다른데다가, 둘째, 같은 영역이라고 해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데서 오는 共有感의 부족, 셋째 英語로 회의를 진행할 때의 의사 소통의 불편에서 나타나는 무관심들일 것이다. 아래의 보고 자료는 중간 보고회의 초안에 따라 요약된 것이며, 주최측의 알파벳 순서를 좇아 기술된 것임을 밝혀 둔다.

다른 나라들은 1984년부터 이 계획에 참여했으나 중공은 이 중간 보고 회의에 처음 參與하여 앞으로의 계획 발표에 그쳤다. 특히 Gansu 지역의 농촌 국민 학교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둔 1) 敎授-學習活動의 改善 2) 敎師訓練, 특히 무자격 교사의 문제를 위한 계획으로 약 33% 무자격 교사를 3년 동안 재교육(현직 교사 연수 형태)을 실시키로 함 3) 교수-학습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중공은 1985년 2월에 敎育體制를 개혁하기로 하였던 바, 이 共同革新計劃(JIP)이 중공 자체의 敎育體制改革과 일치하여 최종 보고서 발표에서나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 같다. 이것조차 얼마 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도 1984년에 이 JIP에 참여하였으나 앞에서 밝힌 연구 수행상의 단계별 규정의 '기초 자료' 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즉, 이 기초 자료는 JIP 투입 전의 각 나라의 기초 학력 상태에 관한 것으로 JIP 후에 비교할 근거 자료로 요구된 자료이었으나, 일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마저도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계약 불이행을 국제 계약 문서상의 英語解釋에 핑계를 대는 것처럼 몇몇하기조차 했음을 밝혀 둔다. 구체적 예로서, JIP의 중점 사업의 하나를 밝히는데, "The main emphasis of JIP would be; (a) To make an assessment of the level of achievement of primary school children...."이라고 표현하며 would be로 넘겨버린다.

단지, 3개 지역(Maharashtra, Tamil Nadu, Union Territory of Delhi)이 JIP를 위해 選擇되고 인도 자체의 5개년 계획의 일부로서 구안된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야기된 교육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계몽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인도는 아직도 학부모들이 학교의 敎育活動에 민감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과는 달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敎育을 未來를 위한 投資'의 形態로 이용하기를 일깨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의 알파벳을 그 소리값만 인도네시아 을 빌어 자기 나라말의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1980-1984년에 이르는 교육 혁신 5개년 계획의 연장과 함께 JIP가 연구·실천되고 있다. 초등 학교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서 학년을 되풀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實驗學校, 比較學校를 선정하기 위해 일종의 지능 검사(cultural Fair Intelligence Test)를 실시했으며, 과학 과목과 사회 과목에서 성취도 검사를, 12개 측면의 적성 검사(nationalism, self-reliance, appreciation of hard work 등)를, 학습 과정을 포함한 학교 조건 등을 文化記述方式의 報告를 작성하여 投入效果를 검증해 보려고 했다. 사실, 지능 검사들



이용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우리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전혀 의사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지능 검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적성 검사에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적성 검사의 내용과는 달라서 영어 표현상의 문제로 돌려야 할 것 같았다. 적성 검사라기 보다는 態度檢査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중간 보고회의 때까지는 아직도 비교·검증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JIP의 효과나 그 나라의 5개년 계획의 연장 효과는 검토될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 4개 지역을 선정하여 JIP를 적용하고 있다. 1970년대초 基礎學習機能을 목표로 문교부가 관련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오다, 1982년 새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다. 이 JIP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실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학습 활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 적절한 자료 제공, 학생 평가의 혁신적 체제의 수립 2)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칙적 현직 교사 연수(연방과 주별 단위에서) 3) 교사 활동 센터의 적극적 운영 지원을 학교 장학과 말레이시아 교육 과정 개발 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며, 끝으로 지역 사회 참여와 학습 양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JIP를 적용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은 교사의 능력과 학습 자료의 개발이었다. 말레이시아의 14개주 국민 학교 총수는 305개인데, 조사된 내용은 이들 전체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22개 표집 학교의 것이었는데 이것조차 어떻게 표집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아 教師의 能力이나 資料의 적절성 문제는 더 자세히 검토될 수 없었다. 일상적인 문제 영역으로 1) 문제 은행의 학교 보급 방안 2) 학교 중심 평가 체제 3) 학습 부진아를 위한 처치 학습 4) 선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학업 준비도 검사 개발 5) 평가 기술 개발 6) 학부모를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제안되었다.

**네팔** 이 나라는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 학교에서의 질적 향상이 제한된 범위에서 성공을 보였으며, 네팔 어린이의 대부

분이 국민 학교 교육만을 가까스로 받는다는 점이 重要問題點이다. 특히, 중도 탈락자와 학년을 되풀이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 중학교 취학률의 저조가 '초등 학교 교육 계획'을 위해 世界銀行과 유니세프의 支援을 빌 만큼 심각하게 되었다. 특히 문맹자가 많으며, 학교에서도 教授-學習資料가 너무 부족하고, 더우기 부모가 문맹자인 점을 고려하여 다매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실천 연구(action research) 방법을 44개 학교에 적용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초등 학교 교육 계획과 JIP를 결합시켜 다매체(multimedia Kits) 자료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參與意識을 중요한 변인으로 삼고, 이 多媒體資料를 부모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부모들 교육을 통해, 특히 부모들 자신이 문맹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발한 TV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자녀들의 학교 교육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 필리핀 역시 취학률, 졸업생 비율, 진학률이 낮은 편이어서 國家政策의 중요 문제로 남아 있다. 1학년 입학생의 75%가 4학년까지 진급하며, 66%가 6학년 과정을 마쳐 결국, 입학생의 약 3분의 1이 6학년에 이르기 전에 脫落하고 만다. 더구나 문맹자의 비율은 2학년 정도만을 마친 학생의 81%에 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책으로 自治的 教育發展計劃(Decentralized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me, PRODED)을 세워 실시 중에 있다. 이 자치적 교육 발전 계획은 세계 은행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1) 새 국민 학교 교육 과정의 개선, 보급, 2) 현직 교사 연수 기관의 설립, 3)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中間報告會議에 제출된 기초 자료가 전혀 없어서 JIP와 관련된 초등 학교 학업 성취 정도를 추정할 수 없었다. 비록 1984년 초기에 참여했던 나라이지만, 이제 JIP를 연구·실천하려는 나라와 다를 바 없었다.

**스리랑카** JIP를 위한 주요 사업 계획은 1) 책임 교사, 교장들을 훈련시키고 2) 가정 환경의 강점, 취약점을 확인하여 학교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3) 특별한 교육 과정 자료의 개발 4) 학교

장학진의 적절성을 높이고 5) 취학 전 프로그램의 증진이였다.

실제 추진되는 연구·실천 내용은 1) 취학 전 어린이들의 초등 학교 교육을 위한 효과적 준비 2)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개선 3) 교사, 장학, 생활 지도의 준비이였다.

스리랑카도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수행상의 단계별 규정을 따라 기초 자료 學業成就度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중간 보고 회의의 주최국인 **타일랜드**는 JIP 遂行上의 단계별

규정을 어느 정도 충실히 쫓아서 報告한 나라이다. 1) 취학 전 어린이의 학업 준비(readyiness) 2) 교수 방법, 교수-학습 자료, 효과적 학습 평가 3) 교사 준비와 교육 행정을 포함한 교육 장학 4)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의 영역들을 고루 다루었다. 타일랜드의 경우, 국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JIP 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3개 지역에 2개의 학교 집단(School cluster)을 구성해 놓고 각 학교 집단의 중심 학교(center/leader school)를 통해 JIP 가 보급, 전파되도록 했다. 학교 집단을 10개 학교 이내에서 구성하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즉 行政的 條件도 거의 맞게 되는 연쇄식 방안을 採擇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JIP 가 효과적이었다는 중간 보고 회의에 現場學校參觀를 통해 구체적 학습 활동 관찰, 학교 집단의 운영 상태, 教師教育에 관한 실제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었다. 實驗學校, 比較學校를 두고 경험적 방법을 쓰고 있었으나, 설계상의 원칙과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들은 굳이 이 자리를 빌어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끝으로, 우리 '大韓民國'의 보고 자료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키로 한다. 다만, 연구·실천 계약에 가장 充實하려고 했으며, 보고에 따른 반응도 좋았음을 연구자의 학자적 태도를 빌어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은 초등 학교 학력 증진을 위해, 教授-學習方法的 효과적 운영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에서 JIP 를 계획, 실시해 보았다. 이를 위

해 事前檢査로서 기초 학력 검사(기초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7개의 수업 모형을 3·6학년 표집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算數科에서 수업 모형 적용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국어, 사회과에서는 학년간에 상호 작용이 있어서 수업 모형의 효과를 쉽게 설명, 해석할 수 없었다. 1986년도 계획으로는 학습 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이들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를 검증하는 일들이 있다.

### Ⅲ. 맺음말

이런 國際會議을 놓고, 교육 분야와 산업·기술 분야의 근본적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대표들이 분명히 회의 서두에 밝혔듯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에 깜짝 놀랄만한 효과가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그것도 理解關係, 競爭關係가 얽힌 국제 회의에서 토의하고, 서로 情報를 교환하려고 했었을까이다. 産業·技術分野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회의 중에 자주 거론되었다. 나라마다의 학력 증진 계획이 발표되고,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檢討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해 마지 않을 높은 문맹률, 중도 탈락자, 낮은 졸업생 비율(이수율)이 들추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에 만병 통치약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의사 소통이 될 수 없는 방언들이 취학률을 낮추고, 종교적 수련 관계로 학교 수업이 제 2선으로 밀리며, 무더운 날씨로 2 더하기 3도 생각하기 싫은 나라들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끼리'라는 韓國의 實情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학교 기초 학력의 수준이 저들보다 월등히 높음을 땀땀하게 자랑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이 언제나 기고 있는 것만은 아닐진데, 우리가 견고 있으면서 滿足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뛰어갈 준비, 더 욕심내어 날아갈 準備를 바로 '우리끼리'의 教育을 통해서 다져 놓아야 하겠다. ◆

# '86학년도 教育放送 프로그램 編成案內

金 承 華\*

## 1. 教育放送 運營의 目的

방송 매체의 교육적 특성과 기능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교육력을 높이고 學習經驗의 폭을 넓혀서 학교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며, 국민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 2. 教育放送 運營의 基本方向

1)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함양,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교육 과정의 강조점 구현에 주안을 두고 운영한다.

2) 지역적 여건 또는 학교의 수업 여건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학습 경험을 선정하되, 방송 매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화한다.

3)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풍부화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게 한다.

## 3. 프로그램 編成方針

### 1) 텔레비전

(1) 대상 : 유아, 초·중·고등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2) 방송 채널 : KBS 3TV(UHF)

(3) 편성 기간 : 1986. 3. 1~1987. 2. 28

(4) 단위 프로그램 시간 :

- 유아, 초·중학교 (20분)
- 고등 학교 } (30분)
- 학부모, 교사 }
- 중·고등 학교 공통 (20분)

(5) 중·고등 학교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간대를 둔다.

(6) 수업 대치의 성격을 띤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보충 자료 성격을 확대한다.

(7) 학습 흥미를 높이고 교수법의 개선에 노력한다.

(8) 프로그램의 시리즈화를 통한 학습 내용의 심화를 도모한다.

### 2) 라디오

(1) 대상 : 초·중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2) 방송 채널 : KBS 교육 라디오(FM)

(3) 편성 기간 : 1986. 3. 1~1987. 2. 28

(4) 단위 프로그램 시간 :

- 초등 { 저학년 (10분)
- { 중학년 (15분)
- { 고학년 (20분)
- 중등 (20분)
- 교사, 학부모 (30분)

(5)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학교 수업을 보충 심화하는 교과 학습 프로그램과 교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6) 다음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① 교육 방송 안내 (5분)
- ② 우리 고장 우리 모습 (20분)
- ③ 이야기 국사 (20분)
- ④ 세계의 풍물 (20분)
- ⑤ 이야기 세계사 (20분)
- ⑥ 자연의 신비 (20분)
- ⑦ 우리말 고운 말 (20분)

\* 教育放送本部 放送教育研究1室長

(7) '과학 이야기', '가곡을 들으며'는 폐지한다.

은 1학년'으로 구성)

• 2학년 :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산수, 자연

• 3~6학년 : 국어, 산수, 사회, 자연

② 3~6학년 공통 프로그램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활 영어

③ 방학 중에는 전학년 '탐구 생활' 및 특집 방송으로 대체된다.

4. 프로그램 編成概要

1) 텔레비전 프로그램

(1) TV 幼稚園

유치원 교육 과정에 준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과 자료를 제시한다.

(2) 國民學校

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 1학년 :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3월 중에는 '우리들

(3) 中學校

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

• 1,2,3학년 : 수학 • 1,2,3학년 : 영어

② 전학년 공통 프로그램 : 국어, 과학, 사회, 기술, 가정

'86학년도 TV 교육 방송 주간 편성표

기획·제작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 : KBS 3TV

요일	일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일시	
16							국교도덕	KBS		30	16
							교사의시간				
17	30	TV 유치원	TV 유치원	국교 1년	국교 2년	국교 3년	KBS		30	17	
	50	국교 4년	국교 4년	국교 5년	국교 5년	국교 특활영어					
18	10	국교 6년	국교 6년	음악/미술	체 육	실 과	KBS		30	18	
	30	중 1 영어	중 2 영어	중 3 영어	중 1 수학	중 2 수학					중 3 수학
19	50	중학과학	중학과학	중학사회	중학국어	생활기술	중학가정	KBS		30	19
	10	국어특집 문학의세계	중·고교예능 예술의광장	학습백과	철학교실	중등체육 건강생활	진로지도				
20	30	고 1 국어	고 2 국어	고교영어	고교영어	고교수학	고교수학	KBS		30	20
	30										
21											21
22	30	물 리	화 학	생 물	지구과학	지 리	영어듣기	KBS		30	22
	30	(1학기) 고 3 핵심 정리									
22	00	국 어	영 어	수 학	국 사	세 계 사	사 회	KBS		30	22
	30	(2학기) 학력 고사 대비 총정리									
23	00	국 어	영 어	수 학	공통필수	인문계열 선택	자연계열 선택	부모의 시간			22

#### (4) 高等學校

- 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
  - 1학년 : 국어   • 2학년 : 국어
- ② 전학년 공통 프로그램 : 영어, 수학, 국사, 사회, 세계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영어 듣기
- ③ 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 고사 때까지 학력 고사를 대비한 핵심 정리(1학기) 총 정리(2학기)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단, 학력 고사 이후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특집 방송을 실시한다.

#### (5) 靑少年 프로그램의 개요

- ① ‘문학의 세계’  
교육 과정과 관련 문학 작품과 작가를 소개, 해설함으로써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특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도록 한다.
- ② ‘예술의 광장’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예술 각 분야에 걸쳐 교실에서 소개하기 힘든 뛰어난 작품을 소개하고, 기초 이론을 이해시킴으로써 구성과 감상력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 ③ ‘학습 백과’  
다양한 시각 자료를 동원하여 각 교과에 관련된 흥미 있는 학습 보조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④ ‘건강 생활’  
청소년기에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알고 인체 생리, 환경 위생, 안전 생활에 대해서 안내한다.
- ⑤ ‘철학 교실’  
동·서양의 철학 사상을 재미있게 구성함으로써 사고력, 판단력을 기르게 한다.
- ⑥ ‘진로 지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위해 진학 및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토록 돕는다.

#### (6) 敎師의 時間

현장에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교사 연수에 활용하도록 한다.

#### (7) 父母의 時間

취학 전 아동으로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자녀 지도를 위한 폭넓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2) 라디오 프로그램

##### (1) 國民學校

- 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 1,2학년 :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 3~6학년 : 도덕, 국어, 사회, 음악  
토요 특집(교과별 보충 학습)
  - 3월중 1학년 프로그램은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한다.
  - 방학 중의 교과 프로그램은 탐구 생활 및 특집 방송으로 대체된다.
- ② 4~6학년 공통 프로그램 : 특활 영어
- ③ 학습 보조 프로그램 : 우리 함께 그려요, 옛날 옛날에, 우리네 글동산, 시와 함께 음악을, 어린이 극장, 왜 그럴까요, 이주일의 명작, 빛을 남긴 사람들, 한낮의 음악 선물, 오늘의 명상, 음악 감상

##### (2) 中學校

- 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 1,2,3학년 영어
- ② 전학년 공통 프로그램 : 영어 듣기
- (3) 初·中學校 共通學習補助 프로그램 : 스포츠 백과, 자연의 신비, 우리말 교운 말, 우리 나라 전통 음악, 우리 교장 우리 모습, 이야기 국사, 세계의 풍물, 이야기 세계사

(4)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 교사의 시간, 교육 방송 중계탑, 교단을 지킨다.

(5)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 어머니 교실

(6) 주요 학습 보조 프로그램의 개요

- ① 교육 방송 안내(매일 5')  
‘교육 방송 소식’과 함께 한국 교육 개발원 제작, 제공의 시간대를 안내하며, 다음날의 방송 순서와 내용을 소개한다.
- ② 우리 교장 우리 모습(월 20')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유적, 천연 기념물, 특산물, 개발된 산업 등을 소개하여 우리 국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 ③ 이야기 국사(화 20')

우리 나라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을 연대별, 토픽별로 선정하여 역사 의식을 강화한다.

④ 세계의 풍물(수 20')

세계 여러 지방의 풍토, 살아가는 모습과 문화 유산, 특산물 등을 여행자(가능하면 그 지방 인사)를 통해서 알아본다.

⑤ 이야기 세계사(목 20')

세계 역사를 시대별, 토픽별로 다루어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대사의 배경

을 알 수 있다.

⑥ 자연의 신비(일 20')

지구와 우주, 동물과 식물계의 신비한 자연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과학하는 태도를 기른다.

⑦ 우리말 고운 말

일상 생활에서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잘못 쓰고 있는 말을 바로 잡아 주고 말의 표현, 말의 예절을 배운다.

잊혀지고 있는 우리말도 되살려 본다.◆

기획·제작 : 한국교육개발원

86' 학년도 교육 방송 Radio 주간 편성표

방송 : 교육라디오(FM)

요 일 지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사 분	
10	교육 방송 소식								
	1 바생		1 즐생	1 바생	우리함께 그리요	우리네 글동산	시외함께 음악을	05	
	2 바생	2 즐생	2 바생		옛날에 옛날에			25	
	오늘의 명상								
	3 도덕	3 국어	3 사회	3 국어	3 음악	3 토요일집	어린이 극장	30	
4 국어	4 사회	4 국어	4 음악	4 도덕	4 토요일집	45			
11	중 학 영 어							중학영어 듣기	
	1 학년		2 학년		3 학년				20
	5 사회	5 국어	5 음악	5 도덕	5 국어	5 토요일집	스포츠 백과		40
	6 국어	6 음악	6 도덕	6 국어	6 사회	6 토요일집	자연의 신비		
12	한 낮의 음악 선물								
	국민학교 특활 영어							우리말 교운말	25
	왜 그럴까요								35
	이주일의 명작			빛을 남긴 사람들				교육방송 중계탑 (제)	45
13	음 악 감 상							우리나라 전통음악	
	우리교장 우리모습	이야기 국사	세계의 풍물	이야기 세계사	교사의 시간	교단을 지킨다	교사의 시간(제)		20
	어머니 교실			교육방송 중계탑					
	교육중방 안내								

## 韓國教育開發院業務 電算化 事例

文 泰 鎬\*

내가 조그만 經驗과 所見을 가지고 감히 컴퓨터에 대하여 論한다는 것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옛 속담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를 알고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바둑의 급수에 비유해서 활용 능력이 몇급 정도 되느냐고 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 3년 정도 되었으니까 컴퓨터 세계에서 나는 햇병아리에 불과하다. 그 당시 俸給計算을 한참 하고 있을 때, 教育情報研究室<전산실>에 발령받은 이만희 씨가 “봉급 계산은 내가 해 줄 테니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教育資料部의 봉급 계산 건을 가져간 것이 나와 컴퓨터가 처음으로 因緣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컴퓨터란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때라 原資料를 일일이 입력시킨다는 것이 매우 불만스럽고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한번 원자료를 입력시켜 놓은 결과, 그 후로는 약간의 자료 변경만으로 봉급이 저절로 계산되어 나오는 컴퓨터의 威力(?)에 반하게 되었고 지금도 컴퓨터의 무한한 계산 능력에는 저절로 感歎辭가 터져 나온다.

본원에 처음 컴퓨터를 설치하였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컴퓨터만 들여오면 무엇이든지 곧 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컴퓨터!

이것은 하드웨어 곧, 어찌보면 쇠덩이에 불과

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듯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걸맞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가 開發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현재 先進國에서는 컴퓨터 구입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購入 및 開發費와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研修訓練費가 몇 배의 비중을 차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지면을 통하여 본 적이 있다. 혹자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쓰면 되지 않느냐”고 反問할지 모르나 變形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開發하는 편이 훨씬 편한 일이다. 즉 남이 입을 옷을 자기가 입으면 어딘가 어색하고 편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시중에는 상품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기는 하지만, 機關마다의 특색있는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인해 그런 商品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전산화는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좋은 예로서, 본원에 컴퓨터를 설치하기 전에 급여에 대한 電算處理를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처리하였다가 결국 실패한 일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담당 업무 내용, 기계의 특성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理解와 素養을 갖추 필요가 있다.

業務의 電算化를 위해서는 업무의 흐름을 논리 정연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노하우(많은 경험에 의해 체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처리 기술의 의미)이기 때문에 업무 전산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理

\* 教育資料部 · 管理員

解를 돕기 위하여 우선 본원의 급여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총 100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이것을 세분화하면 1) 입력 프로그램, 2) 계산 프로그램, 3) 화면 출력 프로그램, 4) 프린트(양식 인쇄) 프로그램, 5) 토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의 경우, 봉급 체제(직종, 직급)가 너무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상의 기본 프로그램에 본봉 계산 프로그램과 문자 축소 프로그램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다.

다른 電算所에서는 급여의 항목이 많으면 여러 줄로 찍는 방식을 採擇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資料의 錯誤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원 특유의 방법으로 글자의 크기를 다양하게 혼합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을 考案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이 만희 씨와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급여 계산에 필요한 인적 사항과 숫자의 입력을 끝냈을 때의 기쁨은 經驗者가 아니고는 모르리라.

돌이켜보면 그 過程은 실로 참담하고, 고되고, 외로운 것이었으며, 특히 외부 전문 회사에 의뢰, 처리하였다가 失敗한 경험을 가졌던 업무 담당자의 전산 처리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다.

또한, 이런 龐大한 프로그램이 단 한 개의 조그만 버그(극히 사소한 착오: 발견하여 고치기 어렵다)로 인하여 돌아가지 않을 땐, 참으로 난감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끼리의 對話에서는 몇 마디의 단어가 생략되어도 意思가 傳達되고, 또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하나 하나를 정확히 전달해야만 알아 듣는 컴퓨터와의 대화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는다. 어찌보면 컴퓨터는 대단한 명칭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대 쪼어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나 자신의 無能함을 탓할 수 밖에 없었다“컴퓨터가 편리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편리하도록 준비하는 과정(프로그램과 자료 관리)”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사람은 보잘것 없는 PC(Personal Computer)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등

PC를 輕視하는 풍조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PC와 대형 컴퓨터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짜장면을 배달하는 데 오토바이를 사용할 것인가 트럭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큰 이사집을 나르는 데 트럭을 사용할 것인가 택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경우의 選擇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컴퓨터는 業務의 量과 性格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偏見이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이는 PC를 어린이 장난감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대단한 錯覺이다. 16비트 컴퓨터에 부착된 20메가 디스크(현재 사용)의 용량은 글자수로 환산한다면 200만자로서 본원의 研究報告書 1페이지당 1,008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9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계산한 결과는 보조 기억 장치에 별도로 수록하므로 서류철을 서류함에 산처럼 쌓아놓을 필요도 없다). (참고 문헌: 한국 교육 개발원의 전산화 기본 계획 연구 보고서: KAIST 유시정(1980) 발표서에는 현재 용량의 1/2 정도면 행정 처리는 족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현재 美國에서도 마이크로 기종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왜냐 하면, 마이크로 기종은 작으면서도 종전의 대형 컴퓨터에 버금가는 容量과 技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결같이 봉착하고 있는 난제는 연간 몇 천만원씩에 달하는 整備補修料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대단한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날 때를 대비하는 명분으로 지불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럴 바에야 비슷한 용량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處理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보수료도 훨씬 싸고, 전기료도 적고, 면적도 훨씬 덜 차지하니 그야말로 一石二鳥가 아닌가? 따라서, 일반 행정 업무 처리의 경우, 대형 컴퓨터에서 소형 컴퓨터로 옮겨가는 것이 세계적인 趨勢이다.

요즘 業務電算化에 대한 認識과 重要性이 크게 강조되면서도 그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갈



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나도 어떻게 하면 效率的이면서도 能率的으로, 그리고 기존 업무 담당자와의 협조 체제를 이루며 전산화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여 왔다. 우선, 電算化를 이루는 방법으로는 토탈 시스템과 개별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원의 업무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시스템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본원의 機能과 性格이 일반 생산 업체와 달라 이에 따른 기능도 각기 다르므로 행정 업무 전산화에 많은 經費와 人力을 요구하는 토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전산화로 인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원의 設立目的(기능), 즉 연구 보고서의 質改善 및 生産性提高와 교육 방송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토탈 시스템보다는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에 맞게 개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소개한다면, 메인 기종인 VAX II / 750 에 터미날 5 대가 부착되어 있고, 터미날 겸용 IBM-PC 4 대, 그리고 컴퓨터 교육 연구용으로 여러 기종의 소형 PC 가 있다. VAX II / 750 에는 주로 資料量이 많은 도서 대출 관리, 방송 자료 관리, SPSS 연구 통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IBM-PC 는 급여 및 제수당 지급 업무, 인사 관리, 방송 출연료 지급 업무, 주소록 관리,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원 업무의 전산화 대상 업무를 把握해 본다면 인사 업무, 급여 및 제수당 지급 업무, 회계 업무, 자산 관리 업무, 도서 대출 및 열람 업무, 방송 자료 관리 업무,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보고서 편집, 교정 업무 등을 통한 報告書 質改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로서 원우회 운영 업무, 예산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일부분은 전산화가 완성되었거나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 보다 빠른 電算化를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人的·物的인 뒷받침이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 본원에서 실제 전산화가 이루어진 업무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적극적으로 전산화를 추구한 업무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本院보다 먼저 업무 전산화를 이룬 업체의 전산 담당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業務制度 改善과 經營者의 意志없이는 업무 전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많은 기관에서 업무의 전산화를 추구하다가 실패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거두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傳統的 思考方式대로 전산화를 추구한다는 데에서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전산화에 알맞는 業務의 改善이 불가피한 데에도 종전 손으로 하던 방식과 제도 그대로 전산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기존 업무 담당자와 쉽게 접근되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 1) 無知 :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 2) 無視 : 새로운 것을 무시하는 태도 : 나는 결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3) 現狀維持 : 과거에 사용된 일이 없다. 컴퓨터는 어려우니 현재의 방식대로 하자.
- 4) 慣習 : 사용자는 따로 있다. 내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겠느냐.
- 5) 代置 : 현재대로 일을 처리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만큼이나 효과적이다.
- 6) 環境 : 우리의 환경이나 업무상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거주장스럽다.
- 7) 實現을 통한 抵抗 :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도 일처리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잘해 왔다.
- 8) 經驗을 통한 抵抗 : 옛날에 한번 컴퓨터를 사용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9) 報償 : 노력한 만큼 나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보상이 없다.

이상과 같은 心理的인 要因들이 업무 담당자에게 전산화를 저해 하는 것들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본원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차 방문한 포항 제철에서는 이사급까지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電算試驗을 치르도록 하며, 모든 업무는 우선 전산 처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컴퓨터와 친밀(?) 하도록 유도하는 事務室霧圍氣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90년대까지 Less Paper Office <공문서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업무 담

당자들에게 지속적인 전산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산화 체제를 구축(포항 종합 제철에서는 전산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LAN(지역통신망)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17억원의 경비를 투자하였다. 또한, 전산 센터 근무자가 193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인건비와는 별도로 전산 운영 비로 연간 200억원이 지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매 회사로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하는 과정에서 전산화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 確立初期에는 經濟性的 準據를 거론하기가 곤란하다는 례 매니저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비영리 연구 기관에서 경제성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機關發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 업무 담당자의 전산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전산화에 대한 인식, 즉 전산화가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 經費節減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업무의 迅速化, 正確化 그리고 標準化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는 필요한 業務調整과 폭넓은 의견 수렴 그리고 규정이나 제도에 엄매이지 말고 탄력성 있는 전산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誘導함과 동시에, 전산화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 제도나 처우 개선을 통한 분위기 조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원의 경우에도 전산화의 적극적인 運營과 시스템의 충분한 活用을 위해서는 필요 인원의 충원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現在의 定員(T/O)에 엄매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전산화를 담

당하는 教育情報研究室(전산실)의 경우, 직원이 7명이나 되고 있지만 研究業務(CAI 프로그램 현장 실험 적용 연구와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해 4명의 연구원이 할당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는 단지 3명(시스템 엔지니어 포함)만이 할당되어 있다. 특히, 나 자신도 庶務業務와 電算業務를 동시에 遂行하므로 그 어느 업무에도 전념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業務電算化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데이터 양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일 관리와 업무의 부분적인 변형으로 프로그램의 수정·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 전산화가 일반 영리 업체보다 국가 기관에서 상당히 늦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러한 간부 직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지원)을 얻지 못함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업무의 조정과 적극적인 人的·物的 支援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쇠뿔이(컴퓨터)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업무의 중요성과 지원 차원에서 전산화에 대하여 갖고 있는 낮은 수준의 프라이어티, 그리고 업무 담당자의 보수적인 태도가 電算化의 遲延을 초래하는 것 같다.

본원 업무 전산화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현재까지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셨지만)과 직원의 정예화, 전문화를 피하면서 기관 전체가 급속히 변모하는 현대 사회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培養하여야 하며, 동시에 직원 개개인이 능동적·긍정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 ▷ 院 內 動 靜 ◁

### ○ 主要 協議會 및 세미나 ○

- '86年度 研究實行計劃書 審議會가 本院 第1 會議室에서 2월 5, 7, 8일에 걸쳐 開催되었다. 院長, 副院長, 評價委員 20名, 諮問委員 3名, 事務處長, 監事室長, 各 部署研究陣이 參席한 가운데 2월 5일에는 教育發展研究部の 12課題, 2월 7일에는 教育課程研究部の 9課題와 教育資料部の 2課題, 2월 8일에는 教育放送本부의 2課題와 放送通信高等教育局의 2課題를 審議하였다.
- 3월 26일 本院講堂에서 第5次 幼稚園·初·中學校 教育課程制定을 위한 方向探索會議을 文教部關係官, 教育改革審議會 初·中等分科審議委員 및 專門委員, 教育課程專門家, 本院 研究陣 등 100여 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이번 第5次 教育課程은 1955년 第1次 教育課程이 制定된 후, 네번째로 改定되는 教育課程으로서 1989년 公布·實施될 豫定이다.
- 3월 26일 本院 第2 會議室에서는 第52回 理事會가 열렸다. 孫製錫 理事長(文教部長官)의 理事 7명과 幹事가 參席한 가운데 열린 理事會에서는 崔烈坤 理事의 就任報告가 있었으며, '85會計年度決算(案)과 利益剩餘金處分(案) 등 主要案件을 議決하였다.

### ○ 來訪人士 ○

- 2월 5일 駐韓 네델란드 大使館의 반레인 書記官 外 2명은 本院을 訪問하여 教育放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資料를 交換하였다.
- 2월 25일 英國 劍橋大學 스트레브스 教授는 本院을 來訪하여 "National/Functional/Communicative Approach"라는 主題로 講演하였다.
- 3월 26일 孫製錫 文教部長官은 本院을 初度巡視하여 金永植 院長으로부터 本院業務現況을 報告받고, 이어 講堂에서 개최되고 있는 第5次 幼稚園·初·中學校 教育課程制定을 위한 方向探索會議을 둘러보았으며, 아울러 院內現況을 巡視한 후, 本院 任職員의 研究業績을 높이 評價, 그 勞苦를 致賀하였다.

### ○ 對外活動 및 研修 ○

- 2월 3일부터 3월 1일까지 김창식 編成室長은 말레이시아에서 開催한 "AIBD(The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어린이用 TV program 企劃 및 生産에 관한 視察"에 參席하였다.
- 2월 18일 本院 김영식 院長은 양재 國庫學校 卒業

式에 參席하여 모범 어린이로 選定된 6학년 3반 박정화 어린이에게 表彰狀 및 副賞을 授與하였다.

-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本院 教育情報室 손병길 研究員은 本院과 英國文化院 간의 教育研究 協力方案의 一環으로 教育部門의 Computer 活用을 위한 program 研修에 參加하였다.

### ○ 院內消息 ○

- 1985學年度 放送通信 高等學校 卒業式이 1986년 2월 2일 강릉상업고등학교 부설 放送通信 高等學校로부터 시작하여 2월 10일 대전여자고등학교, 2월 16일에는 서울의 7개교 등 全國 47개 高等學校에서 거행되었다. 本院 신 세호 副院長과 本院의 關聯職員이 각 學校 卒業式에 參席해서 本院 김 영식 院長을 대리하여 表彰狀과 賞品을 授與하고 祝辭를 대독하였다.
- 教育課程研究部 主管으로 '85년 12월 17일부터 실시한 네팔 Tribhuvan 大學 教育發展研究所 副教授 Mrs. Sumon Kamal Tuladhar 에 대한 本院研修가 '86년 2월 28일 終了되었다.

### ○ 人事消息 ○

- 新規任用 및 補職發令
  - 허 경철 : 教育課程研究部 教育課程研究室長에 補함.
  - 문 용린 : 教育課程研究部 道德教育研究室長에 補함. (이상 2월 1일자)
  - 민 상근 : 教育放送本部長에 補함.
  - 김 현일 : 教育放送本部 製作局長에 補함. (이상 3월 6일자)
  - 김 영주 : 教育課程研究部 職業技術教育研究室 實科課題責任者에 補함. (3월 26일자)
  - 전 경갑 : 教育發展研究部 比較教育研究室長에 補함. (3월 28일자)
- 昇 進
  - 최 운실 : 教育發展研究部 責任研究員에 任함. (3월 6일자)
  - 이 규옥 : 教育放送本部 放送職 2級에 任함. (4월 1일자)
- 退 職
  - 홍 기형 : 教育放送本部長을 免함. (3월 5일자) (中央大 教授)
  - 최 정일 : 教育發展研究部 比較教育研究室長을 免함. (3월 17일자) (東亞大 教授)

# 韓國教育開發院 最新刊行 研究論著

- |   |   |
|---|---|
| ◦ 初·中學校 컴퓨터 教育課程案의 研究·開發<br>〈크라운판 136면〉           | ◦ 國民學校 算數科 評價方案研究<br>〈크라운판 288면〉            |
| ◦ 中學校 學習不振學生을 위한 프로그램 開發研究<br>〈크라운판 236면〉         | ◦ 國民學校 社會科 評價方案研究<br>〈크라운판 354면〉            |
| ◦ 中學校 數學科 學習不振兒를 위한 補充學習 프로그램 開發研究<br>〈크라운판 106면〉 | ◦ 學校·學級の 適正規模<br>〈크라운판 222면〉                |
| ◦ 中學校 國語科 學習不振兒를 위한 補充學習 프로그램 開發研究<br>〈크라운판 178면〉 | ◦ 父母教育 프로그램 模型 開發研究<br>〈크라운판 260면〉          |
| ◦ 中學校 科學科 學習不振兒를 위한 補充學習 프로그램 開發研究<br>〈크라운판 134면〉 | ◦ CAI模型 프로그램 開發研究<br>〈4×6배판 250면〉           |
| ◦ 美國 科學教育의 動向과 變化(1960~80)<br>〈크라운판 88면〉          | ◦ 靑少年 自我概念 및 價值觀確立 프로그램 開發研究<br>〈크라운판 200면〉 |
| ◦ 國民學校 美術科 實技評價의 實際<br>〈크라운판 120면〉                | ◦ 初·中學校 道德教育 內實化를 위한 基礎研究<br>〈크라운판 168면〉    |
| ◦ 國民學校 音樂科 實技評價의 實際<br>〈크라운판 64면〉                 | ◦ 中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br>〈크라운판 356면〉            |
| ◦ 國民學校 體育科 實技評價의 實際<br>〈크라운판 132면〉                | ◦ 中學校 社會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84면〉         |
| ◦ 科學과 探求能力 伸張을 위한 學習指導方法改善研究<br>〈크라운판 200면〉       | ◦ 中學校 國語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34면〉         |
| ◦ 數學科 問題解決力 伸張을 위한 學習指導方法改善研究<br>〈크라운판 176면〉      | ◦ 中學校 數學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80면〉         |
| ◦ 學生의 進路決定過程分析<br>〈크라운판 152면〉                     | ◦ 中學校 道德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78면〉          |
| ◦ 韓國 自廢症兒童의 學校教育 實態調查研究<br>〈크라운판 84면〉             | ◦ 中學校 音樂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24면〉         |
| ◦ 國民學校 國語科 評價方案研究<br>〈크라운판 170면〉                  | ◦ 中學校 技術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98면〉          |
| ◦ 國民學校 自然科 評價方案研究<br>〈크라운판 420면〉                  | ◦ 中學校 科學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48면〉         |
| ◦ 國民學校 實科 評價方案研究<br>〈크라운판 270면〉                   | ◦ 中學校 社會科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br>〈크라운판 184면〉         |

—본원 간행물 전국 보급 서점 안내—

서울: 교보문고(730-7891)	부산: 문교서적(44-0151)	인천: 중앙서점(93-7274)
대구: 학원사(253-0204)	춘천: 학문사(2-6769)	청주: 유신상사(2-2542)
대전: 교학사(253-9757)	안동: 스텔서적(2-2044)	광주: 동아교재사(55-0419)
울산: 동아서적(2-2485)	마산: 동아서점(2-1355)	진주: 한남서점(52-3492)
전주: 민족문화문고지사(2-7568)	보급처: 민족문화문고 간행회(675~1981~3)	

국민학교 특활용

**영어 배움책**

- 배움책 1권, 카세트 테이프 5개  
    값 : 7,500 원
- 수업 지도서  
    값 2,450 원

연구·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보급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전화 675-1981~3  
 ※ 판매처 : 전국 유명 서점  
 ※ 방송시간 TV : 금(17:50~18:10)  
                   Radio : 월~토(12:25~12:35)

**중학영어 듣기자료**

- 지도서 1권, 카세트 테이프 10개  
    (1.2.3학년별)  
    값 : 1학년용 ; 13,800 원  
          2학년용 ; 14,000 원  
          3학년용 ; 15,000 원

연구·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보급 : 한서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90-5  
 전화 363-3603, 362-1284  
 ※ 판매처 : 전국 유명 서점

◇ 원고 공모 ◇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  
 모합니다.

1. 내 용 : 논단, 연구 보고, 교육학 수상,  
          교육학 이론, 현장 교육 연구 및  
          사례, 교육 정보
2. 매 수 : 45매 내외(200자 원고)
3. 원고마감 : 수시 접수
4. 고 료 : 매당 2,000 원  
          (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 출 처 : 우편번호 135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출판실  
          (전화 567-5021)
6. 제출된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게재합니다.

〈編輯委員〉

委員長	郭 相	萬
委 員	姜 武	雙
	金 承	華
	南 美	英
	朴 慶	淑
	朴 德	圭
	朴 文	泰
幹 事	威 熙	哲

(비매품)

격월간 교육개발 제 8권 제 2호(통권 41호)

1986년 4월 5일 인쇄 · 1986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대) 567-5021·5121  
 등록 번호 등록 바-574  
 등록 연월일 1975년 8월 20일  
 인쇄처 : 大韓教科書(株)

이 책은 발행 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교육 연구 개발 및 현장 교육에 관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